

독해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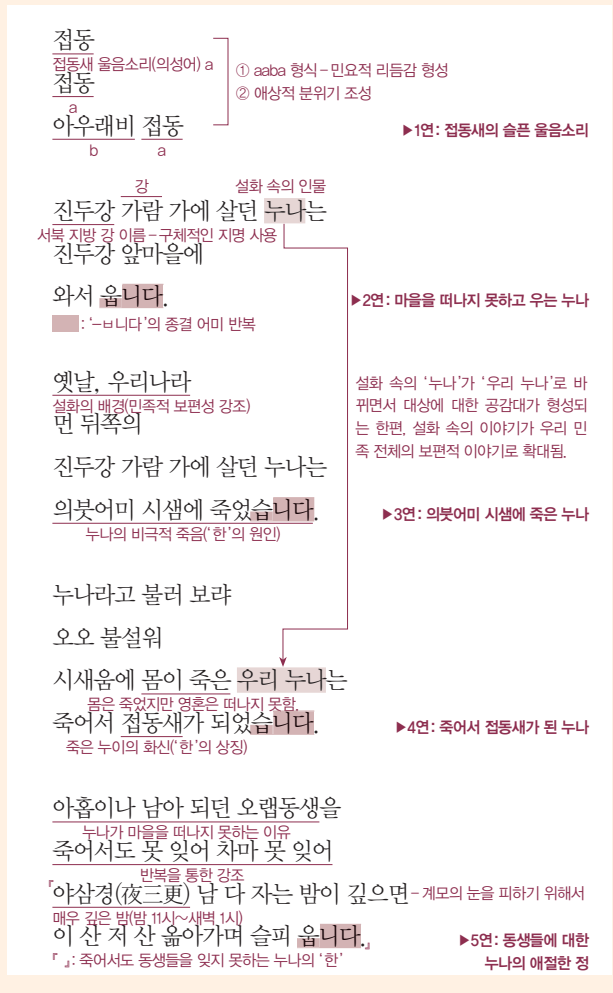
이 시는 서북 지방에 내려오는 비극적 설화의 내용을 전통적인 율격으로 표현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한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다양한 시적 장치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작가의 고향인 평안도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접동새 설화를 현대시의 형식으로 재창조한 작품이다. 먼저 1연에서 접동새 울음소리를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언가 사연이 있는 울음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2연에서 설화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한 후, 3~5연에 걸쳐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전달한다. 2연에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한 화자는 4연에 와서 '오오 불설위'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누나'로만 표현되던 시적 대상이 4연에 와서 '우리 누나'로 바뀌면서 대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때 정서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서럽고 슬픈 감정은 설화 속의 누나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정서로 확대된다. 이러한 정서의 심화는 1연에서 1회만 사용되던 3음보 율격이 2연에서는 2회, 3연과 4연에서는 3회,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4회 반복되는 점층적 구성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소재, 운율, 어조, 주제 등 다양한 요소에서 전통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애절한 혈육 간의 정



문제 13쪽

1 ③ 2 ⑤ 3 ⑤

원리로 작품 독해 14쪽

- 1 서러움, 접동새
- 2 울음소리, 누나
- 3 3. 방언, 전통적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③

이 시에서는 구체적인 지명인 '진두강'과 평안도 방언인 '불설위' 등을 사용하여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운율이나 어조, 배경 등을 통해 전통적인 정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는 접동새 설화의 내용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2연의 '진두강 앞마을'에서 5연의 '이 산 저 산'으로 공간을 이동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따라 화자의 다양한 정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② 4연의 '불설위'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화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시적 상황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대상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 시는 화자의 독백조로 시상이 전개된다.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보기>는 이 시가 접동새 설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글이다.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은 '오랩동생'이 아니라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이다. 이 시에는 '오랩동생'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랩동생의 태도를 민족의 현실과 연결하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1연에서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며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시행을 3음보의 율격에 맞춰 배열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를 주고 있다.
- ② 1연에서 접동새 울음소리를 표현하고, 2연에서는 누나가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운다고 하였다. 이로써 1연에서 우는 접동새가 누나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는 접동새 설화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 ③ 2연과 3연의 '누나'는 4연에서 '우리 누나'로 확장되어 변주되고 있다. 이로써 설화 속 개인의 슬픔과 한이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으로 확장되고 있다.
- ④ 3음보의 율격은 우리 전통 시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민요조의 율격이다. 이 시에서는 이를 통해 전통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3 사상 전개 과정 파악

답 ⑤

화자는 [B]와 [C]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접동새 설화를 전달하다가 [D]에서 '오오 불설위'라며 주관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화자의 태도가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다가 객관적으로 바뀌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A]에서는 접동새 울음소리를 ‘접동’이라고 표현한 의성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2연부터 5연까지는 ‘-ㅂ니다’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결 어미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면서 시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준다.
- ③ 3음보의 울격이 1회(1연) → 2회(2연) → 3회(3, 4연) → 4회(5연)와 같이 점층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④ [B]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된 접동새 설화는 3연~5연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된다.

- 1 「접동새」는 서북 지방에 내려오는 ‘접동새 설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며, 이 시는 고전 소설 「흥부전」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둘 다 다른 갈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 2 ㉞의 ‘구슬’은 ‘눈물’의 비유적 표현이다. 흥부 부부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이다. 즉 서로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흘리는 눈물이다. 이는 상대방의 가난에 가슴 아파하는 애정과 위로의 감정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화자는 물질적 풍요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가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작품
읽어 읽기

흥부 부부상 | 박재삼

15쪽

작품 해제

이 시는 고전 소설 「흥부전」에서 모티프를 얻어 창작한 작품이다. 화자가 주목하는 장면은 흥부 부부가 박을 타기 직전의 상황이다. 소설에서는 그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흥부 부부의 삶을 바꿨지만 시에서는 흥부 부부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흥부 부부는 그저 소박한 박이라도 함께 자를 수 있고 그것으로 가족들의 끼니를 때울 수 있음에 만족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박을 타며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금’이나 ‘황금 버 이삭’ 같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대신할 수 없다. 때로는 가난으로 서로 눈물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눈물마저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 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화자는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물질적인 풍요보다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재와 어조, 정서 등에서 시인 특유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가난한 삶의 애환과 극복

화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삶

흥부 부부의 웃음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삶 • 가난을 이겨 내는 낙천적인 마음 •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 서로에 대한 애정과 연민
------------	--

대립적 시어의 의미

<p>웃음</p> <p>정신적 행복</p>	↔	<p>금, 황금 버 이삭</p> <p>물질적 풍요</p>
--------------------------------	---	--

1 고전 소설 2 ㉞

2 · 고등 국어 현대 문학

02 수(繡)의 비밀 | 한웅운

16~19쪽

독해 포인트

이 시는 옷에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낸 작품이다. 화자의 행위에 담긴 태도와 심리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임에 대한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옷을 짓고 주머니에 수를 놓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에게 있어서 '당신'의 옷을 짓는 행위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정성껏 심의와 도포와 자리옷을 지었지만, 주머니에 수를 놓는 마지막 작업만은 미루고 있다. 이는 '당신'의 부재 때문이다. 화자는 '당신'이 부재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주머니에 수를 놓는 행위를 반복하며 '당신'의 부재로 인한 아프고 쓰린 마음을 위안받고 정화한다. 하지만 수를 놓아 옷을 짓는 행위를 완성하면 '당신'의 부재가 환기된다. 이에 화자는 수놓기를 끝내지 않으며 '당신'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지속하고 있다. 즉 '당신'의 부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음이 수를 놓는 행위의 자연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당신'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시인 특유의 경어체 말투와 역설적 표현으로 '당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1 : 경어체의 종결형 반복 - '당신'에 대한 존중과 정성을 드러냄.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 임, 조국 등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행의 내용 구체화(열거) - '당신'에 대한 사랑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옷 짓기를 완성하는 행위
▶1연: '당신'의 옷을 다 짓고, 주머니에 수놓는 일만 남김.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놓는 일을 자주 반복함.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옷을 완성하면 '당신'의 부재가 환기됨. →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태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부정적 상황 - '당신'의 부재 인식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수를 놓으면서 마음이 진정되고 정화됨.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

부정적 공간

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2연: 주머니의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역설적 표현: '당신'이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재회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

→ '당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문제 17쪽

1 ⑤ 2 ③ 3 ③

원리로 작품 독해 18쪽

1 옷, 수놓기

2 당신, 정화

3 사랑, 역설적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이 시의 각 행은 '-습니다.' 형태의 종결형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어체의 종결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당신'을 존중하는 태도와 '당신'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이 시에는 후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이 시의 화자는 '나'로 작품에 직접 드러나 있다. 또한 화자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을 뿐, '당신'을 관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이 시에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으며, '당신'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도 변화가 없다.

2 시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이 시의 화자는 '당신'을 그리워하며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당신'의 부재로 그러한 바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런데 ①은 '당신'이 부재하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② ①은 '당신'이 부재하는 공간이므로 화자와 대상이 소통하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④ 화자는 '당신'이 부재하는 현실에 대해 마음 아파할 뿐,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 ⑤ ①은 화자가 수를 놓으며 '당신'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화자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은 화자가 '당신'의 부재라는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확인]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는 수를 놓는 화자의 행위가 이전부터 계속 반복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화자가 주머니에 수를 놓는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종결짓지 않는 것은 '당신'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에는 '당신'의 부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으면서 '맑은 노래'가 '나의 마음'이 된다고 했다. 이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기 정확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는 화자의 자기 정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의도적으로 행위를 종결짓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는 '당신'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작품 **자수** | 허영자 19쪽
읽어 읽기

작품 해제
 이 시는 수를 놓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슬픔과 번뇌를 이겨 내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 화자는 수를 놓으면서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힌다. 평화로운 마음 상태는 '정갈한 자갈돌의 / 강변'이라는 감각적인 이미지로 구체화된다. 화자가 번뇌하는 이유는 5연에서 드러난다. '세사 번뇌', 그리고 '사랑의 슬픔' 때문이다. 화자는 수놓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극락정도 가는 길도 / 보일 성싶다'며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는 상태에 이를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주제
 수놓기를 통한 번뇌의 극복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수를 놓음.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음.

'수놓기'의 의미

고뇌와 번민으로 마음이 어지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슴 속 아우성이 가라앉음.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 이름. 세사 번뇌, 사랑의 슬픔을 참아 낼 수 있을 듯함. 극락정도로 가는 길도 보일 듯함.
--------------------	---

수놓기

번뇌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함.

- 1 수놓기 2 ③**
- 이 시의 화자는 '마음이 어지러운 날'에 수를 놓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다. 「수의 비밀」의 화자 역시 주머니에 수를 놓으면서 '주머니 속'의 '맑은 노래'가 자신의 마음이 되는 정확의 과정을 경험한다.
 - '정갈한 자갈돌의 / 강변'은 일상적인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힌 화자의 평화로운 심리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3 유리창 1 | 정지용

20~23쪽

독해 포인트

이 시는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그리움을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유리창'이라는 제재의 속성과 대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상실감과 슬픔을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유리에 어린 '차고 슬픈 것'을 보고 있다. 그 대상을 자세히 보기 위해 반복해서 입김을 흐리우지만 결국 눈물 맺힌 화자의 눈에 박히는 것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뿐이다. 이 '차고 슬픈 것', '물 먹은 별'의 정체는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난다. 그 대상은 폐에 병을 얻어 산새처럼 날아간 '너'이다. 이로써 화자가 유리창을 닦는 이유가 밝혀지는데, 화자는 이런 자신의 감정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유리가 갖는 투명성과 차단성의 이중적 속성을 이용하여 정서를 표현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투명하기에 '너'를 볼 수 있지만, 차단되어 있기에 '너'를 더 가까이할 수 없는 우리의 속성을 통해 소통과 단절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을 잘 드러낸다. 슬픔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사물이나 행위를 통해 간접적, 암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그리움

■: '너'(죽은 아이)를 형상화한 표현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1~3행: 유리에 어린 '너'의 형상
 입김 자국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새겨 날갯짓하는 것으로 표현함.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죽은 아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그리움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백힌다.
 눈물 고인 화자의 눈에 비친 별 ▶4~6행: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밤의 풍경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역설법 ▶7~8행: 유리를 닦으며 느끼는 외롭고 황홀한 마음
 고혼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너'의 죽음의 원인 → 화자의 비애감
 아이, 너는 산(山)새처럼 날러갔구나!
 영탄법 '너'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9~10행: 산새처럼 날아간 '너'로 인해 느끼는 안타까움

문제 21쪽

1 ① 2 ③ 3 ③

원리로 작품 독해 22쪽

- 유리(창), 외로움, 산새(산새)
- 유리(창), 절제, 역설적
- 소통, 단절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①

이 시는 '어린거린다', '파다거린다', '부딪히고', '날러갔구나'와 같은 동적 심상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② 이 시에 '벌', '산새'와 같은 자연물이 소재로 사용되었지만, 인간과 대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다.
- ③ 이 시에는 당연한 내용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④ 이 시에는 시간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이 시는 주로 독백조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화자가 '너'로 인해 느끼는 슬픔은 '너'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자가 유리를 통해 '너'를 볼 수 있는 것이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확인]

- ① 유리는 '너'가 있는 공간과 화자가 있는 공간을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유리에 어린 입김을 통해 화자와 '너'와의 만남을 매개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
- ② 화자가 '너'와 접촉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유리가 공간을 단절시키는 차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④ 화자는 죽어서 다른 공간에 있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없음에 외로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유리를 통해 '너'를 볼 수 있어서 황홀한 감정도 느낀다.
- ⑤ 화자가 '너'와의 소통을 위해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유리를 통해 '너'를 잘 보기 위해서이다. 이는 유리의 투명성으로 가능한 것이다.

3 시구의 의미 파악

답 ③

㉞는 눈물이 고인 화자의 모습을 심표를 통해 호흡을 조절하며 표현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시적 상황의 변화나 화자의 정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확인]

- ① 입김 자국이 창에 어렸다 사라지는 모습을 날개를 파닥거리는 새의 몸짓에 비유하고 있다.
- ② 입김을 불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너'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 ④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외롭고 황홀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너'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유리를 통해 '너'를 만날 수 있는 황홀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역설적 표현이다.
- ⑤ 화자는 '너'를 '산새'에 비유하고 있다. 새는 작고 연약한 존재로, 이를 통해 떠나간 '너'로 인한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작품 옆에 읽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몽악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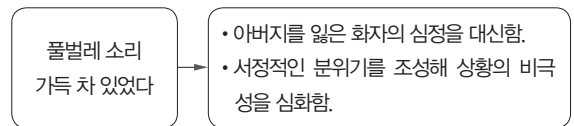
작품 해제

이 시는 이국땅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떠나 힘들게 생활한 유랑민들의 고된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1연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조는 담담하지만 '우리 집도 아니고 / 일가 집도 아닌 집 /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점층법을 사용해 객지에서 임종을 맞이한 아버지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2연에서는 아버지의 고단한 삶이 드러난다. '아무울만'이나 '니코리스크'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거쳐 간 러시아 지역이다. 그리고 3연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묘사하여 오히려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특히 1연과 4연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픈 심정을 풀벌레 소리를 통해 서정적으로 표현하여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생계를 위해 타지로 떠돌아다닌 수많은 유랑민들의 비극적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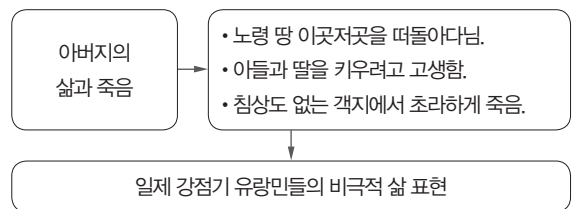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일제 강점기 유랑민들의 비애

시구의 역할



시인의 의도



1 죽음 2 ③

1 이 시의 화자는 이국땅에서 초라한 임종을 맞은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한 어조와 절제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창 1」에서도 어린 자식의 죽음을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2 이 시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① 4연의 '다야'에서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다. ② 1연에서 '우리 집도 아니고 / 일가 집도 아닌 집 /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를 통해 이국땅에서 임종을 맞이한 아버지의 처지를 점층적 구조로 드러냄으로써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④ 1연과 4연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 가득 차 있었다'가 반복되고 있다. ⑤ 1연과 4연의 '풀벌레 소리'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청각적 이미지로,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04 모란이 피기까지는 | 김영랑 24~27쪽

독해 포인트

이 시는 모란이 피고 지는 순환 구조에 기다림과 서러움의 정서를 담은 '모란'으로 상징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소재의 의미와 화자의 정서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에서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모란'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화자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이자 아름다움이다. 시의 1, 2행에서 화자는 모란이 필 때까지 자신의 봄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모란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3, 4행에서는 모란이 질 때의 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5행부터 화자는 어느 무더운 날 모란이 지고 난 뒤 느꼈던 슬픔과 상실감을 이야기한다. 그에게 있어서 모란은 삶의 전부이기에 모란이 지는 것은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11, 12행에서는 1, 2행을 유사하게 반복하면서 다시 모란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수미 상관의 구조는 화자의 정서와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감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부사어, 역설법이나 도치법 같은 표현 방법 등을 사용하여 시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주제

모란의 개화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모란이 피기까지는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소망,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음.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는 계절,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기 ▶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과 화자의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봄의 막바지-봄의 상실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과장법
 모란이 지면서 보람을 잃어버림.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3~10행: 모란이 지고 난 뒤의
 다시 모란이 피기까지의 시간, 과장된 표현으로 서운함을 표현함. 슬픔과 상실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화자의 숙명적 기다림 역설법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반복-수미 상관 ▶11~12행: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림.

문제	25쪽
1 ① 2 ④ 3 ③	
원리로 작품 독해	26쪽
1 모란, 봄, 보람	
2 기다림	
3 상실감, 역설법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①

'찬란한 슬픔의 봄'에 '찬란한'과 '슬픔'이 의미상 모순 관계에 있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모란이 질 때의 슬픔을 알면서도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에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복합적인 마음을 '나는 아직 ~ 슬픔의 봄을'에서 어순을 도치하여 표현함으로써 모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확인]

- ② 이 시에서 '우웁네다'에 현재형 시제가 사용되었지만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이 시에서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경어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봄을 맞은 기쁨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다.
- ⑤ 과장된 표현은 나타나 있지만 자연으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2 사상 전개 과정 파악

답 ④

[A]에서 화자는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화자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는 [A]의 감정이 지속되는 부분이지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는 '봄을 기다림-봄의 상실(모란의 개화와 낙화)-봄을 기다림'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 ② '모란'이라는 시어를 반복하면서 시적인 긴밀성을 유지하고 있다.
- ③ 이 시는 1~2행의 내용이 11~12행에서 변형되어 반복되고 있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수미 상관식 구성은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 ⑤ [B]에서 화자는 모란이 지고 난 뒤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C]에서 그 슬픔과 절망감이 구체화되고 있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9행의 '다'는 모란이 저 버린 것에 대한 화자의 무상함을 표현한 부사어이다. 화자는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모란이 피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확인]

- ① '똑똑'은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
- ②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긴다는 표현을 통해 모란이 진 후에 느끼는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하냥' 운다고 표현함으로써 모란이 다 떨어져 버려 모란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아직' 기다린다고 표현함으로써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 해제

이 시는 펼쳐이는 깃발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노래한 작품이다. 바람에 펼쳐이는 깃발은 이상향을 동경하는 주체이고, 깃발이 바라보고 있는 '푸른 해원'은 이상향, 깃발이 묶여 있는 '이념의 풋대'는 현실적·태생적 제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시는 '깃발'을 다양하게 비유하였는데, '깃발'의 보조 관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바람에 힘차게 펼쳐이는 깃발을 비유한 것으로, 이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애수',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은 깃대에 매달려 있는 깃발을 비유한 것으로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한 좌절과 슬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역설법, 도치법, 영탄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

'깃발'의 보조 관념의 의미

이상향에 대한 동경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
태생적 한계로 인한 좌절과 슬픔	애수,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다양한 표현 방법

역설법	소리 없는 아우성
은유법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직유법	•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도치법	아아 누구던가. ~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영탄법	아아 누구던가.

1 역설적 2 이상향, 슬픔

- 이 시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지만 다시 모란이 지는 데서 느끼게 될 슬픔이 한 데 엮인 화자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이 시는 깃발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표현하고 있다.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바람에 힘차게 펼쳐이는 깃발의 모습을 통해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고, '애수,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은 깃대에 매달린 깃발의 모습을 통해서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한 좌절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독해 포인트

이 시는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고 여승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우리 민족의 삶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의 화자는 관찰자의 위치에서 여승이 된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전달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여승이 된 여인을 보면서 옛날같이 늙고 쓸쓸한 표정에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2연에서 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옥수수를 팔며 차게 울던 여인과의 첫 만남을 회상한다. 3연에는 더욱 깊은 사연이 이어진다. 기다리던 여인의 남편은 오지 않고 어린 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그리고 4연에는 한 많은 속세를 떠나기 위해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되는 여인의 모습이 제시된다. 여기에서 산평의 울음으로 표현되는 서러운 울음은 여인의 울음이면서 여인이 여승이 된 날의 슬픔을 드러낸다.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인은 가족 해체를 겪으며 고단한 삶을 살던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과 닮았다. 결국 이 시에서 여인의 것으로 표현된 한(恨)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민족 전체의 한으로 확장된다.

주제

여승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시적 대상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참취나물의 냄새(후각적 심상)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모습(시각적 심상)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1연: 여승이 된 여인과 '나'의 만남
여승에게 연민을 느낀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출가 전의 여승 여인의 고달픈 삶 형상(청각적 촉각화)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따라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2연: 여인과의 첫 만남

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딸의 죽음(죽음을 미화하여 표현해 비극성을 심화함.) ▶3연: 여인의 비극적인 삶

산(山)뺨도 설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감정 이입 여인이 여승이 된 날
산(山)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 여인이 삭발을 하고 출가함. ① 눈물방울처럼 ② 눈물방울과 함께
떨어진 날이 있었다. ▶4연: 삭발을 하고 여승이 된 여인

문제 29쪽

1 ⑤ 2 ② 3 ①

원리로 작품 독해 30쪽

- 1 여승, 서러움, 죽음
- 2 현재, 역순행적
- 3 이입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처럼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말인데, 이 시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확인]

- ①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삭발하고 여승이 된 날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쏟아진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섞별같이 나이가’ 등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③ 시의 마지막 연에서 ‘산평’이 설게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여승이 되던 날의 여인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구성 방식이다. 이 시는 현재에서 과거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 파악 답 ②

‘나’는 1연에서 여승이 된 여인의 현재 모습을, 2~3연에서 여인의 과거 모습을, 4연에서 여승이 되던 날의 여인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여승의 삶을 전달하면서 서러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자신과 여승의 삶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나’는 여승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서러워졌다’라고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여승의 불행한 삶에 슬픔을 느끼고는 있지만 여승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 ⑤ ‘나’는 여승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나’가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산 이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확인]

- ② 돈을 벌기 위해 남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것을 의미한다.
- ③ 어린 딸이 돌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딸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다.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다.
- ④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은 여인이 속세를 떠나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날이다. 한 많은 속세를 떠나려는 여인의 안타까운 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 ⑤ 이 시의 1연에서는 화자와 여승의 만남이라는 현재의 상황이 제시되었고, 2연부터 4연까지는 여인이 여승이 된 내력, 즉 과거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다른 작품 **승무** | 조지훈 읽어 읽기

작품 해제

이 시는 승무를 통해서 세속적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여승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연부터 3연까지는 승무를 추기 전 여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여승의 고운 자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승려가 된 여인의 말 못할 사연에서 느끼는 서러움을 ‘고와서 서러워라’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드러낸다. 4연에서는 승무를 추는 무대의 배경이 제시되는데 쓸쓸함이 느껴진다. 5연부터는 승무를 추는 동작을 주로 동적인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별을 보며 눈물 짓는 모습에서 세속적 번뇌가 종교적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무는 다시 이어지고 수미 상관의 방법으로 시를 종결하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의도적으로 변형한 고풍스러운 시어와 춤 동작에 대한 섬세한 묘사, 서정적인 배경 등이 어우러져 고전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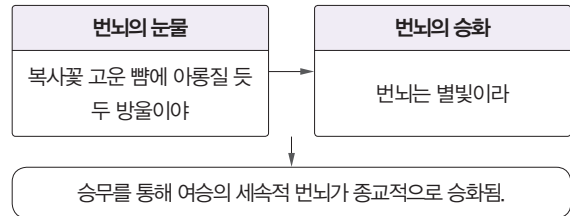
주제

승무를 통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시상의 전개

1~3연	4연	5~8연	9연
여승의 외양 (시선의 이동)	무대의 배경 (정적 이미지)	승무의 춤사위 (동적 이미지)	시상의 마무리 (여운과 지속)

‘승무’의 기능



1 여승, 여승 2 ⑤

1 이 시는 승무를 통해 세속적인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이겨 내려는 여승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승」은 가난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여승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2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빈 대’이다. 공간의 이동 없이 춤을 추는 순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① ‘하이얀’, ‘감추오고’, ‘모두오고’, ‘감기우고’ 등에서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다. ② 5연부터 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춤추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③ ‘하이얀 고깔’, ‘파르라니 깎은 머리’ 등에서 색채어가 사용되었다. ④ 1연이 마지막 행에서 반복되고 있다.

06 쉽게 씌어진 시 | 윤동주

32~35쪽

독해 포인트

이 시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의 태도와 시어의 의미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창작한 작품으로, 현재 전해지는 윤동주의 시 중에서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윤동주 시에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움의 정서’, ‘성찰의 자세’, ‘의지적 태도’ 및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갈등과 화해’ 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시의 배경인 ‘밤’과 ‘육첩방’은 암울한 시대 현실을 의미하면서 화자에게 있어 성찰의 시간과 공간이 되기도 한다. 시인인 화자는 어두운 현실에서도 쉽게 시를 쓰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암울한 조국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화자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반드시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여기에서 화자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침’은 희망의 시간으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국의 광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손을 마주 잡는 ‘최초의 악수’는 두 자아의 화해와 미래에 대한 다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암울한 현실 속에서의 고뇌와 자기 성찰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암울한 현실, 성찰의 시간(시간적 배경)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화자를 구속하는 시대 상황, 성찰의 공간(공간적 배경)

▶1연: 암담한 현실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화자의 신분 ① - 시인 하늘이 내린 피할 수 없는 명령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2연: 슬픈 현실에 대한 인식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을 후각적으로 표현함
보내 주신 학비 봉투(學費封套)를 받아
화자의 신분 ② - 유학생

대학(大學)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教授)의 강의 들으러 간다.
현실과 동떨어진 삶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감

나는 무얼 바라

현실적 자아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澗)하는 것일까?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3~6연: 무기력한 삶에 대한 회의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 자아와 시대 현실과의 괴리감 → 자기 성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성찰의 결과 → 부끄러움 ▶7연: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연의 내용을 변주하여 반복함.
▶8연: 내면의 각성과 현실의 재인식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희망 부정적 현실 현실 극복의 의지가 드러남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긍정적인 미래(조국의 광복) 성찰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자아

현실적 자아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상적 자아 두 자아의 화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9~10연: 현실 극복의 의지와 두 자아의 화해

문제

33쪽

1 ④ 2 ② 3 ②

원리로 작품 독해

34쪽

- 1 성찰, 침전, 부끄러움
- 2 의지
- 3 화해, 악수
- 4 아침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④

이 시는 1연의 ‘나라’, 9연의 ‘나’, 10연의 ‘악수’ 등과 같이 명사로 시형을 종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형 종결은 시적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다(ㄴ). 그리고 ‘밤비’,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 ‘등불’, ‘아침’은 희망과 긍정적인 미래를 의미한다. 이처럼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ㄷ).

[오답 확인]

- ㄱ. 이 시에서는 담담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ㄴ. 이 시는 자아 성찰의 과정과 그 결과가 시상 전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시선의 이동을 통한 풍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홀로 침전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확인]

- ① 시인이 일제 강점기 때 유학하며 쓴 시라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에서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④ 화자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시대처럼 올 아침’에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화해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3 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

답 ②

‘시인’을 ‘슬픈 천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밤비’는 시간적 배경인 ‘밤’을 드러내면서 ‘비’가 주는 이미지와 결합해 암담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학비 봉투’를 통해 화자가 학생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화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④ ‘늙은 교수’는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지식인을 의미하며,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은 화자가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 ⑤ ‘창밖’은 현실적인 공간으로, 창밖에 비가 오는 어두운 배경은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등불’의 의미와 기능

등불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앓는다. → ‘노신’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 ‘노신’의 신념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 화자에게 의지를 다지게 하는 존재

1 ⑤ 2 매개체, 신념

- 1 이 시의 화자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문제와 시인으로서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하지만 「쉽게 씌어진 시」의 화자가 신념과 생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①은 ‘노신’을 떠올리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화자는 자신이 켜 등불을 보면서 ‘노신’의 삶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②은 ‘노신’의 강한 신념을 의미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노신’이 홀로 지키던 신념과 의지이다.

다른 작품 **노신** | 김광규

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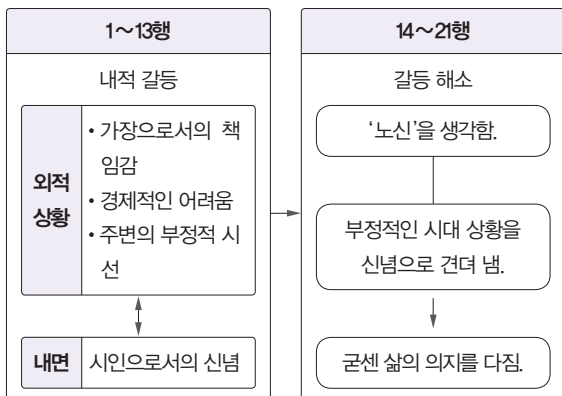
작품 해제

이 시는 시인인 화자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시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다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시의 전반부에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제시된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신에 대한 주변의 비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외적 상황은 화자로 하여금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시의 후반부에는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화자는 등불을 보며 ‘노신’(중국의 작가 루쉰(1881~1936)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을 떠올린다. 모두가 고통스럽던 시절에 홀로 신념을 지키며 살았던 ‘노신’을 생각하며 자신과 ‘노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즉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 상황 때문에 크게 상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이겨낸 후, 자신도 ‘노신’처럼 어려움을 이겨 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실존 인물인 ‘노신’을 내세워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며 의지를 다지는 작품이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 의지

시상의 전개



독해 포인트

이 시는 힘겹게 맞이한 광복 이후에도 지속되는 혼란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진정한 민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제 강점기의 삶을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데, 1연부터 3연까지는 광복을 간절히 소망하던 일제 강점기, 4연과 5연의 1~2행은 광복을 맞이한 현재, 5연의 3~4행은 앞으로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다. 화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망했던 광복이 왔음에도 '아직도 차'라고 느끼는데, 이는 광복 이후의 세상이 아직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방이 되었어도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지만, 화자는 언젠가 '봄'이 올 것이며 그때에는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시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꽃덤불'은 화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진 세상'을 의미한다. 광복을 맞이했으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당시의 현실을 걱정하는 시인의 고뇌가 담긴 작품이다.

주제

해방된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

○ : 긍정적 이미지 □ : 부정적 이미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광명, 빛 → 조국의 광복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부정적 상황(일제 강점기) ▶ 1연: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야기하는 광복 암담한 현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국권을 상실한 조국

오랫동안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광복

반복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 광복에 대한 간절 강조

▶ 2연: 조국 광복에 대한 소망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일제의 강압으로 변절한 사람

일제의 강압으로 전향한 사람 ▶ 3연: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 현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일제 강점기(1910~1945)

일제 강점기가 끝남, 광복을 맞이함. ▶ 4연: 조국의 광복

다시 우러러보는 이 희늘에

광복을 맞이한 조국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광복 이후의 혼란한 상황(민족 분열, 신탁 통치 등) - 부정적 상황이 지속됨.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진정한 광복과 화합의 시기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5연: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화합에 대한 소망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진 세상

문제

37쪽

1 ⑤ 2 ⑤ 3 ③

원리로 작품 독해

38쪽

1 벗, 꽃덤불

2 태양, 겨울밤, 꽃덤불, 시간

3 광복, 조국, 화합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1연의 '태양을 등진 곳'과 2연의 '밤', '헐어진 성터', 그리고 5연의 '겨울밤' 등은 부정적인 현실, 즉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는 화자가 기대하는 '꽃덤불'이 우거진 세계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이 시는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시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이 시에서는 '태양', '달', '꽃덤불' 등의 자연물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인간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이 시에서 자연물은 시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2 시구의 의미 파악

답 ⑤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에서 '겨울밤', '차거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아직도'는 이러한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화자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항상'은 '거룩한 이야기'를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는 말로,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흡사'는 '달빛'을 '비 오듯'에 연결 지어 부정적 의미의 시어인 '밤'을 부각하는 말로,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는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영영'은 '잃어버린 벗'과 만날 수 없는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는 말로, 화자의 죄책감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드디어'는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이 비로소 지나갔음을,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간절히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몸'과 '맘'을 팔아 버린 벗들은 일제의 강압으로 변절하거나 전향한 사람들로, 자신의 사랑을 지켜 내지 못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확인]

- ①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광복에 대한 이야기로,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상황인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한다는 것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② '헐어진 성터'는 사랑하는 대상이 훼손된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곳을 헤매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④, ⑤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안기는 것이 화자가 간절히 원하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오는 봄’에 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즉 아직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작품
읽어 읽기 **청산도** | 박두진

39쪽

작품 해제

이 시는 ‘푸른 산’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푸른 산’에서 ‘불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며 ‘밝은 하늘 빛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화자의 의지는 마지막 연의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에서 잘 드러난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 ‘달밤이나 새벽녘’은 광복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불이 고운 사람’은 화자가 바라는 진정한 화합과 평화의 세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산문시의 형식에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음성 상징어 등을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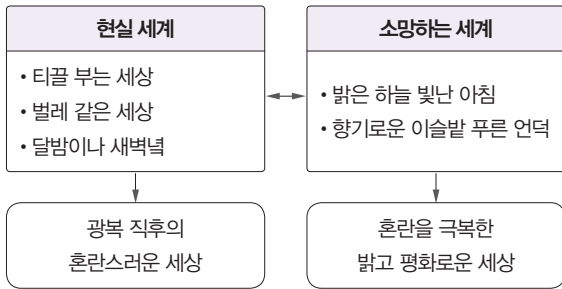
주제

밝고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소망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구	화자의 정서와 태도
나는 가슴이 울어라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슬픔
난 너만 그리노라	소망하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화자가 소망하는 세상



1 부정적 2 ⑤

- 1 이 시에서 ‘달밤’, ‘새벽녘’은 화자가 기다리는 ‘아침’과 대비되어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꽃덤불」의 ‘겨울밤’도 화자가 기다리는 ‘봄’과 대비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 2 이 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불이 고운 사람’을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 역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08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박재삼

40~43쪽

독해 포인트

이 시는 저녁노을이 물든 가을 강을 바라보면서 떠올린 인생에 대한 상념을 전통적 한의 정서로 표현한 작품이다. 자연 현상을 통해 비유적으로 형상화된 인생의 과정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가을’, ‘해 질 녘’ 등의 시간적 배경 및 ‘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생에 대한 상념을 서러움의 정서와 애상적 정서로 그려낸 작품이다. 시의 시작부터 화자는 서러운 감정에 잠겨 있다. 친구의 사랑 이야기가 서러움을 상기시키며, 산을 오르며 맞이하는 가을 햇별은 낭만적인 느낌보다는 쓸쓸한 감정을 유발한다. 등성이에 이르러 화자의 눈에 띄는 것은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과 해 질 녘 노을진 강으로, 이 둘은 서러움의 정서를 고조시킨다. 이어 화자는 인생의 유한성과 허무함을 깨닫는다. 물소리를 내며 흐르던 산골짜기 계곡의 물이 강물이 되어 하류로 흘러가면서 크기가 커지는 대신 소리가 찾아들고, 마침내 바다에 다 와 가서는 소리마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청년기를 지나 좌절과 아픔으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중년기를 거쳐 마침내 그 슬픔을 안으로 삭이게 됨을 깨달은 것이다. 삶의 유한성과 숙명적인 슬픔을 안으로 삭이며 원숙해 가는 인간 삶의 비애에 대한 깨달음을 자연 현상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삶의 유한성과 한(恨)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안정되지 못한 마음 상태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서러움을 느끼는 원인
가을 햇별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서러움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1연: 등성이에 이르러 느끼는 서러움
■: 판소리나 민요조의 종결 어미
- 예스러운 느낌 부각
죽음의 이미지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소멸의 이미지
해 질 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 사라져 가는 모든 것들에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 대한 서러움
▶2연: 해 질 녘 풍경에서 느끼는 애상감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너보다도 나보다도 가을 강은 훨씬 더 서럽다는 인식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첫사랑에 설레는 청년 시절이 지나감.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사랑의 좌절로 슬픈 중년 시절이 지나감.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생을 마감하는 시절에 다 와 감. - 노년 시절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울음을 삭이고 슬픔을 내면화한 한(恨) ▶3연: 강의 하류를 보며 느끼는 삶의 유한성

1 ① 2 ③ 3 ③

원리로 작품 독해

- 1 가을 강, 서러움, 유한성
- 2 강물, 슬픔
- 3 바다, 소멸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①

이 시는 인생의 과정을 보편적인 자연 현상과 연결하여 인간의 삶의 유한성과 삶의 희로애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② 이 시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이 시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이 시에 사용된 '제삿날', '큰집' 등은 전통적인 소재에 가깝다.
- ⑤ 이 시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보기>로 볼 때 '흐름의 이미지'는 주로 '강물'과 같은 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설움의 보편성 역시 '강물'과 인간 삶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1연에서 화자의 서러운 감정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1연에서 보인 '눈물'이 2연에서는 '울음'으로 이어짐을 통해 화자의 슬픔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산골 물소리'가 강물의 시작을, '소리 죽은 가을 강'이 '바다에 다와가는' 강물의 하류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는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골 물소리'가 '첫사랑'과 대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물의 흐름을 통해 인생의 과정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강이 바다에 다와가는 것은 강의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유한한 삶의 허무함을 표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 시의 심상 이해

답 ③

㉔의 '울음이 타는'에는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청각의 시각화라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에는 뚜렷한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큰집에 모이는 불빛'에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④ '산골 물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⑤ '사랑 끝에 생긴 울음'에서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작품 해제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원리를 '사랑'과 '이별'이라는 인간의 삶과 대응시켜 이별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 시의 시구는 전체적으로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꽃이 피는 것은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며, 꽃이 지는 것은 이별을 의미한다. 이때 꽃이 지는 것은 단순한 소멸이나 이별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으로 이어진다. 꽃이 떨어져야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이별의 아픔을 극복해야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다.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별의 아픔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성숙에 대한 촉복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역설적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자연 현상과 인간사의 대응

자연 현상	인간사
꽃이 피.(개화)	사랑
꽃이 짐.(낙화)	이별
열매를 맺음.	영혼의 성숙

다양한 표현 방법

역설법	결별이 이룩하는 촉복
의인법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직유법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1 자연 현상 2 ③

- 1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 이별의 아픔을 극복한 인간의 정신적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산골의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하였다. 강물의 흐름을 통해 삶의 유한성으로 인한 서러움과 한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 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촉복'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이별의 아픔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별이 영혼의 성숙이라는 촉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독해 포인트

이 시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조와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에 나타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과 그에 담긴 심리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작품이다. 화자는 고궁을 나오고 있다. 그가 고궁에서 본 것은 아름다운 정원이나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왕궁의 음탕함이다. 그러면서 그 음탕함에 분노하지 못하는 자신을 되돌아본다. 왕궁의 음탕함은 권력의 부패를 의미한다. 그 외에도 언론의 탄압이나 무리한 월남 파병 등 화자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많다. 하지만 화자는 그런 일에는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주변의 사소한 대상의 잘못에만 분노하는 자신을 옹졸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은 시의 마지막에서 절정을 이룬다. '모래', '바람', '먼지', '풀'과 같은 사소한 대상에게 자신의 작음을 질문하면서 그들보다 작고 옹졸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조적인 자기반성은 독자들에게 화자를 책망하기에 앞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주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 자신에 대한 비판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부패한 권력,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사소한 일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속된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함.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1연: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나'

「한번 정정당당하게
『』: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모습
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사소한 일로 힘없는 자들에게만 분노함.
찾아오는 야경꾼만 증오하고 있는가.
▶2연: 중요한 일에 행동하지 못하는 '나'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옹졸한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습관처럼 몸에 배어 버림.
가로놓여 있다.

이름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일화 제시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십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간혹사를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사소한 일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3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지속된 옹졸한 삶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과
사소한 일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르잖아.

개 짖는 소리와
어린이의 투정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사소한 일상도 고통으로 느껴지는 왜소한 삶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지발
▶4연: 무기력하고 왜소한 자신에 대한 인식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비판과 저항의 중심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불의의 부패에 대응하지 못한
의도적 행같이 (사적 긴장감 유지)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취함. ▶5연: 불의에 당당하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 힘 있는 자
↑
땡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 힘없는 자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 ▶6연: 옹졸하게 반항하는 현재의 삶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야 먼지야 풀야 난 얼마큼 작으냐.
지조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옹졸함을 반성함.
정말 얼마큼 작으냐..... ▶7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자조
: 시구의 반복과 변주

문제 45쪽

1 ② 2 ① 3 ①

원리로 작품 독해 46쪽

- 1 분개, 옹졸, 반성
- 2 조그만, 작음
- 3 사소, 힘 있는 자, 반성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②

①에 제시된 과거의 경험은 화자의 옹졸하고 소시민적인 삶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정서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확인]

- ① 조그만 일에만 분노하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다.
- ③ 문장의 중간을 끊어 행갈이를 하는 방법으로 시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 ④ '이발쟁이'와 '땡 주인'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힘 있는 자에게는 침묵하고 힘없는 자에게만 분노하는 소시민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얼마큼 작으냐'를 반복하고 변주하면서 자신의 옹졸함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

2 시구의 의미 파악

답 ①

〈보기〉에서 시인은 비속어 사용으로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돼지 같은 주인년’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설령탕집 주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 자신의 속된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② 마땅히 이행해야 할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소시민성에 대한 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전통이 유구하다는 것은 자신의 소시민성과 비겁함이 예전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 ④ 화자는 자신이 절정에서 조금은 옆에 서 있는 것을 비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비판과 저항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이 시에서 ‘나’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옹졸함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다.

3 시의 맥락 이해

답 ①

화자는 현재 자신이 반항하고 있는 것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의미한다.

[오답 확인]

- ②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은 사소한 일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타적, 희생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다.
- ③ 시적 상황으로 보아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은 가치 있지 않은 사소한 일이다.
- ④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이 소극적이고 비겁한 일은 맞지만 이를 현실에 대한 굴복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 ⑤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은 사소한 일로, 이는 현실의 불의를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비된다.

다른 작품
읽어 읽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김광규

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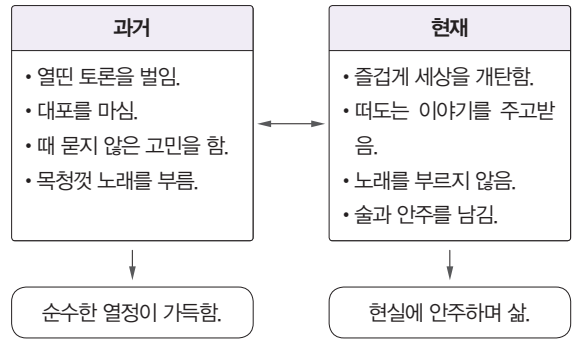
작품 해제

이 시는 중년이 된 화자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젊은 시절과 다르게 변해 버린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작품이다. 시는 과거의 이야기인 전반부와 현재의 이야기인 후반부가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전개된다. 전반부에는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사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던 시절의 모습이 나열된다. 그 시절의 ‘우리’는 미래의 자신들이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 위해서 살리라.’는 기대를 하며 살았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뒤에 만난 ‘우리’는 과거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지만 사회에 대한 고민과 비판 의식은 상실했고, 소비적이며 향락적인 삶과 개인주의적인 삶에 익숙한 소시민이 되어 버린 것이다. 화자는 모든 것이 변해 버린 상황에서 예전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보면서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는 중년이 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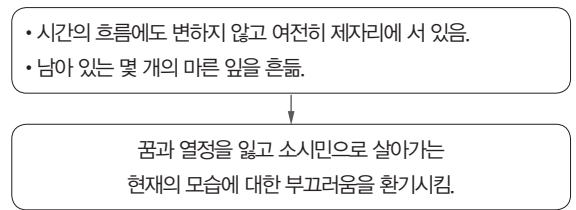
주제

소시민적 삶에 대한 부끄러움

과거와 현재의 대비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역할



1 소시민 2 ④

1 이 시는 젊은 날의 순수했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을 사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담고 있으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분노해야 할 권력자들의 부조리에는 침묵하면서 힘없는 자들에게만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비겁한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2 ㉠은 순수한 열정이 남아 있던 과거의 ‘우리’이고, ㉡은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소시민이 된 현재의 ‘우리’이다. ㉢은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는 사회적인 비판 의식을 상실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세속적 일상을 사는 모습이다.

독해 포인트

이 시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과 명령형을 사용한 의지적 어조로 부정적인 것은 물러가고 순수한 것만이 남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작가의 창작 의도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명령형 어조 등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렬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시의 1연과 2연에서 화자는 부패한 권력과 부정적 세력에 저항하며 민중의 힘을 보여 주었던 두 역사적 사건, 4·19 혁명과 동학 농민 운동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온 것은 민중들의 순수한 정신과 의지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순수성은 퇴색하고 '꺾데기'로 표현된 각종 위선과 허위, 부패 등이 만연하는 부정적 상황이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쇠붙이'로 표현된 군사적 폭력이나 외세의 압력 등을 물리치고 '향긋러운 흙 가슴'으로 표현된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한 순수한 화합의 시대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주제

분단과 대립을 극복한 순수한 화합의 시대에 대한 소망

허위, 가식, 외세

꺾데기는 가라.

○: 순수한 정신

4월도 알맹이만 남고

□: 허위, 불의 등 부정적인 것

순수, 진실, 민족 정신

꺾데기는 가라.

▶1연: 4월 혁명의 순수한 정신 강조

명령형을 사용하여 강한 의지를 표현함.

꺾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외세에 저항한 동학 혁명의 순수한 정신

꺾데기는 가라.

▶2연: 동학 농민 운동의 순수한 정신 강조

그리하여, 다시

강조

꺾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한반도 허위와 가식이 없는 순수한 상태

아사달 아사녀가

순수한 우리 민족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이념의 대립이 없는 화해와 화합의 장소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화합, 통일

▶3연: 민족의 순수성 회복과 통일에 대한 소망

꺾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

향긋러운 흙 가슴만 남고

순수한 정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시적 허용 부정적 세력, 무력, 외세

▶4연: 군사적 대립을 극복한 순수한 화합의 시대 소망

문제

49쪽

1 ② 2 ④ 3 ②

원리로 작품 독해

50쪽

1 알맹이, 꺾데기, 초례청, 흙 가슴, 화합

2 순수, 부정적

3 쇠붙이, 향긋러운 흙 가슴

4 의지, 음악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②

이 시는 ' ~는 가라', ' ~만 남고' 등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 운율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는 명령형을 사용하여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로, 대상과의 친밀감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이 시에는 당연한 내용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이 시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이 시에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2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

답 ④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남북한을 대표하는 한라산과 백두산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라는 공간적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시간적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에서는 '가라'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아우성'은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③ '그리하여, 다시'는 '꺾데기는 가라.'를 반복하기 위한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⑤ '모든'은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시적 허용으로, '모든'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신동엽 시인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아사달과 아사녀로 표현된 순수한 우리 민족이 만나는 '중립의 초례청'은 남과 북이 이념을 초월하여 화해를 모색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꺾데기'는 화자가 물리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나 부정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에서 '맞절'을 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흙 가슴'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순수한 정신으로,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쇠붙이'는 통일을 가로막는 존재로, 분단의 원인이 되는 무력, 외세 등 부정적인 대상을 의미한다.

작품 해제

이 시는 명령형 문장과 단정적 어조, 상징적 소재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표현한 작품이다. 1행에서 화자는 '오라, 이 강변으로,'라고 명령조로 말을 한다. 도치법을 사용하여 '오라'를 앞에 내세워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행과 3행에서 화자의 의도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화자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손 잡을 그 날', 즉 통일의 날이다. 4행부터 7행까지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분단의 극복, 아픔의 치유, 고통의 회복 등이 통일을 해야 할 이유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오늘도 여기 서서 너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면서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일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직설적으로 소망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주제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는 표현

명령형, 도치법	오라, 이 강변으로,
단정적 어조	나오리라, 되리라
부사어	마침내, 오늘도

시어의 상징성

끊어진 허리	분단된 조국
동강난 세월	분단의 시간
주름, 백발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
꽃	통일의 아름다운 가치, 보람

1 한반도 2 ④

- 이 시의 '이 땅'과 「껍데기는 가라」의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우리 국토' 또는 '한반도'를 의미한다.
- 이 시는 명령형 문장과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통일에 대한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마침내', '오늘도'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였다. ② '오라, 이 강변으로,'에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③ '~린다', '~리라'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였다. ⑤ '나오리라', '되리라'라는 단정적 어조로 믿음을 표현하였다.

저문 강에 sap을 씻고 | 정희성

독해 포인트

이 시는 인간의 삶을 흐르는 강물의 이미지와 결합시켜 산업화 사회를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의 삶과 비애를 담담한 어조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현실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19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시의 화자는 중년의 노동자로, 고된 일을 마치고 강변에 나와서 sap을 씻으며 삶의 허무함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평생을 노동자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때가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하루가 저물어 가는 때인 시간적 배경과 생애가 저물어 가는 노동자의 삶이 대응을 이루며 비애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에는 '우리가 저와 같아서'가 두 번 나온다. 2행에서의 '저'는 흐르는 강물이다. 이는 노동자의 힘겨운 삶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물을 '셋강 바닥 썩은 물'로 표현하면서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13행에서의 '저'는 흐르는 강물 또는 반복해서 떠오르는 달이다. 하루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때가 되면 달은 어김없이 떠오른다. 이처럼 '달'은 화자의 반복적인 일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상의 끝은 풍요롭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데에서 시의 비극성은 고조된다. 가난한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노동자의 삶을 잘 표현한 시이다.

주제

산업화 사회를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노동자의 힘겨운 삶도 물처럼 흘러감.(설의법)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강물
강변에 나가 sap을 씻으며
공간적 배경 화자의 신분 - 노동자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1~4행: 강물에 sap을 씻으며 느끼는 삶의 비애
자신의 슬픔을 씻어 버림(노동자의 고단한 삶이 드러남.)
일이 끝나 저물어

시간적 배경(하강적 이미지)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화자의 슬픔처럼 깊어지는 강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체념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남.
나는 돌아갈 뿐이다 ▶5~8행: 삶에 대한 체념과 무기력함

sap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노동자의 삶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노동을 하며 나이가 들(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
셋강 바닥 썩은 물에
① 산업화로 오염된 환경 ② 희망이 없는 노동자의 삶
달이 뜨는구나 ▶9~12행: 노동으로 점철된 삶에 대한 비애
반복되는 삶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강물 또는 반복해서 뜨는 달
흐르는 물에 sap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13~16행: 암담한 현실에 대한 체념
가난한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남.

문제	53쪽
1 ③ 2 ⑤ 3 ③	
원리로 작품 독해	54쪽
1 노동자, 삽, 담배, 썩은 물	
2 강물, 체념	
3 슬픔, 노동자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③

‘저물어’, ‘저물고, 저물어서’에서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노동자의 고단한 삶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시에서 ‘그러나’ 또는 ‘그런데’ 등의 접속어를 사용해서 시상의 전환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이 시에는 접속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이 시의 화자는 가난한 노동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이 시에서는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보여 주는 장면이 일관되게 제시된다. 대조적인 장면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 ⑤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며, 인물의 상황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다시 어둠이 돌아가야 한다’는 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서 다음 날의 노동을 준비해야 하는 노동자의 고된 삶을 표현한 것으로, 고달픈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 부분에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확인]

- ① ‘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신분이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화자는 1970년대 노동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에서 현실의 고단함을 털어 내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엿볼 수 있다.
- ③ 도시화, 산업화로 힘겹게 살아가는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꾸구려 앉아 담배나 피우는 것뿐이다. 이를 통해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④ ‘셋강’의 ‘물’이 썩어 있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구의 의미 파악

답 ③

㉠은 가난한 노동자의 지속되는 삶의 비애를 흐르는 강물에 빗댄 부분으로, 현실에서 소외된 존재들끼리의 동질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확인]

- ① ‘저’는 ‘흐르는 강물’을 의미한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에서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에는 ‘흐름’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② 13행에서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어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 ④ 의지와 상관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지형에 따라 흘러 움직이는 강물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 ⑤ 가난한 노동자인 화자의 처지를 흐르는 강물에 투영시켜 삶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다른 작품 읽어 읽기 **농무** | 신경림

55쪽

작품 해제

이 시는 ‘농무’를 통해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붕괴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시의 화자가 ‘우리’인 것은 이 시가 공동체의 삶을 담은 것임을 드러낸다. 이 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공연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텅 빈 ‘운동장’은 소외당하는 농촌의 현실을 상징한다. 공연을 마친 ‘우리’는 ‘소줏집’에서 술을 마시며 한과 울분을 토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팽과 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이동하지만 농무에 흥이 넘치는 이전의 장거리가 아니다. 관객은 세상 물정 모르는 조무래기와 처녀 애들뿐이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난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며 살고 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춤에 쏟아부은 채, ‘우리’는 ‘쇠전’을 거쳐 ‘도수장’에 이른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나고 농무는 더욱 격렬해진다. 여기에서 ‘신명’은 ‘한’의 다른 이름이다. 즉 ‘신명’은 농민들에게 쌓인 울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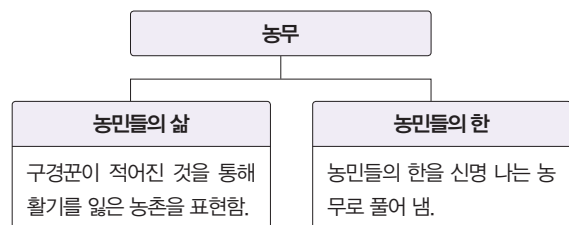
주제

농촌의 비극적인 현실과 농민들의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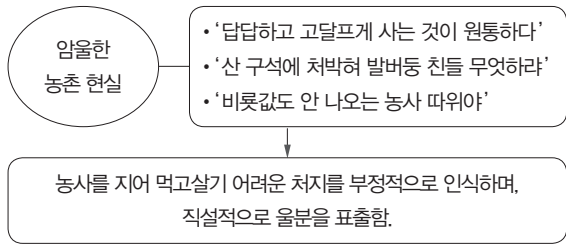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공간	특징
운동장	텅 빈 운동장 - 소외당하는 농촌의 현실을 상징함.
소줏집	답답함, 원통함을 표출하는 공간임.
장거리	조무래기와 처녀 애들뿐인 공간 - 젊은이들이 사라진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드러냄.
쇠전, 도수장	현실에 대한 울분이 고조되어 신명이 남. - 농무를 통한 한의 표출(역설적 상황)

‘농무’의 상징성



농촌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



1 소외 2 ①

- 1 이 시는 1960~1970년대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황폐화된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울분을 다룬 작품이고, 「저문 강에 삽을 씻고」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궁핍한 삶과 비애를 다룬 작품이다.
- 2 이 시는 운동장 → 소줏집 → 장거리 → 쇠전 → 도수장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독해 포인트

이 시는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억압적 분위기의 1970년대 사회와 그 삶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을 반어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반어적 어조의 효과와 시인이 비판하려는 사회 현실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반어적 어조로 1970년대 산업화로 이룬 외면적 성장 뒤에 숨겨진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시는 서울로 가는 상행 열차 안과 밖의 풍경을 바탕으로 '~ 다오'라는 완곡한 당부형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당부는 표현과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반어적 의미를 지닌다. 화자는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산업화가 가져온 환경 오염, 쾌락과 향락만을 좇는 소비적인 삶, 경제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물질적 가치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왜곡된 근대화와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비판한다. 그리고 화자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당부가 '너'와 '나'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비판 능력을 상실하고 개인적 안위만을 추구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주제

근대화의 부정적 현실과 이를 외면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 비판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열차(공간적 배경)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시의 청자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하는 존재 ▶1~4행: 성찰적 자아에 대한 자각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반어적 표현
낯선 얼굴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쾌락을 추구하며 무비판적으로 사는 모습 ①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존재
 황혼 속에 고향지는 원색의 지방들과
허울 좋은 근대화의 표면적 모습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쾌락을 추구하며 무비판적으로 사는 모습 ②
 고개를 끄덕여 다오 ▶5~11행: 생각 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비판
부정적 현실을 긍정하는 모습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근대화로 인한 환경 파괴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현실 비판의 소리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현실 비판의 소리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허울 좋은 근대화의 표면적 모습
 고속도로를 달러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근대화에 대한 비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물건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현실을 외면해 다오 ▶12~19행: 무분별한 근대화와 소비적인 삶에 대한 비판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김.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 나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리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가리는 이야기

물질적, 세속적 관심사

대상의 확장-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부각시킴

▶20~30행: 부정적인 현실에 침묵하는 태도 비판

문제 57쪽

1 ③ 2 ③ 3 ④

원리로 작품 독해 58쪽

1 상행 열차, 낯선, 침묵

2 부정적, 반어

3 비판, 소시민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③

이 시에서 '~ 나오' 형태로 문장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화자의 의도와는 모두 반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의 화자는 반어적 어조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는 서울로 향하는 상행 열차 안과 밖에 보이는 여러 가지 풍경을 제재로 하고 있다. 화상의 방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수미 상응은 시의 처음과 끝을 같거나 유사하게 반복하는 표현을 말한다. 이 시에는 수미 상응의 구조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이 시에서 화자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다.
- ⑤ 화자의 정서를 특정 사물에 투영하는 것을 감정 이입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지도 않았다.

2 사상 전개 과정 파악

답 ③

[C]에는 '풀벌레의 울음'같이 근대화로 사라지는 소리와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허울 좋은 근대화의 표면적 모습을 드러내는 소리가 대비되어 드러난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전환되지는 않는다.

[오답 확인]

- ① [A]에서는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상행 열차'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열차 안의 모습과 열차 밖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면서 이 시에서 비판하는 대상이다.
- ④ [D]에서는 '놀라울 때는',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이 어색할 때는'와 같이 가정하는 상황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현실에 침묵하며 물질적, 세속적 관심사에만 흥미를 보이는 현실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⑤ [E]에서는 시적 대상이 '너'에서 '너'와 '나'로 확장된다. 이는 시적 상황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맥주나 콜라'는 소비적인 소시민적 삶을 드러내는 소재로, 당시 사회의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일 뿐이다.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포괄하여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확인]

- ①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은 지붕 개량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이것이 허울 좋은 근대화의 표면적인 모습일 뿐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보기>를 통해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잃었음을 알 수 있는데, '흥미 있는 주간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보기>에서 근대화로 인해 농촌에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풀벌레의 울음'은 이와 같이 무분별한 근대화로 인한 부작용임을 알 수 있다.
- ⑤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며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다른 작품 **복어** | 최승호

59쪽

작품 해제

이 시는 밤에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복어를 통해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화자는 식료품 가게를 지나던 중 먼지 속에 진열된 복어들을 보고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화자는 복어를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복어는 억압적 군사 문화에서 획일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하고, 자갈처럼 딱딱해진 혀는 사회의 부조리에 침묵하는 현대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라붙은 눈과 뺨뺨한 지느러미는 생명력과 삶의 의지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막대기 같은 사람들은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처럼 1980년대의 억압적 사회 분위기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채 그저 살아가기만 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모습을 나열한 뒤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다. 복어들이 화자에게 외치는 '너도 복어지'라는 말을 통해 비판의 대상이 화자 자신으로 바뀌는 것이다. 결국 이 시는 무기력한 현대인에 대한 비판의 시이자, 비겁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인 것이다.

주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복어'에 나타난 현대인의 모습

복어	현대인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진 모습	생명력을 상실하고 획일화됨.
자갈처럼 죄다 딱딱한 혀	사회의 부조리에 침묵함.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함.
뺨뺨한 지느러미	삶의 의지를 상실함.

복어처럼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 비판

비판 대상

전반부	화자가 복어의 모습을 보며 현대인을 비판함.
후반부	복어가 화자에게 '너도 복어지'라고 말함.

- 비판의 주체였던 화자가 비판의 대상이 됨.
- 화자 또한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의 일부가 됨.

1 침묵 2 ⑤

- 이 시의 [가]에는 허가 굳어 버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다. 이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 즉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는 상태로 화자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행」의 [D]에서는 반어적 어조를 통해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 또한 부정적인 현실을 보고도 침묵하는 현대인을 비판하는 것이다.
- 이 시의 [나]에서는 비판의 주체와 대상이 뒤바뀌고 있다. 이전까지는 화자가 비판의 주체로서 복어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비판하였는데, [나]에서는 화자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자신 또한 복어와 다를 바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이는 화자 또한 자신이 비판한 현대인 중 하나라는 비판적 인식이 담긴 것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표현이다.

독해 포인트

이 시는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새벽을 배경으로, 고통을 이겨 내고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의 태도와 배경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고통을 견뎌 내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담은 새벽 편지를 쓰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인 '새벽'은 밤을 보내고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화자에게 있어 밤은 고통의 시간이다. 즉 '정령들'로 표현된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을 느끼고 사랑과 희망에 목말라하는 시간인 것이다. 그리고 '아침'은 화자가 소망하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시간이다. 이 시에서는 '자유로운 새소리'와 '따스한 햇살과 바람', '라일락 꽃향기'라는 감각적 표현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아침을 묘사하고 있다. 다가올 아름다운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인 '새벽'과 관련하여 화자는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생은 고통을 견뎌 내며 성숙해 가는 과정이며, 고통을 이겨 넘어서서 각자가 소망하는 세상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화자는 고통을 견뎌 내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담긴 새벽 편지를 쓰고자 한다.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연민과 위로,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고통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소망

새벽에 깨어나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사랑과 희망, 이상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1~4행: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오기를 소망함.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5~9행: 새벽에 깨어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함.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10~14행: 고통을 이겨 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하기를 소망함.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15~18행: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오기를 소망함.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19~23행: 고통을 이겨 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하기를 소망함.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24~28행: 고통을 이겨 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하기를 소망함.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29~33행: 희망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기대

수미 상관
-화자의 소망 강조

문제 61쪽

1 ① 2 ① 3 ④

원리로 작품 독해 62쪽

- 1 별, 사랑, 아침
- 2 희망, 수미 상관
- 3 새벽, 희망
- 4 사랑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①

이 시의 1~4행과 15~18행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는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② 이 시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이 시에는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이 시에는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이 시에는 말하고자 하는 속뜻과 반대되게 말을 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그 시각’은 ‘새벽’을 의미한다. 새벽은 고통하는 법을 익히는 시간인면서, 고통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시각’이 화자에게 도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확인]

- ② 화자는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라며 고통을 통해 정신적 성숙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아침’은 ‘자유로운 새소리’, ‘따스한 햇살과 바람’, ‘라일락 꽃향기’로 표현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세상이다.
- ④ ‘새벽’은 ‘희망’이 가득한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 ⑤ ‘이 세상’에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는 것은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소망과 기대를 드러낸다.

3 시상 전개 과정 파악

답 ④

[C]에서는 화자가 기다리는 ‘아침’의 희망적인 모습을 ‘자유로운 새소리’라는 청각,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라는 촉각, ‘라일락 꽃향기’라는 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지 않았다.
- ② [A]에서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드러나지만 공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③ [B]에서 ‘정령’은 현실의 고통을 의미하는 말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어가 아니다. 또한 이 부분에는 새벽의 정적인 분위기가 드러나 있으므로 역동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도 없다.
- ⑤ [D]에서는 [A]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사용한 것이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A]와 [D]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른 작품 **맹인 부부 가수** | 정호승

작품 해제

이 시는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를 통해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시는 눈이 내리는 어두운 밤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맹인 부부의 모습을 묘사하며 시작한다. 맹인 부부 가수는 추운 겨울에 아기를 등에 업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맹인 부부 가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존재가 된다. 부부가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기 위한 노래이며, ‘눈사람’으로 표현된 희망을 주기 위한 노래이다. 결국 부부는 스스로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된다. 즉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화자는 추운 겨울이 가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봄’이 오더라도 맹인 부부 가수의 위안과 헌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인은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이 오리라는 긍정적,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희망

시적 상황과 화자의 소망

시적 상황	화자의 소망
눈사람도 없이 눈 내리는 겨울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는 것
주변의 어려움에 무관심함.	사랑과 용서가 가득함.
절망과 고통이 가득함.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가득함.

시어의 상징성

함박눈	시련과 고통
눈사람	꿈과 희망

1 노래, 새벽 편지 2 ④

- 1 이 시에서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아 주기 위한 노래이다. 「새벽 편지」의 ‘새벽 편지’는 고통을 견뎌 내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편지이다. 둘 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담긴 소재이다.
- 2 이 시는 1행과 2행, 8행과 9행, 10행과 11행, 13행과 14행, 15행과 16행, 18행과 19행, 그리고 20행과 21행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악적 효과를 주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다.

14 장자를 빌려-원통에서 | 신경림 64~67쪽

독해 포인트

이 시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과 속초 및 원통에서 경험한 세상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깨달음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대지관어원근(大知觀於遠近)’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시는 화자가 위치하는 공간을 따라가며 전개된다. 1행부터 8행까지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내려다본 세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발아래 펼쳐진 산들과 마을들, 바다 등을 본 화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으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9행부터 17행까지에서는 속초와 원통으로 이동해 사람들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세상이 산 위에서 바라본 것처럼 단순하고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자는 이를 바탕으로 18행부터 20행까지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멀리서 보는 태도와 가까이에서 보는 태도 모두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각기 다른 두 공간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주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

□: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높은 곳-세상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곳
 발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주해: 산들-의인법 화자가 대청봉에서 바라본 것 ①
 떨어져 나갈까 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주해: 마을들-의인법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화자가 대청봉에서 바라본 것 ②
 다만 무릎까지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주해: 바다-의인법(파도가 치는 바다의 모습)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화자가 대청봉에서 바라본 것 ③
 운동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세상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가 드러남.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1~8행: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시상의 전환 낮은 곳 ①-세상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 노래 안주 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타령도 듣고
 화자가 속초에서 접한 것-이주민들의 삶의 애환
 다음 날엔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엘 들어가
 화자가 원통에서 접한 것-사람들의 고단한 삶
 낮은 곳 ②-세상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들고
 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 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화자의 깨달음 ▶9~17행: 속초와 원통에서 바라본 세상
 지금 우리는 후시 세상을
 화자를 '나'에서 '우리'로 확대함. → 모두의 성찰 촉구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의문의 형식으로 세상을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드러냄.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8~20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

문제 65쪽

1 ④ 2 ① 3 ②

원리로 작품 독해 66쪽

- 1 대청봉, 원통, 마을들
- 2 멀리, 피난민, 원통, 공간
- 3 장자, 관점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④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와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에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쓰는 도치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이 시에서 ‘산’, ‘바다’ 등과 같은 자연물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화자가 바라보는 세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이 시에는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이 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 시구의 의미 파악

답 ①

화자는 산 위에서 ‘산들’과 ‘마을들’, ‘바다’를 보면서 ‘발아래 구부리고 엎드’리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느끼면서 세상을 다 알 것도 같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산을 내려와 사람들의 복잡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을 접하고는 세상이 산 위에서 본 것처럼 단순하고 만만하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오답 확인]

- ②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은 화자가 산에서 내려와 속초와 원통에서 본 세상이다.
- ③ 화자가 산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만만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 ④ 화자는 세상이 무의미하고 권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⑤ 화자가 산 위에서 바라본 세상이 서로 경쟁하는 세상은 아니었으며, 속초와 원통에서 본 세상이 경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도 아니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화자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즉 ‘멀리’서 ‘산들’, ‘마을들’, ‘바다’를 내려다보며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까이’에서 보아야 함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설악산 대청봉’은 높은 곳, 멀리 볼 수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서 본 ‘산들’과 ‘마을들’은 ‘멀리’에서 본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③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마늘 장수’를 만난 것은 ‘속초’와 ‘원통’으로, 화자가 산을 내려와 직접 접한 세상이다. 따라서 이는 ‘가까이’에서 세상을 보는 경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화자는 ‘속초’와 ‘원통’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후, 세상이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멀리’서 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 ⑤ 화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 두 관점 모두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작품
읽어 읽기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김중삼

67쪽

작품 해제

이 시는 시인인 화자가 시와 시인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시는 도치의 방법으로 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 뒤, 공간을 이동하며 이에 대한 답을 찾는 화자의 모습으로 전개된다. 화자는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답을 찾는다. 화자는 '엄청난 고생 되어도 /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최고의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말한다. 즉 시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삶을 담아 내는 것이 시라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주제

시와 시인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시어의 의미

그런 사람들	시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소박한 모습의 서민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파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다양한 표현 방법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문장의 어순을 바꿔 변화를 줌.
그런 사람들이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함.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열거의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강조함.

1 깨달음 2 ④

- 1 이 시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깨달은 바를 전하고 있으며,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도 공간의 이동에 따라 경험한 일상적 삶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2 '시가 무엇이야'는 질문의 답을 찾던 화자는 '엄청난 고생 되어도 /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시인이라는 답을 한다. 즉 고된 일상을 성실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시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감자 먹는 사람들 | 김선우

68~71쪽

독해 포인트

이 시는 감자 냄새를 통해 떠올린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과거 회상을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시는 우연히 어느 집 담장을 넘어온 감자 삶는 냄새를 맡은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떠올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이다. 시는 현재의 이야기 안에 과거의 추억이 삽입되는 구조로 전개된다. 화자는 어느 집 담장을 넘어온 낫익은 냄새를 맡고는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화자의 과거는 감자와 감자밥으로 기억된다. 열한 식구가 먹고살 기엔 쌀이 부족해 감자와 함께 밥을 지어야 했던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는 밥이 모자랄까 봐 식구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손가락을 들지 않는다. 가족들이 먹고 난 뒤에 남은 밥을 먹으려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화자에게 감자 삶는 냄새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치명적인 그리움인 것이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자신은 땅속으로 궁그는 감자의 헌신과 그러면서도 생색을 내지 않고 꽃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감자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런 감자의 속성을 통해 열한 식구를 돌보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이것은,

의도적 행 배열로 긴장감 조성

치명적인 냄새

▶1연: 어느 집 담장을 넘어온 치명적인 냄새

감자 삶는 냄새, 과거 회상의 매개체

[과거 회상] → 산문적 서술

식은 감자알 갈작거리며 평상에 엎드려 산수 숙제를 하던,

가난한 과거의 삶을 드러냄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어린 '나'의 말을 직접 인용함.

줄 알아. 열한 식구 때꺼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대

할아버지의 말을 간접 인용함 -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상황임.

냐고, 귀밝은 할아버지는 땅 밑에서 감자알 크는 소리 들린다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자알이 크는 것에 대한 만족감

고 흐뭇해하셨지만 엄마 난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

감자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

데, 뿌리 끝에 땡글땡글한 어지럽증을 매달고 식구들이 밥상

감자를 비유한 말

머리를 지킨다 하나둘 손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발

엔 손가락 꽃치지 않는다

식사를 하지 않음. ▶2연: 가난했던 시절에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 감자 삶는 냄새를 통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느낌.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 ▶3연: 감자 삶는 냄새를 맡으며 떠올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궁그는,**

자식들 어머니의 희생

꽃 진 자리엔 얼씬도 하지 않는,

열한 개의 구멍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 ▶4연: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열한 명의 가족

자궁 = 감자 = 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문제 69쪽

1 ⑤ 2 ② 3 ②

원리로 작품 독해 70쪽

1 냄새, 어머니, 감자
2 희생, 감자, 사랑
3 과거 회상, 그리움
4 산문, 후각적

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이 시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시적 대상인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감사와 그리움이지 냉소가 아니다.

[오답 확인]

- ① 이 시에서는 '냄새', '그리움', '애기집'과 같은 명사형 증결을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② 이 시의 1연은 현재 상황으로 화자가 어느 집 담장을 넘어온 치명적인 냄새를 맡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냄새는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가 되어 2연에서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3연과 4연에서는 현재로 돌아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2연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어린 나'와 '할아버지'의 말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 ④ 2연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산문적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2 작품 내용 파악

답 ②

이 시에 열한 식구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감자밥을 먹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과 감자알이 크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나타나지만, 할아버지께서 감자 드시는 것을 좋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를 통해 화자가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하나둘 손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발엔 손가락 꽃이지 않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엄마 난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땡글땡글한 어지럼증'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치명적인 그리움'을 통해 알 수 있다.

3 시어의 기능 이해

답 ②

'비자발적 기억을 우연히 떠오르게 하는 요인'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에 해당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어느 집 담장을 넘어온 감자 삶는 냄새를 통해서 감자에 얽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담장'은 '현재'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아니다.
- ③ '감자알'은 과거의 회상 속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냄새'를 통해 떠올리게 된 대상이다.

- ④ '엄마'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감자 삶는 냄새'를 통해 떠올리게 된 대상이다.
- ⑤ '꽃'은 감자꽃을 의미하면서 '자식들'을 비유하는 대상이다. 이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작품 71쪽
읽어 보기 감자 먹는 사람들 - 삼짇 소리 | 정진규

작품 해제

이 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에 나타난 가난한 노동자들의 저녁 식사 장면을 화자의 궁핍했던 유년 시절에 연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가 떠올린 가족들의 식사 자리는 화목함과는 거리가 멀다. '흐린 불빛'과 '삐걱거리는 식탁'으로 상징되는 가난한 현실과 '마디 굵은 손'으로 대변되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식사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고단한 삶은 꿈속으로까지 연결된다. 꿈속에서마저 삼짇 소리를 들어야 했던 고단한 삶의 연속, 그래서 새벽에 내리는 비가 반갑기만 하다. 비가 오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의 묘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새벽 빛줄기 속으로 새싹들이 돋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일에 지친 가족의 고단함과 휴식에 대한 기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저녁	밤	새벽
가족들이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음.	꿈속에서도 삼짇 소리를 들음.	빗소리를 들으며 휴식에 대한 희망을 가짐.

시어의 상징성

삶은 감자	가난한 삶
삼짇 소리	고된 노동
새싹	삶에 대한 희망

1 감자 2 ③

- 1 이 시에서 화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던 시절을 회상한다. 여기에서 '감자'는 과거의 가난한 삶을 드러낸다. 김선우의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도 감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먹어야 했던 음식이다. 그러므로 감자는 두 시에서 모두 과거의 가난한 삶을 드러낸다.
- 2 꿈에서도 '삼짇 소리'가 들린 것은 가장 편안해야 할 꿈속에서도 노동의 고단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 준다. ① '불빛 흐린 / 저녁 식탁'은 가난한 삶을 의미한다. ② 마디 굵은 식구들의 '손'은 고된 노동의 흔적이다. ④ 새벽의 '빗줄기'는 노동으로 지친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존재이다. ⑤ '새싹'은 삶에 대한 희망을 의미한다.

01 고향 | 현진건

78~83쪽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참혹한 생활상을 폭로하고 있으므로 액자 속 이야기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을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그린 작품이다. 기차 안에서 만난 '그'의 고달픈 인생 역정을 통해 당대 조선 농촌의 피폐한 삶과 식민지 현실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 전개를 통해 일제의 수탈 아래 결핍과 유랑의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상

등장인물

- '나':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현실을 재인식하면서 '그'에게 공감대를 형성함.
- '그': 일제 강점기에 고통받는 전형적인 농민임. 당대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인물로 작가의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냄.

액자식 구성

외화	서울행 기차 안에서 '나'와 '그'가 우연히 만남.
내화	'나'가 '그'에게 과거 이야기를 전해 들음. - 일제에 농토를 빼앗김. - 서간도로 이주하였으나 부모가 죽고 유랑 생활을 함. -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음.
외화	'나'는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름.

문제 80~81쪽

1 ① 2 ⑤ 3 ③ 4 ①

원리로 작품 독해 82쪽

- 1 호기심, 연민, 조선의 얼굴
- 2 일제 강점기, 고향
- 3 기차, 액자식

1 인물의 상황 및 심리 파악 답 ①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그'의 가족들이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서간도로 떠났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확인]

- ② '그'는 고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 ③ '그'는 타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는다.
- ④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어 신의주, 안동현으로 몸을 팔다, 벌이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 ⑤ '그'는 일본에서 방황하는 힘든 삶을 살다가 고국산천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 고향을 둘러보려는 것이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에 간 것은 아니다.

2 서사적 기능 이해 답 ⑤

[A]에는 일제에게 땅을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의 고향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A]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암울한 상황은 '그'의 가족들이 왜 고향을 떠나 서간도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므로 서사 구조에 필연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난 장면으로 볼 수 없다.
- ② 과거의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지나간 사건을 추리하여 재구성한 것은 아니다.
- ③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것은 아니다.
- ④ 역사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아니며 상반된 해석이 대비되지도 않았다.

3 소재의 의미 파악 답 ③

'나'는 '그'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 역정을 듣고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 준 '정종'을 '그'와 함께 나누어 마신다. 이는 '나'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상황에 공감하며 연민과 위로의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그'를 약화한 운명으로 몰아넣게 된 것은 일제의 토지 수탈과 관련이 있다.
- ② '나'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기이한 옷차림을 한 '그'의 모습 때문이다. 이는 '나'가 '그'와 '정종'을 나누어 마시기 이전이다.
- ④ '그'는 이미 고국에 돌아와 고향을 돌아보고 온 상황이므로 '정종'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는 아니다.
- ⑤ '그'가 조선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동양 척식 회사 등의 일제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보기>에서 1920년대 국내 농촌은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로 피폐하고 암울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참고할 때 고향을 둘러본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일본의 수탈로 백여 호 살던 동네가 터조차 없어지는 등 피폐하고 비극적으로 변한 현실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죄책감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확인]

- ② 동양 척식 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횡포로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것은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의 폐해를 보여 준다.
- ③ '그'가 겪은 서간도에서의 삶과 일본 탄광에서의 노동 등은 작가가 기자로서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한 해외 동포들의 비참한 삶과 관련 있다.
- ④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까지 잃어버린 '그'의 모습은 당시 우리 식민지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임을 보여 준다.
- ⑤ '그'의 모습을 '조선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고달픈 삶이 당시 암울했던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을 표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서간도를 배경으로 조선인 소작인과 중국인 지주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소작인 계급으로 대표되는 문 서방과 지주 계급으로 대표되는 인가의 계급적 갈등을 통해 조선 이주민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문 서방이 살인과 방화로 저항하는 모습은 하층민의 투쟁 의지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보여 준다.

주제

일제 강점기 조선 이주민의 비참한 삶과 저항

등장인물

- **문 서방**: 삶의 터전을 잃고 서간도로 이주해 온 조선인 소작농으로, 흉년 때문에 소작료를 미납하여 인가에게 딸을 빼앗기자 인가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인가를 살해함.
- **인가**: 중국인 지주로 탐욕스럽고 악독함. 문 서방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의 딸 용례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 문 서방에게 죽임을 당함.

‘빛’의 의미

서간도로 이주해 인가의 소작인이 된 문 서방은 흉년으로 인가에게 빚을 진다.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인가에게 딸 용례를 빼앗기고 아내의 딸을 빼앗긴 슬픔에 병을 얻어 죽고 만다. 이에 문 서방은 딸을 찾기 위해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며 인가에게 저항한다. 이로 보아 ‘빛’은 소작인과 지주 계급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1 서간도 2 빛

- 1 이 글의 문 서방과 「고향」의 ‘그’는 모두 일제의 수탈로 농토를 빼앗겨 고향을 떠나 서간도로 이주했으나 참담하고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2 지주인 인가가 소작인인 문 서방을 매일 찾아와 빛 독촉을 해대는 것은 음흉한 인가의 가슴속에 문 서방의 딸 용례가 걸린 까닭이라고 하였다.

0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박태원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도시의 세태를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서울 거리를 배회하며 느끼는 내면 의식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당시 서울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를 관찰하는 구보의 시선을 통해 1930년대 조선의 세태를 엿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속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황금 열풍이 불기 시작한 당대의 상황을 구보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구보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지는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일 뿐이다. 이 작품에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소심한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다.

주제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의 눈에 비친 도시의 모습

등장인물

- **구보**
 - 26세의 소설가임.
 -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글 쓰는 것 외에는 직업이 없는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임.
 - 무기력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한편,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물 취급함.

의식의 흐름 기법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기법의 소설은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의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내용보다 그것을 통해 반응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이 된다.

문제 86~87쪽

1 ① **2** ③ **3** ⑤ **4** ⑤ **5** ④

원리로 작품 독해 88쪽

- 1 노파, 의혹, 고독, 물질 만능주의
- 2 단절, 황금, 비판적
- 3 여정, 의식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①

[A]에서는 ‘~ 찾아가는지 모른다.’, ‘~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으)ㄹ 게다.’와 같은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여 구보가 노파와 신사에 대해 상상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확인]

- ② 짧은 문장을 사용한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긴 문장을 사용하면서 쉼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 인물의 내면 변화를 박진감 있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③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경험이 없고 이를 통해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구보가 관찰하고 상상한 것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 서사적 흐름에 따른 인물의 기능 파악 답 ③

구보의 중학 동창인 '벗'은 과거에 열등생이었지만 현재에는 '금시계'와 '애인'을 보란 듯이 자랑하는 속물적 인간이다. 이처럼 달라진 '벗'의 모습을 통해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구보의 경제적 사정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②, ④, 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보기〉를 통해 이 글이 세태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인들'은 황금 열풍에 동참한 사람들로 물질적 가치관에 의해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구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을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확인]

- ① 구보는 삶의 활기를 얻기 위해 '경성역'을 찾았으나 누구에게서도 따뜻한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오히려 고독을 느낀다.
- ② '사람들'은 옆의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도 없고, 자신들의 사무에만 바빴으며 서로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는 모습을 보인다. 구보는 그런 '사람들'을 딱하고 가엾게 바라보고 있다.
- ③ 구보는 '양복 입은 사나이'가 온갖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에 우울함을 느끼며 그곳을 떠난다.
- ④ 구보는 '두 명의 사나이'의 차림새를 보고 무직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었다는 것을 통해 당시에 무직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이 줄부가 되고 몰락해 간다는 부분에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답 ⑤

〈보기〉를 통해 이 글은 고현학의 방법으로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보가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라고 한 것은 순수해야 할 문인마저 황금의 열기를 추종하는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에서 경제적 안정을 찾아야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살피볼 수 없다.

[오답 확인]

- ①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하며 '경성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구보가 산책하듯 도회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② 구보가 조그만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대학 노트를 펴들'은 것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여 소설화하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③ 구보가 개찰구 앞에서 '대합실 안팎'을 둘러보며 인물들을 지켜보는 것은 도회지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④ 황금광 시대에 '황금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금광 개발 열풍에 휩쓸렸던 당대의 세태를 보여 준다.

5 소재를 통한 시대상 파악 답 ④

㉔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 설치하는 최고 행정 기관'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

**다른 작품
읽어 보기** **날개** | 이상

89쪽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에 의욕을 상실한 채 아내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경성 시내 유곽의 어두운 방에서 생활력 없이 지내는 '나'의 고독과 분열된 내면 의식, 그리고 본질적 자아를 되찾으려는 의지를 그리고 있다. '나'의 내적 독백을 중심으로 한 의식의 흐름 기법, 인물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의 활용 등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과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

등장인물

- '나': 직업도 없이 아내에게 의지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지식인으로, 분열된 내면 의식을 지닌 채 도시를 여기저기 돌아다님. 아내가 준 약이 수면제임을 알고는 충격을 받고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

'날개'의 의미

현재의 무기력하고 답답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종속되고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 자의식을 펼치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한다.

1 의식의 흐름 2 무기력

1 이 글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보여 주고 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도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관찰 내용과 내면 심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나'는 아내가 준 돈으로 경성역 티 룸에서 차를 마시는 등 거리를 배회하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성례 문제를 두고 인물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갈등 상황과 그 흐름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는 교활한 장인과 그런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끝내 이용만 당하는 '나'의 갈등을 그리면서 그 안에 날카로운 현실 비판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미루고 일만 시키는 장인의 교활함, '나'를 충동질하는 점순이의 당돌함, 장인에게 맞서 보지만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나'의 어수룩함이 어우러지면서 해학적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보여 준다. 즉 시간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뒤바꾸어 절정 부분을 작품의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긴장감과 해학성을 높이고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주고 있다.

주제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사이의 갈등

등장인물

- **'나'**: 순박하고 우직하며 어수룩한 인물로, 점순이와 혼인하려고 점순이네 집에서 농사일을 함.
- **장인**: 교활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점순이와 성례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나'를 부려 먹음.
- **점순**: 아무지고 적극적인 인물로, '나'에게 성례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도록 충동질함.

이 글의 해학적 요소

- 어수룩한 '나'가 사건의 전말, 다른 인물의 심리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술하여 해학성을 유발한다.
- 교활한 장인, 당돌한 점순이, 우직한 '나'의 성격이 어우러지며 웃음을 자아내고 해학성을 유발한다.
- 비속어와 토속적인 사투리를 구사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문제 92~93쪽
1 ② 2 ① 3 ⑤ 4 ④ 5 ②

원리로 작품 독해 94쪽
1 성례, 성례
2 나, 사투리, 대비
3 농사일, 성례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나'와 장인이 대립하고 있던 중에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작년 이맘때 장인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발목을 삐었을 때 장인이 '나'를 회유한 사건을 회상한다. 이처럼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들이므로써 '나'가 장인의 집에서 데릴사위로 일을 하고 있는 인물임이 드러나며, 장인과 '나', 점순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오답 확인]

- ① 현재 사건을 서술하다가 작년 이맘때인 과거의 사건과 '그 전날'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의 병치를 볼 수 없다.
- ③ 현학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토속적인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다.
- ④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⑤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2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답 ①

점순이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에게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혼자서 종알거렸고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충동질하기까지 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점순이는 성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확인]

- ② '나'는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장인이 '나'에게 '큰소리할 계제'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장인이 '나'에게 일만 시키고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시켜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장인이 점순이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이유는 마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인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 ⑤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3 구절의 기능 및 의미 파악

답 ⑤

㉞은 점순이가 겉으로 보이는 키는 자라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법 성숙해진 듯하다는 의미이다.

[오답 확인]

- ① ㉝은 '욕필'이라는 별명이 본명인 '봉필'과 유사한 데서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② ㉜은 괄호를 제거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③ '나'는 장인에 대한 반감을 장인 소유의 소에게 대신 표출하는 중인데, ㉞은 장인과 소를 동일시한 부분이다.
- ④ ㉞은 점순이의 행동에 대해 장인이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라고 평가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4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답 ④

'밭'에서 '나'는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생긴 울화를 소에게 풀고 있다. '나'가 점순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확인]

- ① 장인은 마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작인들에게 부당한 요구와 착취를 하는 인물이다. 이런 마음들이 많다면 '가을'에 소작인들은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다.
- ② 이번 가을에 장가를 들여 주겠다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는 이를 걸릴 '논'의 일을 하루에 해치우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 ③ '화전밭'에서 '나'는 생동하는 봄 풍경에 휩쓸려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노래를 하는 등 분위기에 취해 춘정을 느끼고 있다.
- ⑤ '이날'은 '나'가 점순이도 자신과 성례를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다.

5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②

장인은 점순이와의 성례를 명분으로 '나'를 데릴사위로 들였다. 장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구슬려 농사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큰소리를 칠 상황이 못 되는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장인과 '나'와의 사이가 나빠지면 점순이가 성례를 안 하려 들 것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③ 장인은 점순이가 다 자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례를 미루고 있다.
- ④ 장인은 마음으로 동리 사람들이 굶신굶신하며 눈치를 보는 대상이다. '나'를 심하게 대한다고 해서 동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일은 없다.
- ⑤ 점순이와 '나'의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장인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작품 **동백꽃** | 김유정

95쪽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산골을 배경으로 순박한 젊은 남녀의 사랑을 해학적이고 재치 있게 그린 작품이다. 어수룩하면서도 눈치가 없는 '나'와 성숙하고 적극적인 점순이 사이에서 애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배경과 어우러져 전개되고 있다. 결말 부분에 제시되는 알싸한 동백꽃은 풋풋한 애정의 상징이자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배경이 된다.

주제

산골 젊은 남녀의 순박한 사랑

등장인물

- '나': 순박하고 어수룩한 인물로, 소작인 집의 아들이어서 마름집 딸인 점순이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함.
- 점순: '나'에 비해서 성숙한 인물로, 적극적으로 '나'에게 애정을 드러냄. '나'에게 거절을 당하자 닭싸움 등으로 애정과 복수가 뒤엉킨 행동을 함.

'감자'의 기능

점순이는 감자를 통해 '나'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드러낸다. 하지만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어수룩한 '나'는 감자를 거절하고 이에 화가 난 점순이는 닭싸움을 벌인다. 즉 '감자'는 점순이의 호의와 관심을 나타내는 소재이자, 닭싸움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1 해학성 2 감자

- 1 이 글과 '봄·봄'은 모두 향토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순박하고 어수룩한 시골 청년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2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고 먹어 보라며 호의를 베풀지만 '나'에게 거절당하자 닭싸움을 벌여 '나'의 닭을 괴롭힌다. 이에 '나'는 크게 화가 난다.

04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96~101쪽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배경이 분위기 형성과 사건의 진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일생을 길 위에서 살아가는 장돌뱅이 허생원의 모습을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과 인간의 근원적인 애정을 그린 작품이다.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을 배경으로 허생원이 회상하는 과거의 추억과 인물들이 봉평 장에서 대화 장으로 이동하는 현재의 사건이 교차하고 있으며, 토속적인 어휘 구사, 서정적 문체, 낭만적인 분위기 묘사 등으로 한국 단편 소설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다.

주제

떠돌이 삶의 애환과 혈육의 정

등장인물

- 허생원: 평생을 외롭게 떠돌이 생활을 해 온 장돌뱅이로, 젊은 시절 성 서방네 처녀와의 하룻밤 인연을 추억 삼아 살아감.
- 조선달: 허생원과 함께 다니는 장돌뱅이로, 장돌뱅이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할 생각을 하고 있음.
- 동이: 대화로 가는 길에 허생원과 동행하게 된 젊은 장돌뱅이로, 허생원의 아들로 추정됨. 제천에 계신 홀어머니를 봉평으로 모셔 오겠다는 생각을 지님.

주요 표현 방법

- 시·공간적 배경의 역할: '메밀꽃 필 달밤의 산길'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고요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허생원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사건의 서술 방식: 과거의 사건은 주로 요약하여 서술하고, 현재의 사건은 장면을 묘사하여 서술하고 있다.

문제

98~99쪽

1 ③ 2 ② 3 ④ 4 ④ 5 ④

원리로 작품 독해

100쪽

- 1 장돌뱅이, 정착
- 2 달밤, 개울, 분위기
- 3 성 서방네 처녀, 달밤

1 글의 내용 이해

답 ③

허생원은 더운 여름날 밤 개울에서 목욕하기 위해 옷을 벗으러 들어간 물방앗간에서 성 서방네 처녀를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이 미리 만나기로 약속해서 물방앗간에 간 것은 아니다.

[오답 확인]

- ① 조선달은 허생원에게 장돌뱅이 일을 기을까지만 하고 전방을 벌여 식구들을 부르겠다고 했다.
- ② 허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의 아름다운 인연이 그리워 봉평을 거의 반평생 빼놓지 않고 다니고 있다.
- ④ 동이는 허생원을 붙들고 개울을 건너느라 먼저 간 조선달과는 거리가 벌어졌다.

⑤ 허 생원은 동이 모친의 친정이 봉평이라는 말을 듣고 동이 모친이 성 서방네 처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하여 개울에 빠져 버린다.

2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이 글은 성 서방네 처녀와의 애뜻한 하룻밤 일을 떠올리는 허 생원의 회상을 통해 과거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ㄱ). 또 아름다운 달빛이 비친 메밀밭을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문체로 묘사하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ㄷ).

[오답 확인]

- ㄴ.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지 않으며 사건을 병치시키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 ㄹ. 이 글은 서술자가 것처럼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 전달하고 있으며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지 않았다.

3 인물의 상황 파악

답 ④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는 허 생원, '□'는 조 선달, '○'는 동이다. 조 선달은 (가)에서 허 생원의 과거 이야기를 맞장구치며 들어준다. 그러나 (다)에서는 개울을 먼저 건너 허 생원과 동이의 대화에서 빠지게 된다.

[오답 확인]

- ① (가)의 행렬은 좁은 산길을 가는 까닭에 세 사람이 외줄로 늘어서 가고 있다.
- ② (나)의 행렬은 좁은 산길에서 벗어나 큰길로 나오게 되면서 세 사람이 나란히 가게 된 것으로 동이도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다.
- ③ (다)의 행렬은 개울을 거의 건너 조 선달과, 그로부터 훨씬 떨어져 있는 동이와 허 생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⑤ (가)에서 (다)로 갈수록 동이와 허 생원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사이가 가까워진다.

4 공간의 의미 이해

답 ④

〈보기〉에서 '이곳'은 수직적으로 이동하며 시련을 겪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볼 때 '고개'는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공간이자 시련을 겪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개 너머 도착한 '개울'이 동이 어머니가 허 생원이 그리워하던 '성 서방네 처녀'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정착의 이유를 발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울'로 이동하기 전의 공간인 '고개'가 〈보기〉의 '이곳'과 통한다.

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동이와 허 생원의 대화는 둘의 관계를 밝히는 탐정식 수법과 관련이 있다. 이 둘의 대화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가치관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확인]

- ① 허 생원이 젊었을 때 우연히 만나 인연을 맺은 성 서방네 처녀와의 하룻밤 추억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② 허 생원이 동이가 자기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하는 부분은 한국적 소재인 핏줄 찾기 이야기라서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③ 허 생원이 겪었던 젊은 시절의 추억은 달밤 메밀밭의 낭만적인 배경과 어우러져 작가의 서정적인 문체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⑤ 허 생원은 동이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어머니가 성 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동이에게 질문하며 그녀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 묻고 있다.

다른 작품 산 | 이효석

101쪽

작품 해제

이 소설은 머슴살이를 하던 중실이 주인의 오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 산속에 머물며 스스로 별이 됨을 느끼는 작품이다. 중실은 주인의 첩을 건드렸다는 오해를 받아 쫓겨난 후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향토적인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교감하며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중실의 태도는 인위적인 모든 세상살이를 배격하고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 친화적인 작가의 특징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과 자연에 대한 사랑

등장인물

- **중실**: 김 영감 집의 머슴이었으나 김 영감의 오해로 집에서 쫓겨난 후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과 동화되어 가는 인물임. 자연 속에서 용녀와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하며 행복을 느낌.
- **용녀**: 중실이 사모하는 이웃집 여인으로 작품에 실제 등장하지는 않음.

‘산’의 의미

중실에게 ‘산’은 혼잡하고 답답한 세상살이를 피해 들어간 공간이다. ‘산’에는 못짐승과 나무, 벌 등이 있어 중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갈 수 있다. 따라서 ‘산’은 중실과 동화된 자연 그 자체이자 인간과 교감을 나누는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공간을 상징한다.

1 배경 2 자연

1 이 글에서는 ‘산’을 순수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고,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메밀꽃 핀 달밤의 산길을 아름다운 자연의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배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여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2 세상살이에 지쳐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중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산속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며 물아일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인다.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광복 직후 한 인물이 농토를 두고 겪는 상황을 통해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당대 현실과 그에 대한 인물의 인식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에서 국가의 잘못된 토지 정책과 이기적이고 편협한 국가관을 지닌 몰염치한 인물을 비판한 작품이다. 작가는 슬과 노름으로 진 빚 때문에 일본인에게 땅을 팔고선 해방이 되면 찾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다니는 한덕문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해방 후에도 농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 정책을 펴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내고 있다.

주제

해방 이후 국가의 잘못된 토지 정책과 민족의식을 상실한 이기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

등장인물

- **한덕문**: 누명을 쓴 부친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 고을 원에게 논을 빼앗김. 길천에게 논을 판 뒤 해방이 되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허황한 기대를 갖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실망하고 나라를 원망함.
- **길천(요시카와)**: 일본인 지주로 토지를 사들이고 대금업을 하여 부를 축적하는 데 전념함.

'논'의 의미

농민에게 '논'은 생계의 방편이자 삶의 터전이다. 즉 '논'은 농민에게 최대의 관심사이자 소유에 대한 절박한 바람을 가진 대상이다. 이 소설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을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당대의 최대 현안이었던 토지 분배가 해방 이후에도 농민의 편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풍자적인 수법으로 비판하고 있다.

문제 104~105쪽

1 ③ 2 ⑤ 3 ④ 4 ① 5 ②

원리로 작품 독해 106쪽

- 1 후회, 원망
- 2 이기주의적, 토지
- 3 소유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③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은 물론,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덕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덕문은 독립이 되었지만 개인적 욕망이 실현되지 못했기에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기를 잘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덕문은 독립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한덕문은 빚을 갚기 위해 길천에게 논을 팔았다. 길천이 한덕문의 논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
- ② 구장은 길천에게 판 한덕문의 땅이 해방 후에는 국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③ 한덕문의 친구는 한덕문이 땅을 판 것을 책망하고 있으므로 한덕문을 옹호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한덕문은 자신이 판 논을 돈을 내고 사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라며 분노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

3 세부 내용의 추론 답 ④

한덕문은 일인들이 쫓겨 갈 것이고, 일인들이 쫓겨 가면 자신이 판 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해방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덕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편 장담'으로 받아들여져 비꼰의 대상이 된다. 이런 한덕문의 장담이 속담까지 된 것이므로 ㉠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해 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비꼬는 내용일 것이다.

4 구체적 내용 파악 답 ①

㉡는 한덕문이 빚에 쫓들려 길천에게 논을 판 뒤에 하는 허황된 장담이다. 한덕문은 논을 판 일을 후회하고, 일인이 쫓겨 갈 아무런 근거나 자신도 없으면서 논을 판 불명예나 어리석음을 감싸기 위해 일인이 쫓겨 가고 그 논이 도로 제 것이 될 것이라는 장담을 한다.

[오답 확인]

- ② 한덕문은 길천에게 논을 판 뒤 다시 땅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③ 한덕문은 길천에게 남은 논을 다 팔았다. 제일 비옥한 논을 남겨 두지 않았다.
- ④ 한덕문은 글의 뒷부분에서 일인들이 내놓고 간 땅을 나라에서 팔아먹는다며 분노하고 있다.
- ⑤ 한덕문은 땅을 팔고 나서 심히 후회하여 마지아니하였다고 했다.

5 인물의 태도 파악 답 ②

한덕문이 ㉢처럼 말한 까닭은 해방 후에도 나라의 토지 정책으로 길천에게 판 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자 나라에 대한 반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답 확인]

- ① 해방이 되어도 원놈 같은 관리들이 판을 쳐서 다시 땅을 빼앗길까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해방이 되어도 여전히 농사꾼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해방이 되어서 일인들이 남기고 간 땅을 도로 되찾으려는 것이지, 나라에서 일인들이 놓고 간 논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한덕문은 농사꾼으로서의 일생을 산 인물로, 논을 팔아 독립운동을 했던 일은 확인할 수 없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낙동강 하류의 모래톱인 조마이섬을 배경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권력에 의해 땅을 빼앗긴 주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조마이섬 사람들은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서 만든 땅을 한 번도 소유해 보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동척과 일인에게, 해방 이후에는 국회 의원과 유력자에게 빼앗긴다. 소설은 유력자의 횡포에 맞서 싸우던 건우 할아버지(갈밭새 영감)가 살인을 해서 끌려가고, 조마이섬은 군대가 정치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작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권력자의 폭력에 희생된 민중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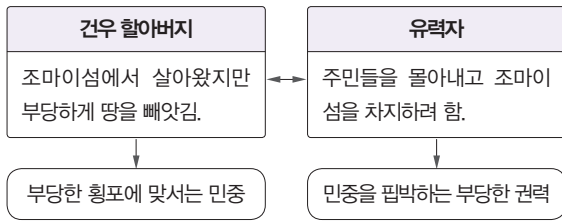
주제

권력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긴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저항 의지

등장인물

- ‘나’: 조마이섬에서 배를 타고 통학하는 건우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 소설의 서술자이자 관찰자로 부조리한 권력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역할을 함.
- 건우 할아버지(갈밭새 영감): 어부로, 일찍 아들들을 여의고 건우를 보살피며 생활함.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에 분노하며, 이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있음. 마을을 지키려다 살인을 하고 경찰에 끌려감.
- 윤춘삼: 조마이섬의 주민. 과거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음. 건우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분노하며 저항하는 인물임.

이 글의 주된 갈등



1 비판적 2 조마이섬

- 1 이 글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이어 온 조마이섬의 수탈의 역사와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부조리한 권력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논 이야기」 역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땅을 해방 이후에도 되찾지 못하는 국가의 잘못된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 2 조마이섬 주민들은 선조 때부터 피땀 흘려 일군 땅을 한 번도 소유하지 못하고 권력자들에게 수탈당한다. 이는 지배 계층의 착취에 고통받는 소외된 민중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역마살을 소재로 하여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삶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인물이 처한 상황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의 제목인 ‘역마’는 ‘역마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곳에 머물지 못하고 길 위를 떠도는 삶을 뜻한다. 이 작품에는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 담겨 있다. 성기의 역마살은 외할아버지인 체 장수 영감과 아버지인 떠돌이 승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대물림된 것이다. 옥화는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려 하지만 그 노력은 좌절되고, 옛장수가 되어 길을 떠나는 성기의 모습에서 역마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떠돌이 삶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기의 삶은 운명과 조화를 이룬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주제

운명에 순응하는 삶과 인간 구원의 문제

등장인물

- 옥화: 성기의 어머니로 주막을 운영함. 계연과 성기를 결혼시켜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려 하지만 계연이 자신의 동생임을 알게 되고 결국 아들의 운명을 받아들임.
- 성기: 옥화의 아들로 역마살을 가진 인물임. 계연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자 운명에 순응하여 떠돌이의 삶을 택함.
- 계연: 옥화의 이복동생으로 성기를 사랑하지만 인륜을 거스를 수 없어 아버지인 체 장수 영감을 따라 떠남.

‘역마살’의 의미

‘역마살’은 역마의 귀신이 독기를 품어 사람에게 씌우는 것으로,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액운을 뜻한다. 이 글의 제목인 ‘역마’는 역마살을 지니고 태어난 성기의 삶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힘, 그리고 그것에 순응하는 삶을 의미한다.

문제 110~111쪽

1 ① 2 ② 3 ③ 4 ⑤ 5 ③

원리로 작품 독해 112쪽

- 1 역마살, 순응
- 2 거역, 운명
- 3 이복 자매, 옛판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①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 그에게 보여 주었다.’는 과거의 장면으로 옥화가 성기에게 계연과 맺어질 수 없는 이유를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체 장수 영감과 옥화, 그리고 계연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오답 확인]

- ② 화개 장터라는 배경에서 일어난 일들만 나타나 있다.
- ③ 옥화가 성기에게 계연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 부분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의 배경은 화개 장터로, 상상적 공간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다.

⑤ 등장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는 독백은 확인할 수 없다.

2 시점의 변화 이해

답 ②

<보기>의 (가)는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인 옥화에 대해 서술하는 시점이고, (나)는 작품 속 인물인 옥화가 자신에 대해 서술하는 시점으로 각각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서 옥화 자신을 가리키는 '어미'와 '옥화'는 '나'로 표현해야 한다.

[오답 확인]

- ①, ④, ⑤ '아들'은 시점이 변화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대로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이라고 써야 한다.
- ③, 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었으므로, '옥화', '어미', '엄마'가 아니라 '나'로 써야 한다.

3 소재와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③

㉢와 ㉤에서 계연이 떠나는 날과 성기가 떠나는 날 모두 햇빛이 비추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에서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으로 이어진다. 이는 이제까지 계연과의 이별로 절망하던 성기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면서 갈등이 완화되고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나타낸다.

[오답 확인]

- ① '고운 햇빛'은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으로 표현된 계연을 잡지 못하는 성기의 안타까움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② '목소리'와 '뼈꾸기 울음'은 서로 어우러져 성기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에는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뼈꾸기'는 계절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고 '화개 장터'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⑤ '또다시'는 다시 아침이 왔음을 의미하지만, 이때의 아침은 갈등이 완화되어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된 아침으로 갈등 재현의 예고로 볼 수 없다.

4 소재의 기능과 의미 파악

답 ⑤

'검정 사마귀'는 옥화와 계연이 서로 이복 자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소재로, 성기가 계연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계기가 된다.

[오답 확인]

- ① 계연이 옥화의 집에 있게 된 이유와 별 관련이 없으며 성기를 설레게 하는 것도 아니다.
- ② 옥화의 과거를 알려 주는 것은 맞지만, 성기에게 회한의 정서를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 ③ 계연은 옥화를 미워하고 있지 않다.
- ④ 계연이 옥화에게 의지하거나 성기의 기대감을 유발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보기>의 ㄴ에서는 「역마」의 인물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현대인이 공감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운명에 순응하여 성기를 떠난 계연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확인]

- ① ㄱ에서는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운명에 순응하여 성기와 계연이 이별한 것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ㄱ에 따르면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운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ㄴ에서는 「역마」의 인물들이 비합리적이라고 하였는데, 명도를 불러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의 행위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⑤ ㄴ에서는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성기가 하동 쪽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행동이므로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작품 읽어 보기 배따라기 | 김동진

113쪽

작품 해제

이 소설은 '나'가 배따라기 노래 소리를 듣고 '그'와 만나 이야기를 듣는 외화와 오해로 아내와 아우를 잃고 회한의 유랑을 계속하는 '그'의 비극적 운명을 그린 내화가 액자 소설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두 이야기는 「배따라기」의 곡조 속에서 하나가 되며, 중심 내용인 내화에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애욕과 비극적 운명을 다루고 있다.

주제

오해가 낳은 인간의 비극적 운명

등장인물

- **그(형):** 질투심이 많고 성미가 급한 인물로, 동생과 아내 사이를 의심하여 아내를 죽게 만들고 동생을 떠나보냄. 뱃사람이 되어 「배따라기」를 부르며 동생을 찾다님.
- **동생:** 인물이 충중하고 다정함. 형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형수가 죽자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배따라기」의 의미

이 소설에 등장하는 배따라기는 「영유 배따라기」로 한순간의 오해로 비극에 이른 형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노래이다. 형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동생을 찾기 위해 이 노래를 부르며 뱃사람의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형의 한과 애환이 담겨 있는 노래라 할 수 있다.

1 비극적, 역마살 2 뱃사람

- 1 이 글의 '그'는 동생과 아내 사이를 오해해 비극적인 운명에 이르고, 「역마」의 성기는 방랑하는 역마살의 운명에 순응한다.
- 2 '그'는 아내가 죽고 동생이 떠나자 동생을 찾기 위해 뱃사람이 되어 「배따라기」를 부르며 방랑 생활을 한다.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인물의 결의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인물의 의식 변화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3·1 운동부터 6·25 전쟁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 격동기를 배경으로 자기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간의 결의를 그린 작품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할아버지의 가치관과 현실에 저항하다가 죽은 아버지의 이념 사이에서 방황하는 과도기적 인물(현)을 통해 현실에 대해 체념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주제

근대사의 비극 극복과 적극적인 삶에 대한 의지

등장인물

- **현**: 우리 민족의 수난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로, 현실을 외면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적극적이고 행동력 있는 새로운 삶을 시도함.
- **고 노인(할아버지)**: 보수적,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마지막 순간 의식의 변화를 통해 운명에서 벗어나 현을 위해 희생함.
- **연호**: 과거 현의 친구로 열성적인 공산주의자임.

주요 표현 방법

- **내적 독백**: ‘꼭 삼십 년을 살고 지금 여기서 죽어 가는구나.’ 등에서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상징적 소재**: ‘적극적인 삶의 의지, 행동적인 삶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불꽃’, 소멸과 부활의 공간인 ‘동굴’ 등의 상징적 소재가 사용되었다.

문제 116~117쪽

1 ① 2 ⑤ 3 ⑤ 4 ④ 5 ⑤

원리로 작품 독해 118쪽

- 1 희생, 행동
- 2 의식, 불꽃
- 3 역순행적, 독백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①

‘꼭 삼십 년을 살고 지금 여기서 죽어 가는구나.’ 등에 현의 내적 독백이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나머지 한 알의 탄환’은 방황하는 인물의 심리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려는 인물의 결심이 나타난 소재이다.

[오답 확인]

① ‘조상의 뼈다귀를 메고 다니는 것은 고 노인이 자신의 ‘혈통’과 ‘조상’을 우선으로 생각한 행동으로 사회 현실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한 것이다.

- ② 조상과 혈통에 얽매어 살던 고 노인이 숙명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의지를 느끼는 것이므로 ‘새로운 감정’에는 고 노인의 인식 전환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살아 본 일이 없지 아니한가’라는 현의 생각에는 과거 삼십 년 자신의 삶이 ‘외면’과 ‘도피’의 삶이라는 반성이 드러나 있다.
- ④ 현은 전쟁이라는 이념의 대립이 결국 연호를 죽게 했다고 생각하므로 ‘가없는 연호’에는 집단적 가치에 의해 박탈된 개인적 가치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의 ‘동굴’은 현이 피신하였다가 죽은 아버지의 삶을 떠올리고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며 의식 변화를 이루어 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의 ‘꽃밭’은 ‘검은 구름과 휘몰아칠 폭풍’과 같은 부정적 현실을 외면했던 현의 지난 삶을 상징한다.

4 세부 내용의 이해 답 ④

㉢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고 노인이 숙명이나 운명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손자인 현을 꼭 살려야겠다고 결심한 것을 의미한다.

[오답 확인]

- ①, ② 고 노인은 풍수 원리를 굳게 믿고 조상의 일만 돌보던 지난날의 노력을 허탈해하며 의식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조상의 명예를 되살리거나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 ③ 숙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손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불의의 적들에게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 ⑤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5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⑤

㉣에서 ‘꽃밭’은 안일하고 방관자적이었던 현의 과거의 삶을 의미한다. 즉 ‘꽃밭의 시대는 끝’났다는 현의 독백은 현실의 비극적 상황을 외면하고 도피했던 그간의 삶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현실을 정면으로 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오답 확인]

- ① 고 노인이 연호와의 대치 상황에서 현을 살리기 위해 희생했지만 ㉣는 자신을 위해 희생당한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는 관련이 없다.
- ② 현은 연호의 죽음에 연민을 느끼고 있을 뿐 죄책감까지는 느끼고 있지 않다.
- ③ 무사안일하고 방관자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날 뿐 비극적 상황에서 대의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는 보이지 않는다.
- ④ 새로운 비약을 다짐하고 있을 뿐 비극적인 처지에서 벗어나 자연에 귀의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6·25 전쟁 때 국군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이송되는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한 작품이다. '나'가 '철'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내용인 외화와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형제의 이야기인 내화로 구성된 액자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소 어수룩하지만 순수함을 간직한 형의 죽음과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는 동생(외화의 '철'은 자신이 동생이라고 고백함.)의 태도를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주제

전쟁의 비극성 고발 및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모색

등장인물

- **형**: 다소 어수룩하지만 순수함을 간직한 인물. 동생을 아끼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며, 전쟁 포로로 이송 중 다리가 불편해져 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동생에게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말라고 당부함.
- **동생(철성)**: 내화에서 형과 함께 포로로 이송되는 인물로 외화의 '철'과 동일 인물임. 처음에는 어수룩한 형을 무시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형의 순수성을 깨달음.

제목의 의미

'나상'은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뜻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는 삭막한 전쟁 상황에서도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형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또한 생존을 위해 형의 죽음을 모르는 척해야 했던 동생의 모습 또한 다른 의미의 '나상'으로 볼 수 있다.

16·25 전쟁 2③

- 1 이 글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는 한편, 인간다움과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불꽃」은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현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사건들을 보여 주면서 능동적인 삶의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2 형은 전날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는 자신으로 인해 동생이 피해를 볼 것을 염려한 것이다. ①은 다리가 아파 더 이상 걷지 못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한 형이 동생에게 전달 한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두 인물의 동행을 통해 상처 입은 인물에게 연민을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인물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총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향을 찾는 억구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동행하는 '큰 키의 사내'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비극이 남긴 상처와, 상처받은 인간에 대한 연민을 표현한 작품이다. 억구는 6·25 전쟁 때 득수를 죽이고, 득수의 동생인 득철은 억구의 아버지를 죽인다. 이후 억구는 오랜 시간을 도망쳐 지내다가 춘천에서 우연히 만난 득철을 죽인다. '큰 키의 사내'는 억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덕적 규범을 핑계로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그리고 억구를 체포하지 않고 죽지 말라는 뜻을 전한 뒤 혼자 떠난다. 작가는 6·25 전쟁 때 죽은 득수와 억구 아버지뿐만 아니라 득철과 억구 역시 역사의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득철이 억구 아버지의 산소를 돌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역시 죄책감에 힘든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인 전쟁과 그로 인한 상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결말은 그러한 아픔은 인간애로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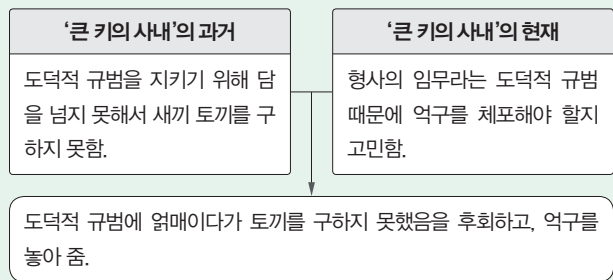
주제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에 대한 연민

등장인물

- **억구**: 아버지를 죽인 득철을 총동적으로 살해한 뒤 괴로워하다 아버지의 산소 옆에서 죽을 것을 결심함.
- **큰 키의 사내(형사)**: 살인범인 억구를 체포하려고 동행하는 형사. 억구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도덕적 규범 때문에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억구를 체포하지 않음.

'큰 키의 사내'의 과거 회상의 역할



문제 122~123쪽

1 ③ 2 ② 3 ② 4 ④ 5 ④

원리로 작품 독해 124쪽

- 1 동행, 경계, 아버지, 만족
- 2 담, 형사, 새끼 토끼
- 3 규범, 담배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③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겠다는 억구와 '큰 키의 사내'의 대화, 그리고 과거의 사건과 관련한 '큰 키의 사내'의 독백이 교차하면서 억구를 체포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내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들려 왔다', '있었다', '밤이었다' 등과 같이 과거 시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 ② 억구와 '큰 키의 사내'가 동행하는 눈길을 배경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되지는 않고 있다.
- ④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 시점을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억구와 '큰 키의 사내'가 동행하는 과정에서 억구의 과거 이야기가 드러날 뿐,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대비되고 있지는 않다.

2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②

'큰 키의 사내'는 억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그러면서 억구를 체포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이는 생물 선생네 담을 넘지 못해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형사로서의 역할'이라는 담을 넘지 못하면 억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즉 과거의 새끼 토끼와 현재의 억구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앞부분에서 억구가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을 때 사내가 몇 걸음 물러서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억구를 새끼 토끼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볼 때, 사내가 억구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큰 키의 사내'는 과거에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서웠던 거야.'라고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경험을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아버지를 잃고 죽음을 앞둔 억구의 처지는 어미 토끼보다는 새끼 토끼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⑤ '큰 키의 사내'가 후회하는 것은 어미 토끼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지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3 구절의 기능 및 의미 파악

답 ②

억구가 자신의 아버지 산소를 매년 벌초했다는 득칠에게 이주격됐다는 것과 그날 밤 득칠을 죽였다는 말에서 억구가 득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확인]

- ① 자신에게 다가서는 억구를 보며 몇 걸음 물러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큰 키의 사내'가 억구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내는 억구의 양복 윗주머니의 불룩한 것을 흉기로 생각한 것이다.
- ③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억구가 과거와 달리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억구는 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술을 한잔 올리고 그 옆에 누울 것이라고 말했었다. 억구의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이 소주병이라는 것을 통해 억구의 말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큰 키의 사내'가 억구에게 담배를 주며 하루에 한 개씩만 피우라고 말한 것은 죽지 말고 살라는 당부이다. 이는 억구를 체포하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는 것을 통해 사내는 이러한 자신의 결정에 만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재의 의미 파악

답 ④

'옆 산 소나무 위에 얹었던 눈 무더기가 빠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까지 위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에서 볼 수 있듯이 눈 무더기가 쏟아져 버린 뒤에 억구는 자신이 살인범임을 고백한다. 이를 통해 볼 때 ②는 억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아버지가 눈에 대한 말을 하긴 했지만, ③로 인해 억구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 ② ②가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여운을 주지는 않는다.
- ③ ③가 인물들의 여로에 지장을 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⑤가 '큰 키의 사내'로 하여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큰 키의 사내'는 억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억구에게서 전쟁이 남긴 상처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 산소 옆에서 죽을 것을 결심한 억구에게 담배를 건네며 하루에 하나씩만 피우라고 당부한다. 이는 억구의 체포를 포기하면서 억구의 죽음을 만류하는 행위로, 이런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전쟁의 상흔으로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억구이며, '큰 키의 사내'는 억구를 잡기 위해 동행을 하는 것뿐이다.
- ② 억구가 '큰 키의 사내'에게 구장네 집을 알려 주면서 몸을 녹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길을 가는 사내를 배려하는 것이다.
- ③ 억구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은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억구가 '큰 키의 사내'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어깨를 움츠린 채 초라하게 걸어가는 억구의 을씨년스러운 뒷모습에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세 인물의 여정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의 삶의 애환과 그 속에서 싸트는 인간적인 유대감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교도소에서 출감한 정 씨, 떠돌이 노동자 영달, 술집 작부 백화 등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이다. 우연히 동행하게 된 세 인물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연대감을 느낀다. 이후 백화와 헤어지고 정 씨의 고향인 삼포로 향한 정 씨와 영달은 공사판으로 변해 버린 삼포를 마주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삼포'는 마음속 영원한 고향이자 정신적인 안식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삼포가 사라졌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향을 상실하고 미래의 꿈마저 빼앗긴 하층민들의 불행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과 인간적 유대감

등장인물

- **정 씨**: 교도소에서 출감한 노동자. 과거를 그리워하며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지만, 공사판으로 변해 버린 모습을 보며 절망함.
- **영달**: 떠돌이 노동자. 일자리를 찾아 정 씨를 따라 삼포로 감.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백화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는 등 따뜻한 면이 있음.
- **백화**: 술집에서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작부. 정 씨,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나 결국 헤어지게 됨.

'삼포'의 의미

정 씨와 영달이 찾아가는 '삼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공간으로, 정 씨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추억이 담긴 마음의 안식처이며, 영달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의 땅이다. 이는 '삼포'가 산업화 이전의 공동체적 삶이 살아 있는 이상적인 공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삼포'가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소설의 결말은 산업화로 인해 농어촌의 모습이 바뀐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 준다.

1 여정 **2** 산골 마을

- 1 이 글은 '산골 마을 → 폐가 → 역(감천)'으로 이동하는 인물들의 여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동행」 역시 두 인물이 와야리로 가는 여정을 따라가며 사건이 전개된다.
- 2 이 글에서 '산골 마을'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가 들리는 안락한 공간이다. 이는 추위와 싸우며 길을 가야 하는 인물들의 처지와 대비된다. 특히 산골 마을에서 쉬지 못하고 계속 길을 가야 하는 인물들의 처지는 삶의 고달픔을 부각하고 있다.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기회주의적 인물을 풍자하며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태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전쟁 등의 역사적 상황을 겪은 이인국이라는 인물을 통해 오직 자신의 출세와 부를 위해 친일파에서 친소파로, 다시 친미파로 재빨리 변신하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 모범적인 황국 신민으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는 광복 직후 친일파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소련군 군의관의 혹 수술을 하게 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신의 아들까지 소련으로 유학 보낼 정도로 철저한 친소파로 변신한다. 1·4 후퇴 때 서울로 온 후에는 미군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미 국무청 초청 케이스를 할당받기 위해 대사관 직원 브라운 씨에게 고려청자를 선물한다. 이처럼 이인국은 개인적 삶의 안위만을 위해 민족이나 시대의 요청은 외면한 채 신념과 공동체 의식 없이 변절로 점철된 삶을 산다. 이 소설은 이러한 이인국의 삶을 소재로 당시 사회 지도층의 행태를 풍자하며 비판하고 있다.

주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시류에 따라 변절하는 기회주의적 인간 비판

등장인물

- **이인국**: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
- **혜숙**: 이인국 병원의 간호사로 나중에 이인국과 결혼함.

제목의 의미

'꺼삐딴'은 영어의 '캡틴(Captain)'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까삐딴'이 와전되어 표기된 말로, '우두머리(최고)'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꺼삐딴 리'는 '캡틴 리(이인국)'를 일컫는 말로, 인물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냉소적으로 풍자하고 조롱하는 명칭이다.

문제 128~129쪽

- 1** ③ **2** ① **3** ⑤ **4** ⑤ **5** ①

원리로 작품 독해 130쪽

- 1 기회주의자, 개인
- 2 회중시계, 반려, 과거
- 3 브라운, 과거, 친일파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③

이인국 박사는 회중시계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회상 이전은 월남 후 서울에 있는 현재이고, 중략 이후는 소련군이 입성한 북한에서의 과거이다. 이처럼 이 글은 현재와 과거를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밝히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인물 간의 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로 서술자가 주인공의 현재 상황이나 과거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도 않는다.

- ④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현학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인국 박사를 비판적인 지성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①

이인국 박사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와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응시하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빈틈없고 까다로운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② 이인국 박사는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한다. 이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려 깊은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 ③ 소련군 입성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바깥쪽을 내려다보다가 친일의 행적을 없애기 위해 모조지를 찢었으므로, ㉠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처세를 고민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 ④ 그간의 친일 흔적을 없애 버리려는 행동이므로 시류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까지 친일 행적에 동원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인지 아이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 인물 형상화 방법 이해 답 ⑤

[A]는 해방 후 이인국 박사의 고향인 이북에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자 친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國語常用(국어상용)의 家(가)'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 버리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시류에 따라 변신하는 이인국 박사의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오답 확인]

- ① [A]에서 이인국 박사의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예민하지는 않다.
- ② [A]에서 이인국 박사가 종이를 찢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이것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아니다.
- ③ [A]에서 이인국 박사가 운명에 순응하거나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 ④ [A]에서 이인국 박사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 행동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파악 답 ⑤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는 이인국 박사가 일제 강점기,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전쟁 등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넘긴 죽음의 고비를 말한다. 이와 의미가 통하는 한자 성어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을 뜻하는 '생사기로(生死岐路)'이다.

[오답 확인]

- ①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 ②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다.
- ③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을 의미한다.

5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보기>에 따르면 이 글의 소재들은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물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왕진 가방'은 이인국 박사가 38선을 넘어 가지고 온 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된다.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확인]

- ② '시계'는 이인국 박사의 인생의 반례이자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기마다 사고고락을 함께한 것으로 소설의 중요한 구성 장치이다.
- ③ '비상용 캐비닛' 속에 소중한 회중시계를 넣는 모습을 통해 이인국 박사의 주도면밀함을 알 수 있다.
- ④ '신사복'은 이인국 박사가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가졌던 희망찬 기대 및 감회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 ⑤ '라디오'에서 여러 날째 소련군이 입성한다고 알려 주고 있으므로, 이는 이인국 박사가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전해 주는 소재이다.

131쪽

다른 작품 **미스터 방** | 채만식
읽어 보기

작품 해제
이 소설은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출세를 한 기회주의적 인물의 행적을 다룬 작품이다. 사회 변화에 교묘히 적응해 가는 방삼복을 풍자적으로 그리며 당시의 세태와 인간상을 비판하고 있다. '미스터 방'은 방삼복을 가리키는 제목으로, 외세 권력에 기생하여 부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인간에 대한 풍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제
권력을 좇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상과 당시의 세태 비판

등장인물
• **방삼복**: 십여 년을 외국에서 떠돌다 귀국하여 신기료장수가 됨. 미군 소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어 통역관이 된 뒤 온갖 권세를 누림.

이 글의 풍자성
해방 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가족, 민족, 조국보다는 개인의 안락과 이익을 중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방삼복과 같은 인물에 대한 풍자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1 기회주의적 2 미스터 방

- 1 이 글의 방삼복과 「꺼삐딴 리」의 이인국 박사는 모두 시대 흐름에 맞춰 발 빠르게 변신하며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누리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 2 방삼복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재산을 얻고 신분 상승을 하면서 '미스터 방'으로 불리게 된다. 이 '미스터 방'이라는 호칭에는 이런 방삼복을 풍자하고 희화화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나'의 내면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고가'의 의미와 '나'의 내면세계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6·25 전쟁 혼란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화가인 옥희도와 '나'가 맺었던 인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전쟁의 피해가 가시지 않은 시대에 가난 속에서도 진정한 예술가로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옥희도와 그를 사랑했던 젊은 날의 '나'의 이야기가 세월이 흐른 뒤 '옥희도 유작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매개로 '나'의 삶에 다시 환기된다. 젊은 시절의 '나'는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세속적인 삶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기에 옥희도의 가난한 삶을 사랑하였지만 인연은 더 이어지지 못하고, '나'는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황태수와 결혼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옥희도의 유작전에서 그림 「나목」을 보고 그가 추구했던 진정한 삶과 예술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주제

진정한 예술가의 초상과 청춘의 성숙 과정

등장인물

- '나': 전쟁으로 두 오빠를 잃고 불안한 젊은 시절을 보냈으나 현재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인물로, 옥희도의 예술 정신에 이끌려 그를 사랑했음.
- 황태수: '나'의 남편으로 일상적 삶을 중시하는 평범한 인물임. 세속적인 면이 있음.
- 옥희도: 가난 속에서도 강렬한 예술 정신을 지닌 화가로, '나'의 정신적 성장을 가능하게 함.

인물에 따른 '고가'의 의미

- '나': 가족의 애환이 담겨 있고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
- 남편: 터무니없이 넓고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퇴락한 대상

문제 134~135쪽

1 ① 2 ③ 3 ④ 4 ⑤ 5 ②

원리로 작품 독해 136쪽

- 1 고가, 천박함, 낯설
- 2 가족, 남편
- 3 안, 1인칭 주인공

1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①

이 글에서 남편은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로,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삿대질까지 해' 대는 사람이다. ㉞은 추억이 있는 은행나무에 집착하면서 실용적인 편리만으로 정신적인 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여기는 '나'의 면모를 보여 주는데, ㉠에서의 남편의 행동은 '나'가 지키고 싶은 은행나무와 거기에 깃든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오답 확인]

② ㉠에서는 장사꾼들과 흥정하는 모습을 통해 세속적이면서도 속물적인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고, ㉡에서는 남편의 콧구멍과 코털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남편에 대한 '나'의 모멸과 혐오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에서 '나'는 고가(古家)의 해체가 주는 내면적인 고통을 견디며 현실적인 남편에게 맞추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에서 내면 속에 남아 있는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를 느끼며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
- ④ ㉣에서는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라며 남편의 가치관과 판단에 자신을 맞추려 하고, ㉡에서는 세속적으로 살아온 남편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이겨 내려고 남편의 이마에 돌발적인 키스를 퍼붓고 있다.
- ⑤ ㉤에서 '나'가 은행나무만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족들과 자신의 애환 등 내면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남편이 고가를 철거하는 것은 고가가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기 때문이고, '음침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남편이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면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고가를 철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확인]

- ① 남편은 고가를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했다.
- ②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를 통해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 남편의 뜻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고가가 철거되는 것을 보며 '나'가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은 고가가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고가는 철거된 뒤에도 '나'의 내면에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를 남김으로써 갈등 상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⑤ '음침한 고가'에는 고가에 대한 남편의 부정적 인식이, '숙연한 고가'에는 고가에 대한 '나'의 아쉬움과 애뜻함이 담겨 있다.

3 관용 어구를 통한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④

㉡에는 자기를 멋대로 화가를 평가하는 비평가들에 대한 남편의 비판이 담겨 있다. 즉 죽은 후에 그렇게 치켜세울 만한 화가였다면 왜 살아 있을 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으로, 특별한 원칙 없이 대상을 평가하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므로 ㉡에는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확인]

- 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허물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4 소재의 의미 파악

답 ⑤

남편은 고가를 철거하지만 '나'의 고집으로 은행나무는 베어 내지 못한다. ㉔는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빛, 속삭임, 아우성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보기>에서 '눈꽃'도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 위안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수수꽃'은 유리창에 붙어닥친 눈보라를 비유한 표현이다.
- ② '감기'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의미한다.
- ③ '사과'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다.
- ④ '담배 연기'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고달픈 생활과 관련된다.

5 인물의 태도 파악

답 ②

㉔는 남편이 옥희도 씨의 유작전에 대해 “비평가의 농간” 혹은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라며 폄하하자 '나'가 보인 태도이다. 여기에는 예술적 가치를 경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작품
역어 읽기 **젊은 느티나무** | 강신재

137쪽

작품 해제

이 소설은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열여덟 살의 '나'가 어머니의 재혼으로 만난 이복 오빠 현규에 대해 갖는 순수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사회적으로 금지된 사랑이기에 지금은 헤어지면서도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먼 훗날을 기약하는 모습에서 순수하면서도 성숙한 사랑의 내면을 볼 수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사랑을 윤리적 차원이 아닌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의 측면에서 이루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현실을 극복하고 순수한 사랑을 성취하는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

'젊은 느티나무'의 의미

'나'는 현규에 대해 사회적으로 금지된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다. 둘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먼 훗날을 약속하며 각자 현재의 길을 가기로 다짐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된다는 생각에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는다. 따라서 '젊은 느티나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의미를 나타내며 꿈을 잃지 않는 젊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 나무 2 사랑

- 1 이 글의 '나'는 현규와의 사랑을 기약한 기쁨에 느티나무를 껴안고 울면서 웃고 있다. 「나무」의 '나'는 고가가 철거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은행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다. 두 인물 모두 나무에 대한 애착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나'와 현규는 이복 남매로 사회적으로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다. 두 인물은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먼 훗날의 사랑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점에서 성숙한 태도로 사랑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나'가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므로 이야기의 흐름에 따른 '나'의 심리 변화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집안의 몰락으로 인한 피해 의식으로 어머니를 '노인'이라 부르며 외면하는 '나'가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글이 진행됨에 따라 '나'와 어머니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나'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된다. 결말 부분은 '나'와 어머니의 화해를 암시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드러내지 않아서 깊은 여운을 주고 있다.

주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적 화해

등장인물

- **'나'**: 집안이 몰락해서 자수성가해야 했으며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어머니를 외면함.
- **어머니**: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자식을 애뜻하게 여기고 사랑함.
- **아내**: '나'와 어머니 사이의 중재자로, 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낌.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움.

'노인'이라는 말에 담긴 '나'의 심리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따져 서로에게 빛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어머니를 원망하고 애써 외면하며 '노인'이라 칭한다.

문제 140~141쪽

1 ② 2 ⑤ 3 ⑤ 4 ① 5 ④

원리로 작품 독해 142쪽

- 1 물질, 사랑
- 2 노인, 사랑
- 3 눈길, 부끄러움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노인은 아내에게 '나'를 바라다준 후 홀로 눈길을 되돌아오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내는 질문을 하면서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가 제시된다.

[오답 확인]

- ① '나'와 노인 사이의 과거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삽화처럼 나열한 것은 아니다.
- ③ 인물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 있고, 현재와 과거의 일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이 글에 제시된 '나'의 의식은 아내와 노인의 대화를 들은 '나'의 심정으로 외부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 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글로, 공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서술자는 '나'로 고정되어 있다.

2 소재의 의미 파악 답 ⑤

㉠은 노인에게 아들을 생각나게 하므로 ㉡이 아들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확인]

- ① ㉠, ㉡은 모두 '나'를 떠나보내고 노인 혼자 돌아오는 길에서 본 발자국이므로 동일한 공간에 존재한다.
- ② ㉠, ㉡은 모두 '나'와 노인의 발자국이다.
- ③ ㉠, ㉡은 모두 아들을 바라다주러 가는 길에 찍힌 발자국이므로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 ④ ㉠의 '뭍쓸'에는 노인의 자책감, 미안함 등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아들을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책망을 '뭍쓸'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3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⑤

<보기>는 만물을 비추는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햇살에 자신을 비춰 보는 '노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옛집에서 아들을 재우고 객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햇살에 비춰 보면서, 노인은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한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시린 눈'이라는 표현으로 그때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노인은 갈 데가 없어서 동네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② 주고받을 것이 없는 관계라는 것은 아들의 생각이다.
- ③ 노인은 아들에게 해 준 것이 없어 미안할 뿐이지 자신이 베푼 사랑을 알아주지 않은 아들에 대해 서운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나'가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은 가계가 파산을 겪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니라 형이 세상을 떠난 후이다.

4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①

㉡는 자신을 타지로 떠나보내던 날, 어머니가 혼자 눈길을 걸어 되돌아오던 이야기를 듣고 '나'가 보인 눈물이다. '나'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음을 깨닫고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하고 애써 외면해 왔던 일에 대해 회한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어머니가 "눈물로 저 야그 앞길만 빌고 왔제."라고 한 것은 '나'가 고향을 떠난 뒤에 어머니가 눈길을 되돌아오면서 한 말이다. '나'가 과거 고향을 떠나던 날에 이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답 확인]

- ① 노인이 '내게 아무것도 남아 기르는 사람의 뭍'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안의 몰락으로 어머니가 물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로, '나'는 부모의 도리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어머니를 원망하고 애써 외면해 오던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③ 아내가 '그때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묻는 것을 통해 '나'는 과거에 자신이 떠난 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 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가 그동안 외면해 왔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세 편의 작품으로 구성된 연작 소설 『한(恨)』의 첫 번째 작품이다. 독립투사를 암살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막내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자식 사랑과 한스러운 삶이 나타나 있다. 작가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처절한 한을 밀도 있게 그리기 위해서 토속성이 짙은 방언과 뉘두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호흡이 긴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어머니의 시각에서 자세하게 묘사하여 어머니의 한 맺힌 삶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

등장인물

- **어머니**: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상을 나타냄. 평생 고생을 했으면서도 자식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
- **딸**: 어촌의 여유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으나 바다 일에 고생이 많고 시댁의 구박을 견디고 있음.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을 이해하고 옥바라지를 적극적으로 도움.

‘김’의 의미

어촌으로 시집간 딸이 힘들게 김을 채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은 어촌의 힘든 노동상을 상징한다. 특히 한겨울의 추위에도 물속에서 김을 건져 말리는 일을 하는 딸을 안쓰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어촌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 사랑 2 만연체

- 1 이 글의 어머니는 감옥에 갇힌 아들이 한겨울의 추위를 어떻게 날 것인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눈길」의 노인도 고향을 떠나는 아들을 걱정하며 아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들은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이 글은 호흡이 긴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나 사건, 어머니의 심리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1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새내 | 윤홍길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부조리를 다루고 있으므로 ‘나’가 권 씨를 바라보는 시선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도시민들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급격한 산업화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 소설의 권 씨는 이러한 사회 상황이 낳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권 씨는 철거민 입주권을 사지만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에 휘말려 전과자가 된다. 결국 그는 생활고로 강도질을 하게 되고 그의 자존심인 아홉 켄레의 구두만을 남겨 놓은 채 사라진다.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그런 권 씨를 통해 비극적인 현실을 체감한다.

주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

등장인물

- **‘나’**: 셋방살이를 하다 어렵게 집을 마련한 교사로, 권 씨에게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지만 자신의 삶이 피해받는 것을 꺼림.
- **권 씨**: 선량한 소시민이었으나 시위 사건에 휘말려 전과자가 된 인물로, 무능력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자 함.

‘구두’의 의미

권 씨가 소중히 여기는 ‘구두’는 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자부심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비록 시대적 상황 때문에 가난한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만 권 씨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늘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고 다닌다.

문제

- 1 ④ 2 ② 3 ② 4 ⑤

원리로 작품 독해

- 1 비웃음, 분노, 우려
- 2 개인주의, 부정적, 태평, 무능력
- 3 안, 1인칭 관찰자

1 작품의 내용 파악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진통하는 상황이 되자 아내는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라며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낸다. 이에 서둘러 저녁을 마친 ‘나’는 문간방의 권 씨를 불러내어 적절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아내는 문간방에 쌀이나 연탄을 몰래 갖다 주고 난 후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권 씨까지 돕게 된 상황이 과심해서 생명을 앓았다.
- ② 권 씨는 계속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권 씨가 여간내가 아니라고 속삭이기는 하였으나,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가 집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 ⑤ 권 씨가 '나'의 염려에 대해 아무 염려 말라며 변명한 것을 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의 장면이 제시되지 않아 아내의 원망이 누그러졌는지도 알 수 없다.

2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에서는 아내의 말을 통해 예정일도 모를 정도로 출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에서는 '나'가 꿈의 내용을 통해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의 '최악의 선까지 잡자고 몰고 갈 뿐'에서 권 씨 부부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권 씨 부부의 내면은 묘사되지 않았다.
 ④ ㉠에는 권 씨 부부에 대한 '나'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나 있고, ㉡에는 권 씨 부부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지만 '나'와 권 씨 부부와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에는 출산 예정일도 모를 정도로 출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정적 상황이, ㉡에는 최악의 선까지 몰고 가는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과 ㉡에는 상황에 대한 아내와 '나'의 부정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

3 세부 내용의 이해

답 ②

돈이 거절한다는 것은 권 씨네가 해산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②는 권 씨네가 해산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임을 나타낸다.

4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답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일이 잘못될 경우 자신이 입게 될 피해나 곤란함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는 '나'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권 씨네를 의식하는 행위가 공동체적 유대감의 표현이고, 권 씨네의 상황에 대한 거리 두기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는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하는 권 씨를 통해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권 씨네를 염려하면서도 권 씨네를 돕고 나서 과심해하며 생명을 앗는 아내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과 남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④ 가난한 형편 탓에 별다른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해산을 맞이하려는 권 씨 부인의 모습에서 궁핍한 소외 계층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작품
 읽어 읽기

직선과 곡선 | 윤홍길

149쪽

작품 해제

이 소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모순된 현실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연작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권 씨를 내세워 가진 자의 횡포와 위선 등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피해자인 권 씨가 부조리한 상황에 저항하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이를 야기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에 대한 비판

등장인물

- '나'(권 씨): 자신의 무능력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자살을 시도하다 깨어난 뒤, 아끼던 구두를 불태우며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다짐. 오 사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가해자로 둔갑시키지만 '나'는 현실과 타협하며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임.
- 오 선생: '나'가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둔갑한 현실에 분노함.

'신문 기사'의 의미

오 사장 측이 주도해서 신문에 낸 기사에는 '나'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파렴치한이고, 오 사장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숨은 독지가로 미화되어 있다. 이 기사에 대해 '나'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 현실과 타협하려 하고, 오 선생은 분개해 맞서 싸울 것을 종용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물의 확연한 시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1 소시민 2 타협

- 1 이 글의 '나'와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권 씨는 동일 인물로, 도시화, 산업화 사회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전형이다. '나'는 가진 자의 횡포에 고통받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 2 자신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둔갑시킨 신문 기사의 왜곡을 목인하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나'와 이에 매우 흥분하는 오 선생의 모습을 통해 인물들의 관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3 마지막 땅 | 양귀자

150~155쪽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강 노인의 땅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갈등이 일어나므로 땅의 의미와 갈등의 양상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연작 소설인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으로, 도시화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던 1980년대 도시 변두리를 배경으로 ‘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강 노인이 결국 땅을 팔기로 결심하는 결말을 통해 급속한 도시화와 물질 만능주의로 ‘땅’이 지닌 생명력과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세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수록 부분에는 땅을 팔지 않으려는 강 노인과 그가 땅을 팔기를 바라는 이웃 및 가족의 갈등을 통해 땅을 중시하는 강 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태가 나타나 있다.

주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의 몰락

등장인물

- **강 노인**: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과 농사를 짓는 땅을 소중히 여김. 전통적 가치관을 지님.
- **강 노인의 부인**: 땅을 팔아서 자식들을 도와주자고 함. 땅의 소중함보다 현실적 가치를 중시함.
- **용규, 경국이 엄마(용규의 처)**: 강 노인의 아들과 며느리. 사람들에게 돈을 벌리고 제때 갚지 않음.

제목의 의미

살고 있던 곳(원미동)이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땅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의 땅이 강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땅’이라는 의미로, 땅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강 노인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

152~153쪽

1 ⑤ 2 ③ 3 ③ 4 ⑤ 5 ②

원리로 작품 독해

154쪽

- 1 연탄재, 고향, 애착
- 2 생명, 물질적, 땅
- 3 연탄재, 이익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⑤

이 글은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외부의 서술자가 강 노인을 비롯한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

[오답 확인]

- ① 서술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작품 속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1인칭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2 서사 구조 이해

답 ③

강 노인은 경국이 엄마가 반상회에서 땅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김 씨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고향을 지른다. 그러므로 ㉠에서 경국이 엄마가 강 노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땅과 관련한 말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강 노인은 땅을 팔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확인]

- ① 은혜 엄마가 ‘딸이 다니는 예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경국이 엄마를 알게 된 것이므로 ㉡는 자식이 연결 고리가 되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은혜 엄마는 ‘이 동네 지주의 큰며느리’라는 것을 믿고 경국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는 강 노인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청소원 김 씨가 연탄재를 치우고 있는 강 노인에게 어젯밤 반상회에서 일을 전달했다.
- ⑤ ‘이판사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에서 알 수 있듯이 강 노인의 부인은 은행 대출로 경고장을 받은 아들의 상황을 감추지 않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는 강 노인의 부인이 아들의 빚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토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세부 내용 이해

답 ③

강 노인의 큰아들 용규에게 철거 보상금을 빌려준 사람은 목동에서 철거 보상금을 받은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이다. 고흥댁은 김영진의 돈을 삼 부 이자로 놓아주겠다며 용규에게 건넸다.

[오답 확인]

- ① 강 노인은 밭에 연탄재가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 ② 김 씨가 땅을 내놓았느냐고 묻자 강 노인은 매우 분노하여 벽력같이 고향을 질렀다.
- ④ 강 노인은 서울 갔을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다고 생각한다.
- ⑤ 은혜 엄마는 강 노인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다며 며느리가 빌려 간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했다.

4 소재의 의미 파악

답 ⑤

강 노인은 땅에 대해 애착을 보이면서 땅을 팔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식들의 빚을 갚고 식구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땅을 팔자고 하는 사람은 강 노인이 아니라 강 노인의 부인이다.

[오답 확인]

- ① 강 노인은 땅을 통해 자식에게서 느낄 수 없는 위안과 힘을 얻고 있다.
- ② 강 노인은 땅을 통해 농사를 짓는 재미와 보람을 얻고 있다.
- ③ 강 노인에게 땅은 도시화 과정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 내고자 하는 공간이다.
- ④ 강 노인은 ‘살아 있는 밭’에 고추 모종을 심고 키우고 있다.

5 한자 성어를 통한 작중 상황 이해

답 ②

은혜 엄마는 이자 몇 푼을 욕심내다가 더 큰 돈을 떼이게 되었다. 이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의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룰 때 사용하는 말이다.
- ⑤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다른 작품 **돌다리** | 이태준 155쪽
읽어 읽기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전통 세대의 중요한 가치인 '땅'을 둘러싼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는 아들과 땅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통해 물질만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
 땅에 대한 애착과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등장인물

- **아버지**: 평생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 온 인물로, 물질적 이익을 위해 땅을 사고파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땅을 팔자는 아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함.
- **아들**: 땅을 금전적인 가치로만 바라보는 인물로,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제안함.

'돌다리'의 의미
 '돌다리'는 아버지가 어릴 때 글을 배우러 다니던 다리이며, 어머니가 시집을 때 가마를 타고 건너온 다리이다. 또 조상님의 상들을 옮긴 다리이면서 아버지 자신이 죽으면 건너야 할 다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돌다리'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가족사의 일부이자, 전통적인 세대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1 땅 2 나무다리

- 1 이 글의 아버지는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아 달라고 요청하는 아들에게 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땅을 못 팔겠다고 한다. 「마지막 땅」의 강 노인도 굳은 신념을 갖고 평생 가꿔 온 땅을 팔지 않으려 한다.
- 2 아버지는 땅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아들은 땅을 금전적, 물질적 가치로 생각하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돌다리'와 근대적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나무다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14 자전거 도둑 | 김소진 156~161쪽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나'가 유년 시절에 겪었던 사건과 내면의 상처를 그리고 있으므로 사건에 따른 인물의 심리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영화 「자전거 도둑」을 보면서 아버지와 흑부리 영감에 얽힌 일화들을 떠올리며 유년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캐러멜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물건이 부족하게 와서 흑부리 영감을 찾아가는 사건과 그 과정에서 대면한 흑부리 영감의 몰인정한 모습, 아버지의 애처로운 모습 등을 떠올리며 유년 시절 자신이 겪었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에 받은 가슴 아픈 상처

등장인물

- **'나'**: 유년 시절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잔심부름을 했음. 흑부리 영감의 협박에 결국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고 연민을 느끼며 상처를 받음.
- **아버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함. 표현이 서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

제목의 의미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똑같은 이탈리아 영화 「자전거 도둑」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전개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나'와 서미혜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체이다. 또한 '나'의 유년 시절의 상처를 환기시켜 주는 소재이기도 하다.

문제 158~159쪽

1 ① 2 ⑤ 3 ③ 4 ⑤

원리로 작품 독해 160쪽

- 1 잔심부름, 눈물, 인정
- 2 부끄러움, 연민
- 3 사랑

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흑부리 영감에게 소주 스무 병 값을 치렀으나 열여덟 병만 온 일이 벌어진다. 이에 '나'가 흑부리 영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버지까지 내려가 하소연하지만 흑부리 영감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까지 덧붙인다. 이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자신의 과오라고 인정한 뒤 가게로 돌아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

- [오답 확인]**
- ②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라는 부분에서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열여덟 병만 온 것을 확인한 아버지가 당황한 내색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캐러멜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은 '나'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혼내는 장면을 통해 아버지가 '나'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는 흑부리 영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지만, 흑부리 영감은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아버지에게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나'는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다니지만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울해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울해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⑤

흑부리 영감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받아들인다. 구멍가게로 돌아와 기어코 눈물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둘 사이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흑부리 영감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나'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나'는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기억을 통해 그것이 아버지의 '생존 이유'였음을 짐작하고 있다.
- ② 아버지가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와 같은 이유를 대며 캐러멜 네 개를 내 손에 쥐어 준 모습에서 '나'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③ '그땠 그제 죽도록 싫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허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등을 통해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나'에게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흑부리 영감의 매몰찬 태도는 어린 '나'에게 이해타산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3 장면의 이해

답 ③

'나'는 구멍가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나선 처지이다. 이와 달리 친구들은 야구 글러브나 신형 장난감을 산 모습이다. '나'가 시장에서 이런 친구들이나 공부할 하러 가는 여자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죽도록 싫었다는 것으로 보아, [A]에서는 '나'와 친구들의 대비되는 상황을 통해 부끄러움이라는 '나'의 내면 심리가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⑤

㉠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가 낮이 나간 표정으로 소주를 쓰다듬으며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유년 '나'의 심리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은 <보기>의 첫 번째 서술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이라는 표현에서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보기>의 두 번째 서술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독자는 유년 '나'가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쉼 채 서 있었'던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③ ㉢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은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으므로 독자가 아버지의 외양 묘사를 통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④ ㉣은 <보기>의 세 번째 서술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이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침을 튀기며 말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독자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다른 작품 읽어 보기

취잡기 | 김소진

161쪽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주인공인 민홍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버지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게에서 쥐를 잡던 민홍은 같은 행위를 했던 아버지의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회상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아버지의 정신적인 상처를 깨닫게 된다. 아버지는 전쟁 포로로서 우연히 흰쥐를 따랐다가 남한을 선택한 대가로 고향에 가지 못한 가슴 아픈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민홍은 아버지 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한과 상처를 이해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주제

개인의 내면에 투영된 전쟁과 분단의 아픔

등장인물

- **아버지**: 함경도 출신으로 6·25 전쟁 때 반공 포로로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음. 가족을 버리고 남한을 선택한 이유를 포로수용소에 나타난 흰쥐 때문이라고 생각함. 주관이 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며 고지식함.
- **민홍**: 대학에서 시위를 하다가 화상을 입고 고향에 내려와 있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상처를 이해하고 연민을 느낌.

'취잡기'의 의미

아버지에게 쥐는 남쪽을 선택하게 되는 우연한 기회를 제공하는 소재로, 이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 실향민으로서 회한과 응여리를 지니고 사회 부적응자로 살게 된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다친 후 무기력하게 살던 민홍에게 취잡기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수단이다. 민홍은 취잡기를 통해 과거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된다.

1 연민 2 흰쥐

1 이 글의 민홍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자전거 도둑」의 '나'는 흑부리 영감에게 수모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며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2 아버지는 남쪽과 북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흰쥐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남쪽을 선택했다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다.

15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62~167쪽 | 성석제

독해 포인트

이 소설은 전의 양식을 차용하고 민담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적을 그리고 있으므로 인물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고전 산문의 일종인 '전(傳)'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차용한 작품이다. '전'은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그의 행적에 대해 논평하는 글로, 이 소설은 황만근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에게서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사실은 농촌의 현실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며, 그러한 황만근이 농촌 쫓겨 대회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학적인 문체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을 드러내는 한편, 잘못된 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묘비명의 형식을 띠는 결말 부분을 통해 황만근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바람직한 삶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내고 있다. 작가 특유의 독특한 서술 방식과 구성진 입담, 사투리와 비속어를 활용한 현실감 있는 대화, 민담적 요소를 활용한 비현실적인 이야기 등이 결합되어 다른 작품과 차별되는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 비판

등장인물

- **황만근**: 어수룩하지만 순박한 인물로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음. 농민 쫓겨 대회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함.
- **민 씨**: 도시에서 귀농한 인물로 황만근의 말이나 행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황만근을 훌륭한 인물로 평가함.

제목의 의미

이 소설에서 민 씨는 황만근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데, 황만근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달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대인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작가는 황만근의 말을 통해 이러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문제 164~165쪽
1 ⑤ 2 ② 3 ④ 4 ⑤ 5 ⑤

원리로 작품 독해 166쪽
1 토끼, 소원, 집
2 주먹밥, 송편, 아들, 비현실적
3 민 씨

1 서술상 특징 파악

황만근은 '그기 뭐 소리라?', '니는 인자 죽었다,' 등과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황만근의 어머니 또한 '니 와 인자 왔노?'와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는 '이 문디 겹은 놈의 자숙아'와 같은 비속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면 인물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거대한 토끼가 나타나 말을 하는 등의 전기적 요소가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황만근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함은 아니다. 이 소설에서 황만근은 영웅적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 ② 황만근이 토끼를 만나서 밤을 새는 장면과 이후의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사건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 ③ 황만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황만근과 토끼 사이의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 생생한 현장감을 살릴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말했다', '있었다' 등과 같이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2 서술상 특징 파악

이 글에서 민 씨는 황만근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의 '민 씨는 모른다.'는 팔죽 할머니에 대해 민 씨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 부분으로, 이를 통해 민 씨 또한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를 통해 ㉠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민 씨가 자신의 말로 바꾸어 전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과 ㉡은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해도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
- ④ ㉠과 ㉡은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민 씨에 대한 부가 설명이므로, 이 부분이 대결 과정 자체에 몰입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 ⑤ ㉠과 ㉡은 민 씨가 황만근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3 구절의 의미 파악

[A]의 '이야기'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을 의미하며, 그 안에는 송편을 세 번 먹으면 황만근이 아내를 얻을 것이라는 [B]의 '말'이 포함된다. 그리고 [B]의 '말'처럼 세 해가 지난 뒤에 어떤 처녀가 황만근의 집으로 들어가자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를 통해 [B]의 토끼의 '말'의 실현은 [A]에서 황만근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A]에서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수십 번 되풀이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었다는 구절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B]의 '말'은 '토끼의 말'이므로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B]의 '말'이 실현된 후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내용으로 보아, 동네 사람들은 [A]에서 황만근이 들려준 '이야기'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4 배경의 기능 파악

황만근은 왜 물을 안 떠다 뱉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물을 뜨러 '우물'에 간 것이다.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요청을 전하러 '우물'에 간 것이 아니다.

[오답 확인]

- ① '여기'는 황만근이 토끼를 만난 곳으로, 황만근이 토끼와 대결을 하는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이다.
- ② '마을'은 황만근의 집이 있는 곳으로, 황만근이 돌아가야 할 일상적 공간이다.
- ③ '주변'은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있는 곳으로, 황만근이 지난밤 토끼와 대결을 펼친 체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 ④ '마당'은 황만근의 집 마당으로,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황만근이 불안을 느끼는 공간이다.

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주먹밥 덩어리'는 어머니가 황만근을 기다리다가 먹은 밥으로, 어머니는 이로 인해 목이 막혀 죽을 뻔했으나 집으로 돌아온 황만근이 이를 토하게 하여 목숨을 구하게 된다. 따라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내는 것이 황만근에게 속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보기>를 통해 비현실적 이야기가 민담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만근이 말을 하는 거대한 토끼와 대결을 펼치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비현실적 이야기는 민담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를 통해 반복적인 어구 사용이 언어의 주술성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언어의 주술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토끼는 '나는 인자 죽었다.'라는 황만근의 말을 들은 후 다급하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놓아줄 것인지 묻고, 이에 황만근은 소원 세 가지를 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황만근이 토끼를 위협한 발언은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사람을 향해 말을 하며 목숨을 위협하는 토끼는 신이한 존재에 해당한다. 황만근이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던 토끼에게 '바보 자숙아'라고 말하는 것에서 신이한 존재인 토끼의 우위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유자소전'은 '유자의 작은 전기(傳記)'라는 뜻인데, '유자'는 주인공인 유재필을 높여 이르는 말이며, '전(傳)'은 인물의 일대기에 평가를 덧붙이는 고전 산문 양식의 하나이다. 서술자는 유자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정의롭고 약자를 배려하는 유자를 통해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사투리와 비속어를 곁들인 해학적 말투,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서술자의 역할, 언어유희의 사용 등 전통적인 서사 방식을 계승해 현대 사회의 모순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 비판

등장인물

- '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로, 친구인 유재필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생애를 전달함.
- 유자(유재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천연덕스럽고 너스레 좋은 성격을 지님.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소신 있게 표현함.
- 총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로, 사치심과 허영심이 강하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만한 성격을 지님.

이 글의 특징

형식상 특징	표현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의 형식을 차용함. • 인물의 생애를 일대기적 형식으로 서술함. •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와 방언을 사용함. • 언어유희를 사용함. • 인물의 희화화를 통해 풍자함.

1③ 2 언어유희

- 1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황만근과 말을 하는 거대 토끼의 대결'이라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의 내용은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 2 [A]의 '뵈어넨뵈(베토벤)', '차에코플구쉬어(차이콥스키)'에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1 파초 | 이태준

172~174쪽

독해 포인트

이 글은 파초를 좋아하는 글쓴이가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하여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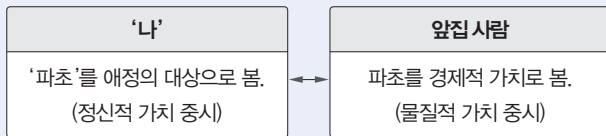
작품 해제

이 글은 파초에 대한 사색과 경험을 제시하면서 자연물을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다. 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파초를 오랜 시간 기른 이야기를 하면서 파초의 멋에 대한 글쓴이의 개성적 평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몸과 마음을 서늘하게 해 준다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비가 올 때 더욱 싱싱해지는 파초의 멋을 감각적이면서 낭만적으로 전달한다. 후반부는 이웃 사람과의 일화를 통해 파초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파초를 물질적 가치로 평가하는 이웃 사람과 정신적 가치로 보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대비되고 있다. 멋스러운 문장과 사실적인 대화, 자유로운 구성 등을 통해 무형식의 문학이라는 수필의 멋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주제

파초에 대한 감회와 기쁨

‘나’와 ‘앞집 사람’의 가치관



문제 173쪽

1 ⑤ 2 ① 3 ③

원리로 작품 독해 174쪽

- 1 파초, 파초, 거절
- 2 애정, 물질적
- 3 빗방울, 정신적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⑤

이 글은 앞집 사람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하여 파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파초를 정신적 가치로 보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일화에서 글쓴이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확인]

- ① 앞집 사람과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여 생생함과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글의 마지막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해서 파초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파초를 두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앞집 사람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대비되어 제시되고 있다.
- ④ 앞집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파초를 애정의 대상으로 보고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앞집 사람은 파초를 판 돈으로 미닫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을 달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나’는 파초에 통기는 빗소리를 듣는 데 방해가 된다는 까닭으로 ‘챙’을 달지 않고 있다. 즉, ‘챙’은 ‘나’가 파초의 멋을 즐기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데 방해가 되는 소재로 속물적인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② ‘나’가 파초와 함께 특별한 인연을 맺어 두 번의 여름을 보냈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음에도 파초를 팔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파초는 ‘나’와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 ③ 글의 앞부분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을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 안에 누웠’다며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글쓴이의 심미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오 원’은 파초를 팔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이다. 이는 파초를 즐기며 얻을 수 있는 정신적 가치와 대비되는 물질적 가치, 속물적 현실을 의미한다.
- ⑤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오 원’이라는 경제적 이익보다 파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여유 같은 정신적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나’는 파초에 통기는 빗방울 소리를 통해 마치 가슴에 비가 뿌려지는 것 같은 오묘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파초의 멋과 가치를 깨달으며 정신적 만족감을 얻고 있다. 즉, 파초를 통한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다른 화초를 통해서 얻은 수 없는, 파초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감각이며 멋이다.
- ② ‘나’가 비를 기다리는 까닭에 해당한다. ‘나’는 폭염 아래에서도 파초의 그늘을 통해 서늘함을 느낀다.
- ④ ‘나’는 파초의 멋과 가치를 즐기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다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촉각’을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지는 않다.

독해 포인트

이 글은 균열을 스스로 치유한 비자반이 특급품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통해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가치관과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에 주목하여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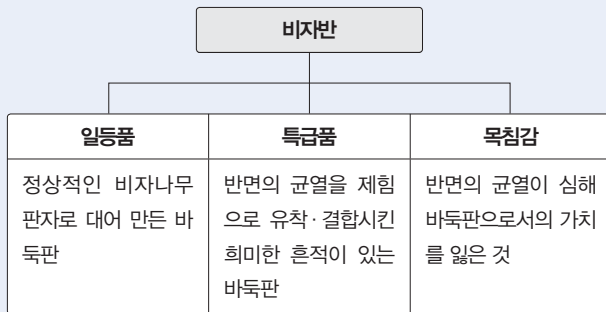
작품 해제

이 글은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균열의 치유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에서 유추하여 인생의 과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역설한 교훈적인 수필이다. 글쓴이는 글의 앞부분에서 탁월한 유연성 때문에 일등급의 평가를 받는 비자반에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 균열을 방치하면 하찮은 목침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균열을 스스로 치유하면 그 흔적이 탁월한 유연성의 징표로 평가되어 특급품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비자반으로부터 깨달은 내용을 우리의 삶에 결부시켜 사람도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과실을 범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의 속성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교훈적인 글이다.

주제

삶의 과실을 극복할 줄 아는 유연한 태도의 필요성

비자반의 종류



문제 176쪽

1 ① 2 ④ 3 ②

원리로 작품 독해 177쪽

- 1 특급품, 과실
- 2 균열, 특급품, 과실
- 3 제힘, 한자어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①

이 글은 비자나무 바둑판이 유연성을 통해 균열을 스스로 치유해 특급품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제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확인]

- ② 현실의 세태를 언급한 부분은 없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③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지 않으며 삶의 의지도 다지고 있지 않다.

- ④ 자신이 알고 있는 비자반과 관련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역설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비자반에서 유연한 삶의 태도를 이끌어 내고 있을 뿐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2 세부 정보 파악

답 ④

특급품은 비자반의 반면에 생긴 균열을 스스로 유착,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균열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같은 흉터가 남아 있게 되는데, 그 흉터가 특급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오답 확인]

- ① 비자나무 바둑판은 다른 나무로 만든 바둑판에 비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유연성과 연함이 있어 바둑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 ② 비자반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고는 반면이 갈라져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 ③ 일등급과 특급품을 구분 짓는 것은 가느다란 흉터의 여부일 뿐, 반재나 치수, 연륜 등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
- ⑤ 목침감은 바둑판으로 가치가 없어져 베개로 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반면의 균열이 커서 치유하지 못한 비자반은 목침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3 소재의 의미 파악

답 ②

글쓴이는 비자반이 특급품이 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균열을 회복한 비자반이 특급품으로 인정받듯이 예상치 못한 과실을 범하더라도 이를 유연하게 이겨 낼 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오답 확인]

- ① 과실로 인격이 더 커지고 깊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과실은 예찬할 것도, 장려할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과실을 범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아니다.
- ④ 비자반이 스스로 균열을 치유하듯 과실은 제힘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 ⑤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라고 하며 과실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03 정직한 사기한 | 오영진

178~181쪽

독해 포인트

이 글은 죄가 없는 순박한 청년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과정을 통해 광복 직후의 혼란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인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세태 풍자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글은 1막으로 구성된 단막극으로 세 가지 부류의 인물이 나온다. 첫 번째 인물인 청년은 결혼 약속을 했던 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지만 혼자 잘못을 감당하고 교도소에 다녀온 순박하고 어리숙한 인물이다. 전과 때문에 취직을 못하다가 들어간 회사에서 가족 사기단에게 속아 사기꾼으로 몰려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된다. 두 번째는 사장과 사원으로 등장하는 가족 사기단이다. 위조지폐범인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위조지폐를 시험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들어 청년을 채용한다. 청년에게 월급으로 준 위조지폐가 발각되자 청년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그에게 죄를 덮어씌운다. 마지막 인물인 사복형사는 허름한 차림의 청년에게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장과 사원들에게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폭력적인 권력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들을 통해 각종 부조리가 만연하던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우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주제

광복 직후의 혼란한 사회와 타락한 가치관 풍자

등장인물

- **청년**: 순박하고 어리숙한 인물.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갔다 나왔으나 가족 사기단에게 속아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됨.
- **사장과 사원들**: 아버지와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 사기단. 위조지폐를 시험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들어 청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만 죄의식은 전혀 없음.
- **사복형사**: 외면만 보고 청년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인물. 무능한 권력을 대표함.

제목의 의미

제목인 '정직한 사기한'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정직한 사람이지만 부조리한 사회 때문에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는 청년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제목이면서, 비상식적이면서 부도덕한 일이 만연한 광복 직후의 사회상을 비판하는 제목이기도 하다.

문제 179~180쪽
1 ⑤ 2 ② 3 ② 4 ③

원리로 작품 독해 181쪽
1 어리숙, 위조지폐, 폭력적
2 청년, 부도덕
3 역설적, 사기한(사기꾼), 부조리

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원 갑과 사원 병은 위조지폐의 발각을 두고 서로에게 잘못을 탓하다가 나중에는 청년 때문에 위조지폐가 실패했다며 청년을 모자란 사람이라고 탓한다. 이들이 청년을 동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확인]

- ① 사복은 자신이 회사의 사원이라는 청년의 말에는 뺨을 같기며 거짓말이라고 야단을 치지만 청년을 처음 본다는 사장의 말은 의심하지 않고 있다.
- ② 청년은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씨의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씨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다.
- ③ 사장은 자신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청년을 처음 본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청년이 사복에게 끌려가자 사장은 "결국 또 실패지."라고 말하며 위조지폐의 실패를 확인하고 있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유령 회사'는 항도적 정서보다는 도회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다. 또한 가족 사기단이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짜로 만든 회사로 작가의 민족의식과는 무관하다.

[오답 확인]

- ① 제목인 '정직한 사기한'에는 모순되는 표현처럼 보이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정직한 사람이 사기한(사기꾼)으로 몰리게 되는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사복은 청년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광복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에 나타난 폭력적인 권력을 상징한다.
- ④ 정직하고 선량한 청년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모순된 현실 상황을 통해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⑤ 청년을 속이고 위조지폐 실패의 책임을 청년에게 떠넘기는 사장 가족의 모습에서 타락한 가치관, 거짓과 부정이 난무하는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비판적으로 드러난다.

3 갈래의 특징 파악 답 ②

청년이 위조지폐로 양복을 구입하려는 상황은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무대 공간에서 형상화되지 않고 사복의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4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파악 답 ③

'적반하장'은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①의 인물들은 자신들 때문에 청년이 사기꾼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패마저 청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④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04 북어 대가리 | 이강백

182~185쪽

독해 포인트

이 글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인물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상반된 가치관에 주목하여 읽는다.

작품 해제

이 글은 자양과 기임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개성을 잃고 기계 부품처럼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현대인의 삶을 비판한 작품이다. 참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참고 안에서 일을 한다. 밖을 볼 수 없는 폐쇄적 공간인 참고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상자를 실은 트럭이 들어온다. 참고지기들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상자들을 정해진 위치에 운반하고 정리하는 일을 매일 반복한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자각 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만 반복할 뿐이다. '참고'는 폐쇄적이면서 획일화된 현대 사회를 상징한다. 이런 단조로운 삶을 대하는 두 인물의 태도는 다르다. 참고지기 생활을 답답해하던 기임은 자유와 쾌락을 좇아 참고 밖으로 떠나고, 홀로 남겨진 자양은 참고 밖의 세상이 부정적인 세상이라면 자신의 성실함이 그 부정적인 것에 이바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다시 상자를 정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참고 밖에는 또 다른 참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양의 말은 자신을 둘러싼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대인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산업 사회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비판

등장인물

- **자양**: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인물이지만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는 부족함.
- **기임**: 참고지기로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유와 쾌락을 좇아 참고를 탈출함.
- **다링**: 쾌락을 추구하는 바람둥이로, 술에 취한 기임을 참고에 데려온 뒤 자양에게 접근하다 실패함. 그 후 기임과 함께 참고를 떠남.

제목의 의미

제목인 '북어 대가리'는 자양이 술을 많이 먹은 기임에게 해장국을 끓여 주던 재료이자, 몸뚱이는 상실한 채 그저 허무한 생각만 가득 찬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문제

184쪽

1 ② 2 ① 3 ①

원리로 작품 독해

185쪽

- 1 성실, 순응, 불만, 욕심
- 2 안, 밖
- 3 참고, 북어 대가리

1 극적 형상화 방식 이해

답 ②

자양은 기임의 생일날 주려고 했던 스웨터를 이별 선물로 주는데, 이는 기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비꼬는 투로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기임은 자양의 잔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양에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북어 대가리'라는 말 뒤에 붙은 물음표로 보아 다링은 자양이 북어 대가리를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 ④ 다링이 "어서 들고 나가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재촉하니 빨리 떠나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채는 듯한 말투로 대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소리)'라는 지시문으로 미루어 볼 때 기임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대 밖의 기임은 대사가 무대 안까지 전달되도록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

2 인물의 태도 이해

답 ①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하던 자양이 다시 참고 속에서 상자 쌓기를 시작한 것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생각의 표현이다. 이는 현실에 순응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확인]

- ② 이전과 같은 행동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삶의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없다.
- ③ 내면 의식이 붕괴되던 자양이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일을 하는 것으로 자아 분열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세계와의 대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자신의 신념과 태도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신념을 지키기로 하고 다시 상자를 쌓는 것이므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잔소리'는 이성적 자아를 상징하는 자양이 육체적 자아를 상징하는 기임에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잔소리는 무기력한 정신을 일깨우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육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확인]

- ② 기임이 떠난 후에 자양은 자신의 신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독백을 하며 불안해한다. 따라서 이 독백을 기존의 삶의 방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양의 내면 의식의 붕괴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다.
- ③ 자양과 기임이 함께 일을 했던 '참고'는 정신과 육체가 함께 머무는 인간의 내면으로 상징된 공간이다. 육체를 상징하는 기임이 참고를 떠났다는 것은 정신만 남겨 두고 육체가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보면서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이라고 말을 한다. 이를 통해 '북어 대가리'는 자양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기임이 떠나고 혼자 남은 자양은 육체, 즉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불완전한 정신을 의미한다.
- ⑤ 정신을 상징하는 자양과 육체를 상징하는 기임이 함께 생활한 '참고'는 정신과 육체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1 회

1~3

188~189쪽

(가) 산길에서 | 이성부

작품 해제

이 시는 산길을 걸으면서 앞서 길을 만들어 간 이들을 떠올리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작품이다. 시의 내용은 8행을 기준으로 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전반부와 이를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화자는 산길을 오르면서 그 길을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이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산행에 가슴 벅찬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화자의 관심은 산길을 만든 이들로 향한다. 인간들의 역사도 힘겹게 살아온 이름 없는 수많은 민중들의 삶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앞서간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 또한 '그이들'을 따라 또 하나의 길을 만들고 있음을 생각하며, 고난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주제

산길을 걷는 과정에서 얻은 삶의 가치와 의미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산길을 오르며 길을 만든 이들을 생각한다.	산길을 오르면서 길을 만든 이들을 생각하고 가슴 벅찬 신명을 느낀다.
	먼저 살다 간 이들이 무엇 하나씩 다져 놓고 사라졌음을 깨달음.
	앞서간 이들을 따르는 일이 힘들어도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함.

(나) 길 | 윤동주

작품 해제

이 시는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본질적인 순수한 자아를 찾아가는 성찰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1연에서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화자의 모습이, 2연과 3연에서는 화자가 걷는 길의 모습이 드러난다. 끝없이 이어진 '돌담'과 굳게 잠긴 '쇠문'은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연에서는 '길'이라는 공간을 시간의 개념으로 표현하며 탐색의 과정이 지속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그리고 6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담 너머에 있는 '내(나)'를 찾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화자가 추구하는 본질적이고 순수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는 것이 자신이 사는 깨달음을 마지막 연에서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고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시이다.

주제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담 저쪽에 있는 자신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섬.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지만 돌담과 쇠문 때문에 쉽게 찾지 못해 안타까워함.
	자신과 현실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낌.
	담 저쪽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일이 자신이 사는 깨달이라 생각하고 의지를 다짐.

1 ① 2 ② 3 ③

1 표현상 공통점 파악

답 ①

(가)는 '길을 만든 이들'을 '조릿대밭 뚝뚝 소리치는 바람'이나 '이름 모를 풀꽃들'로 표현하여 이들과의 교감을 표현하면서 길을 만든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부분이 없다.

[오답 확인]

- ② (나)에서는 '-너니다' 형태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고, (가)에서도 '-다' 형태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나)만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색채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나)에서는 '하늘'을 '푸릅니다'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이란 하나의 심상을 다른 심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⑤ (나)는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구체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2 화자에 대한 이해

답 ②

[B]에서 화자는 산길을 따라가며 감동을 느끼고 있다. 이는 산길을 걸으며 만나는 바람이나 이름 모를 풀꽃들로 비유되는, 앞서 살아간 이들의 삶이 모여 자신이 걷는 길이 만들어졌음을 알면서 느끼는 감동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삶의 고달픔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신명나지 않았더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고~나는 배웠다'에서 '무엇 하나'는 앞서 살아간 사람들이 살면서 남긴 발자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아서 안 되는지를' 안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5연에서 화자는 돌담을 더듬으며 눈물짓고 하늘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비애와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굳게 닫힌 '쇠문'은 화자가 '담 저쪽'에 있는 본질적 자아를 찾는 것을 방해하므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 ④ '하늘'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화자가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에서 화자의 자기 성찰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⑤ 6연의 '담 저쪽'의 '나'는 '잃어버린 나'이다. 따라서 화자가 길을 걷는 행위는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4~7

189~191쪽

리기다소나무 숲에 갔다가 | 김연수

작품 해제

이 소설은 '도라쿠 아저씨'라는 전직 사냥꾼의 가치관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군 입대를 앞둔 '나'는 어느 대학생의 분신자살과 실연한 삼촌의 자살 소동을 접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러다 삼촌, 도라쿠 아저씨와 함께 리기다소나무 숲으로 멧돼지 사냥을 나가고, 유명한 사냥꾼이었던 도라쿠 아저씨에게 새끼를 이용해 잡으려던 어미 멧돼지의 눈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경험을 통해 도라쿠 아저씨는 살아 있는 것은 모두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사냥을 그만두게 된다. 이 소설은 도라쿠 아저씨의 말을 통해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생명이 사랑이나功名심 등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주제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

등장인물

- '나': 도라쿠 아저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이자 관찰자. 도라쿠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말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함.
- 도라쿠 아저씨: 과거에 유명한 사냥꾼이었음. 새끼를 이용해 잡으려던 어미 멧돼지의 눈을 보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사냥을 그만둠.
- 삼촌: 집안의 반대로 윤 마담과 헤어진 뒤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함. 멧돼지의 눈에서 윤 마담을 떠올리고 총을 쏘지 못해 다리를 다치게 됨.

'리기다소나무'의 의미

리기다소나무는 미국에서 유입된 외래종 소나무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산에 정책적으로 많이 심은 나무이다. 하지만 목질이 좋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떨감용으로 사용한다. 작가는 이처럼 쓸모없는 리기다소나무조차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치 없는 생명은 없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 ② 5 ② 6 ③ 7 ⑤

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나'는 도라쿠 아저씨에게 멧돼지를 죽이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도라쿠 아저씨가 과거에 멧돼지를 사냥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 이유가 밝혀진다. 따라서 도라쿠 아저씨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제시된 부분은 '나'와 도라쿠 아저씨가 산을 내려오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
- ③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④ 도라쿠 아저씨와 '나'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면서 아저씨의 이야기를 '나'가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사건이 반전되지는 않는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지도 않다.

5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삼촌이 호식이를 영물이라 한 것은 새끼 멧돼지를 이용해 어미 멧돼지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삼촌과 호식이가 닮았다고 생각한 것은 '나'로, 둘이 다리가 다친 점이 닮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쩌네 수면제가 어쩌네 징징거리던'을 통해 삼촌이 한 이야기의 내용이 사랑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불질 잘한다고 알려지지만 여기저기서 해수구제 해 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캉케.', '마을에서 영웅 대접 받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이전 줄거리>의 '도라쿠 아저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업고 숲길을 걷는다.'와 본문의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라쿠 아저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 눈 쌓인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서 총 못 쏘다 카는 사람 아이러. 그 래 내가 니 삼촌 좋아하는 거라."를 통해 알 수 있다.

6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③

㉠에서 '나'는 호식이가 새끼 멧돼지의 생명을 도구 삼아 어미 멧돼지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멧돼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도라쿠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에서도 '나'는 과거의 사냥에서 싸 죽인 것이 멧돼지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에 '나'의 놀라움이, ㉣에 불신감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과 ㉡ 모두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나온 반응으로, 아저씨가 '나'의 질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다.
- ④ ㉠과 ㉡에서 '나'는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탄소리를 거듭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냉소적인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에서도 ㉠과 마찬가지로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가 드러나므로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새끼의 생명을 수단으로 어미 멧돼지를 잡는 사냥법을 암수라고 한 것은 삼촌이 아니라 도라쿠 아저씨이다.

[오답 확인]

- ① 새끼 멧돼지들을 보이는 족족 싸 죽이던 도라꾸 아저씨는 죽은 새끼를 쫓아온 어미 멧돼지와 시선을 마주친 후에 한참을 쓰지 못했다. 어미 멧돼지와 시선을 마주한 것이 인식이 변화된 계기임을 알 수 있다.
- ② 도라꾸 아저씨가 한때 헛된功名심에 눈이 멀어 해수구제로 영웅 대접 받는 것을 재미나게 여겼다는 점에서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냥꾼으로서 명예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산 것들 저래 살아가게 하는 일’이 용기 있는 일임을 깨닫고 이후 약실에 돌맹이 하나도 못 집어넣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도라꾸 아저씨가 자신이 한 번 죽었다고 말한 것은 멧돼지들을 죽였던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 ④ 도라꾸 아저씨는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며 리기다소나무, 청솔모, 바람 등이 모두 동등하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눈이 가지 위에 꽃처럼 소복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지에서 미끄러지고 때로는 바람에 흩날리는 등 수많은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화자는 이 과정을 통해 나뭇가지에 자리 잡은 눈꽃을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이라며 예찬한다. 그리고 봄이 되면 눈꽃은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봄꽃이 피어난다. 화자는 이를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면서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 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하고 있다.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 낸 사랑의 고귀함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눈꽃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피는 것을 바라봄.	시련을 극복하며 눈꽃을 피워 내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눈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함. 눈꽃이 녹은 자리에 핀 아름다운 봄꽃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함.

1 ① 2 ④ 3 ③

1 표현상 공통점 파악

답 ①

(가)에서는 ‘막막한 한숨이던가’,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 버스를 탄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강조하여 표현하였고, ‘친구여’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 더욱 고조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였다. (나)에서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황홀 보아라’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 수많은 노력과 인내 끝에 피어난 눈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영탄적 어조는 고조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오답 확인]

- ②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나)에서는 ‘싸그락 싸그락’이라는 의성어와 ‘난분분 난분분’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리는 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가)의 ‘차가운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운 상처’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⑤ (나)의 ‘황홀 보아라’에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뭇가지에 핀 눈꽃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가)에는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 시의 내용 이해

답 ④

[D]에서 화자는 정성스레 입김과 손가락으로 성에꽃을 한 잎 지운 후 창에 이마를 대어 보고 있다. 여기에서 ‘성에꽃’은 힘겨운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열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성스레 성에꽃을 지우고 이마를 대는 화자의 행동은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화자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확인]

- ① ‘엄동 혹한’은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드러낸다. 또한 ‘성에’는 날씨가 추울수록 잘 생긴다는 점과 관련하여 ‘엄동 혹한일수록 / 선연히 피는’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 회

1~3

192~193쪽

(가) 성에꽃 | 최두석

작품 해제

이 시는 새벽 시내버스 차창에 핀 성에를 보면서 힘겨운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애정과 암울한 시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인 ‘엄동 혹한’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의미하고, 시·공간적 배경인 ‘새벽’과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드러낸다. 차창에 서린 성에는 힘든 현실에 대한 막막함으로 내뿜은 누군가의 한숨일 수도 있고, 고단한 삶이지만 열심히 살겠다는 누군가의 정열의 흔적일 수도 있기에 화자는 성에서 연민의 감정과 함께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래서 화자에게 성에는 ‘성에꽃’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을 노래하던 시는 후반부에서 분위기를 전환한다. 화자는 흔들리는 차창에서 감옥에 가 있는 친구의 푸석한 얼굴을 떠올린다. 면화마저 금지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는 모습에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주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애정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새벽 시내버스 차창에 핀 성에를 봄.	성에를 보며 어제 버스를 탔을 평범한 사람들을 생각함.
	고단한 삶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민과 아름다움을 느낌.
	감옥에 가 있는, 면화마저 금지된 친구를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함.

(나) 첫사랑 | 고재중

작품 해제

이 시는 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봄이 되면 눈꽃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품이다. 흩날리는

- ② 화자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 입김과 숨결'이 만나 피워 낸 성에꽃에서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 ③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 어려운 현실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열정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며, 이러한 화자가 자리를 옮기면서 성에꽃을 보는 모습에서 성에꽃의 아름다움에 심취한 것을 알 수 있다.
- 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나)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눈의 노력으로 피워 낸 눈꽃이다.

[오답 확인]

- ① 눈이 나뭇가지에 미끄러진다는 것은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으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시련이다.
- ②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헌신적 태도와 희생을 의미한다. 이는 <보기>의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와도 통한다.
- ④ '한 번 덴 자리'는 눈꽃이 피었던 자리로 여기에 봄꽃이 피게 된다. 따라서 이는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다.
- ⑤ '아름다운 상처'는 봄이 되어 눈꽃이 녹은 자리에 핀 봄꽃을 의미한다. 이는 인내와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결실로 볼 수 있다.

4~7

193~195쪽

농군 | 이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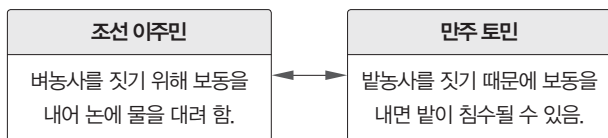
작품 해제

이 소설은 1931년 만주 토착민과 이주 조선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일본 경찰까지 개입했던 '만보산 사건'을 소설로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향을 등진 유창권의 가족이 만주의 조선 농민 집단촌인 장자위푸에 정착하면서 겪는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척박한 만주 땅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수로를 개간하려는 조선인들과 수로 개간이 벼농사를 짓는 자신들에 대한 위해 행위라 생각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만주 토착민들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유창권이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뚝을 물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물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생존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타국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조선 이주민들의 고달픈 삶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처지, 그리고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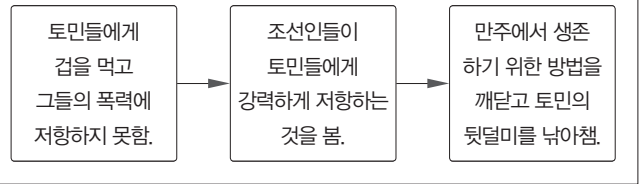
주제

생존을 위한 조선 이주민들의 끈질긴 삶의 투쟁

이 글의 주된 갈등



사건 전개에 따른 '창권'의 태도 변화



4 ④ 5 ⑤ 6 ⑤ 7 ④

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④

이 글은 전체적으로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다가 창권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토민들과 대립하는 장면에서 '갈진다', '웃어 댄다', '고꾸라뜨린다' 등과 같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인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덤벼라! 우린 여기서 못 살면 죽긴 마참가지다!" 정도이고 대부분은 서술자의 서술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내면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다.
- ⑤ 처음부터 끝까지 시점의 변화 없이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오금이 뻘다'는 '마음이 졸이다', '두려워하다' 등을 뜻하는 '오금이 저리다'와 반대되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다. '오금이 뻘다'를 '날갯죽지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과 함께 사용하여 창권이 토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오답 확인]

- ① 대간선을 째어 놓는 작업을 실패할 경우 잡곡이나 뿌리게 되어 먹고살기가 힘들 것이라는 내용을 가정과 결과로 연쇄적으로 제시하면서 대간선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창권이 맡은 구역의 길이, 넓이, 깊이 등의 규모와 '열기 전'이라는 기한을 밝혀 창권이 맡은 공사에 대한 부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 ③ 눈만 피하면 피를 피우는 콜리들의 불성실한 모습을 이를 잡거나 줄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④ '~에서 조선 사람들이 내려왔다', '~에서 조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와 같이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면서 창권이 당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이 나타나 반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장자위푸'에 보동을 만들어 붓물을 끌어오려는 것은 조선 이주민들이다. 토민들은 보동을 만들면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인 벼농사를 망치게 되기에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조선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공간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만주에 갓 이주해 조선인 집단촌에 합류한 창권은 고향과 다른 혹독한 기후와 낯선 언어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 ② 조선인들은 공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장자위푸에 물길을 내어 벼농사를 지음으로써 익숙한 생활 방식을 지속하고자 하고 있다.
- ③ 밭농사를 짓던 토민들은 조선인들이 만들려는 물길이 자신들의 밭을 망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즉 조선인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기존 생활 방식에 해를 끼친다고 보고 방해하는 것이다.
- ④ 조선인들이 토민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붓도랑은 우리 목줄이 아니고 뭐냐!'라고 생각하는 창권의 모습에서 붓도랑을 내는 문제는 '목줄', 즉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7 작품의 전개 양상 이해 답 ④

[A]는 네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문단에는 토민들이 조선인들의 공사를 방해하는 까닭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문단에는 설득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점점 공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드러난다. 그리고 셋째 문단에는 다시 토민들을 설득하지만 실패하는 장면이, 마지막 문단에는 이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조선인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결국 [A]는 조선인들이 토민들을 설득하지만 거듭 실패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그들이 하려는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조선인들이 토민들을 계속 설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최선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 ② 조선인들과 토민들의 의견 대립만 있을 뿐, 입장 차이가 좁혀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③ 조선 이주민들과 만주 토민들의 갈등을 통해 역사적 상황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역사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고 있지도 않다.
- ⑤ 조선인 공동체의 활동이 토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은 나오지만, 이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물길을 내어 벼농사를 지음으로써 낯선 땅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 집단 전체의 문제이다.

3 회

1~3 196~197쪽

(가)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 신석정

작품 해제

이 시는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소망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1연에서는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고, 2연부터 5연까지는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다. 봄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체념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1연에서 믿음을 갖고 봄을 기다리던 태도와 대비된다. 마지막 연의 '도시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봄을 부르는 자'를 '말로만 봄을 기다리는 자'로 해석하면 비판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간절히 봄을 기다리는 자'로 해석하면 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의지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시의 '몸살 자구'는 부정적인 민족 상황을, '봄'은 독립에 대한 소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제

봄을 상실한 안타까움과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봄이 오기를 기다림.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지만 부정적 현실에 사람들은 체념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임.
	봄을 잃어버린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희망의 필요성을 강조함.

(나) 백두산을 오르며 | 정호승

작품 해제

이 시는 눈보라 치는 백두산을 오르며 얻은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일행과 함께 도착한 백두산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시간이 지나면서 '함박눈'에서 '눈보라'로 변해간다. '낮달'이 사라지고 점점 어두워가는 산길에는 '바람'도 심해진다. 그러한 시련을 뚫고 묵묵히 산에 오르는 화자는 서서히 백두산과 동화되어 간다. 산에서 만난 '두견화'에 더욱 애정이 가는 것은 '눈'이라는 시련을 이겨 내고 피어난 가치 있는 꽃이기 때문이다. 힘든 과정을 거치며 산에 오르면서 화자는 마침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즉, 부정적인 상황을 수용하면서 극복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함께 살아갈 날들이 많은 주변의 '우리들'과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주제

백두산을 오르며 깨달은 공동체적 삶의 자세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눈보라 치는 백두산을 오름.	눈보라가 치는 백두산을 묵묵히 오름.
	시련을 이겨 내고 눈 속에서 핀 두견화를 보면서 애정을 느낌.
	시련을 겪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임.
	백두산을 오르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생각함.

1 ② 2 ④ 3 ④

1 표현상 공통점 파악 답 ②

(가)에서는 '푸른 수레', '흰 안개', '푸른 봄', '흰 백매' 등에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도 '흰 자작나무', '흰 두견화'에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가)에서는 '도시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라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였지만 (나)에서는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의성어를 활용하면 상황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드러낼 수 있지만 (가)와 (나)는 모두 의성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④ 수미 상관은 시에서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하게 반복되는 표현 방법이다. (가)와 (나)는 모두 수미 상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5연에서 ‘그들’은 ‘옥같이 흰 백매가 핀다기로서니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야 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상황이 지나고 조국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옥같이 흰 백매’가 민족의 운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2연의 ‘봄’은 조국의 해방을, ‘푸른 봄이 오리라는 즐거운 이야기’는 해방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봄’에 대해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해방을 소망하는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 ② ‘봄’이 조국 해방을 상징한다고 볼 때 4연에서 ‘어떤 친구’가 ‘봄’이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방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4연의 ‘어떤 친구’는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에서 해방에 대한 기대를 잃고 체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③ ‘부질없이’는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쓸모가 없이’의 의미이다. 따라서 <보기>를 참고하면 ‘부질없이 소곤대’는 것은 실천적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하기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5연의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는 봄이 오지 않는 공간이다. 이는 해방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절망적인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시행의 의미 파악

답 ④

[D]의 ‘마침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는 화자의 행동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확인]

- ① [A]에서 ‘시련’을 의미하는 ‘눈’이 ‘함박눈’으로 퍼붓기 시작했다는 것은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② [B]의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③ [C]의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씩 백두산이 되어 갔다’에서 백두산과 동화되어 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⑤ [E]의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읽을 수 있다.

4~6	197~199쪽
연 김원일	
작품 해제	
이 소설은 타고난 역마살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결국 객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 아버지의 삶을 제재로 하고 있다. 아버지의 역마	

살은 방물장사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겨울 눈밭에서 객사한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떠돌이 생활 중에 어머니를 만나 삼 남매를 낳았지만 아버지의 방랑벽은 나아지지 않는다. 훌쩍 떠났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행동이 반복되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떠맡은 어머니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끼며 자란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연’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로 이어지는 3대의 중요한 매개물이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또한 ‘나’에게 연을 만들어 준다. ‘연’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아버지의 운명을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얼레에 묶여 끝없이 날아가지 못하는 연은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제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염원과 현실적 제약에 따른 좌절

등장인물

- **아버지**: 자유를 꿈꾸며 떠돌아다니다 객사함.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함.
-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짐.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평생을 살아감.
- **‘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

‘연’의 역할

-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로 이어지는 3대의 매개체임.
-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지만 다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삶을 상징함.

4 ② 5 ⑤ 6 ③

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다. ‘나’는 글의 중심인물인 아버지의 삶을 전달 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며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이 글의 서술자는 ‘나’ 한 명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
- ③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되는 구성은 액자식 구성이다. 이 글은 액자식 구성의 글이 아니다.
- ④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작품 안에 위치한다.
- ⑤ 이 글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5 대화의 의도 및 의미 이해

답 ⑤

아버지의 식사를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웁내서 묵고 왔다 캡디더.”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아버지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평소와 달리 자전거에 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가족의 생계에는 관심이 없고 새를 좋아하는 마음에 저수지로 이사를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불만이 “그 구경 땡기모 밥이 생기요 떡이 생기요?”라는 말에서 드러난다.

- ② 겨울에 만들어 날리는 연을 겨울도 아닌데 많이 만드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나'의 의아함이 드러난다.
- ③ 일만 하는 사람을 '개미'에 비유하면서 '사람은 개미가 아이잖나'라고 말하는 것에서 경제적 활동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④ 양식이 떨어져서 자식들이 저녁을 굶었을까 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난다.

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돈 벌라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 사람을 부모 사람 사는 목적이 저런가 싶을 때가 있지려.”라는 말을 통해 아버지는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역마살로 인해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확인]

- ① ‘장터를 떠돌며 어물 장사를’ 하는 어머니는 역마살로 떠도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 ② 아버지는 “사람은 어데 갈 목적이 없어도 어떤 때는 연맹크로 그냥 멀리로 떠나 댕기고 싶은 꿈이 있는 기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머니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를 연에 비유한다면 연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열레의 역할은 가족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⑤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해 원망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밀물과 썰물처럼 그 원망이 다시 연민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4 회

1~4

200~201쪽

(가) 다시 봄이 왔다 | 이성복

작품 해제

이 시는 변화 없는 삶에서 오는 권태와 생동감 있는 삶에 대한 욕망,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푸른 생명력을 싹틔우는 자연과 달리 화자는 더디고 나른한 일상에 권태를 느낀다. 물론 화자도 ‘세차장 고무호스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솟아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러한 욕망은 가슴속에서 ‘윤기나는 석탄층’으로만 굳어 가고, 화자는 자신에게 그러한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욕망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 일은 없었다’와 같은 단정적 표현으로 비판적 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생명력 넘치는 삶에 대한 비판적 인식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봄이 오는 모습을 보며 삶을 되돌아 봄.	푸른 풀과 나무의 푸른 싹을 보며 봄이 오는 것을 느낌.
	더디고 나른한 세월에 권태로움과 무기력함을 느낌.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생명력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느낌.
	욕망이 실현되지 못한 채 가슴속에서만 굳어 가고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함.

(나) 벽 | 김기택

작품 해제

이 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타인에 대한 현대인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의 내용은 단순하다.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몸부림치는 할머니의 모습과 그런 할머니를 둘러싼 승객들의 ‘벽’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 그리고 시가 전개되면서 점점 작아지는 할머니의 모습과 점점 더 견고해지는 승객들의 ‘벽’을 대비하면서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할머니의 움직임을 ‘꿈지락거리고’, ‘허우적거리고’, ‘꿈틀 거린다’고 표현함으로써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소외된 이웃의 처절한 몸부림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는 현대인의 모습 비판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애쓰는 할머니를 봄.	승객들의 벽에 둘러싸인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봄.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내리려고 하지만 승객들이 더욱 견고한 벽이 되어 간다고 느낌.

1 ① 2 ④ 3 ④ 4 ③

1 표현상 공통점 파악 답 ①

(가)는 ‘누구나 안다’,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등에서 단정적 진술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확인]

- ② (나)에는 도치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가)와 (나)에는 모두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가)에는 ‘푸른’, ‘누구’와 같은 시어와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고, (나)에는 ‘할머니’, ‘벽’ 등의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두 시 모두 반복과 열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는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2 시의 의미 파악

답 ④

[C]에서는 권태롭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욕망을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A]에서는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며 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더디고 나른한 세월’의 권태로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는 ‘우리의 굶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라고 물으면서 현실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항시 우리를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라며 비관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C]에서는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를 통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기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3 시어의 의미 파악

답 ④

‘더’는 승객들이 할머니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는 상황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숙박상 상황을 벗어나려는 할머니의 모습을 부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헛되이’는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는 할머니의 행동이 소용이 없으며,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 ② ‘튼튼한’은 할머니를 빈틈없이 에워싼 승객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할머니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인 ‘벽’(승객들)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조금도’는 할머니를 둘러싼 승객들의 벽이 전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할머니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승객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견고한’은 ‘벽’으로 표현된 승객들의 상황이 변화 없이 단단하게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는 화자가 바라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의미하는 시구이고, ‘윤기나는 석탄층’은 그러한 삶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시구이다. 따라서 이 둘을 연결하여 현실에 맞서는 화자의 정서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갈라진 밑동’에 돋은 ‘푸른 싹’은 봄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생명력 있는 삶을 꿈꾸는 화자의 바람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② ‘우리의 굶은 등’과 ‘먼지 낀 풍경’은 권태롭고 무기력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작은 할머니’와 높은 ‘벽’은 할머니와 승객들 사이의 대조에 의한 연상적 비교가 일어나 괴로움을 느끼는 할머니에 대한 공감이 유발된다.
- ⑤ 할머니가 ‘꿈틀거리’는 것은 벽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이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할머니의 상황이 강조된다.

5~8

201~203쪽

볼모지 | 차법석

작품 해제

이 글은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양한 세대의 비극적 삶을 그려 낸 사실주의 희곡이다. 서울에서 전통 혼구 대어점을 하는 최 노인의 사업은 신식 결혼의 성행으로 점차 어려워진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팔자는 자녀들과 대립하던 최 노인은 결국 고집을 꺾고 소중히 여기던 집을 팔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아들 경수와 갈등을 하게 되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이라 생각한 경수는 강도질을 하려다 경찰에 체포된다. 그리고 배우를 꿈꾸던 큰딸 경애는 사기를 당하고 자살한다. 이 작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대비가 드러난다. 첫째는 공간의 대비로, 화려한 신식 건물 속에 묻힌 최 노인의 전통 한옥이 대비되어 초라하게 쇠퇴하는 전통문화를 드러낸다. 둘째는 최 노인과 자식들로 대변되는 세대 간의 가치관의 대비인데,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최 노인이나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식들 모두 제목에서 의미하는 ‘볼모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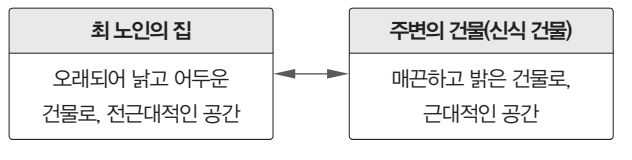
주제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겪는 가족 해체와 세대 간의 갈등

등장인물

최 노인	전통 세대를 대표하며 완고하게 옛것을 지키려는 인물	○ 몰락하는 전통 세대
어머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순종적 인물	
경수	장남. 최 노인과 갈등하는 인물	○ 현실에 적응 못 하는 중간 세대
경애	장녀. 배우의 화려한 삶을 꿈꾸다가 사기를 당하고 자살함.	
경운	차녀.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며 부모를 도움.	○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신세대
경재	차남. 밝고 명량하며 재치가 있음.	

공간적 배경



5 ⑤ 6 ④ 7 ④ 8 ⑤

5 작품의 종합적 이해

답 ⑤

이 글은 1950년대의 서울 중심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수의 대사 중에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실제 지명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실제 지명이나 건물명 등을 제시하면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언어유희란 소리의 유사성이나 의미의 유사성 등을 이용한 말놀이를 말한다. 이 글에서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집을 둘러싼 각 인물의 내면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면의 전환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인물의 복장이 나타난 부분은 경재의 제복 정도이다. 이를 통해 인물의 신분은 짐작할 수 있지만,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④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6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④

㉔의 앞에서 최 노인이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고 말하자 경수가 “예? 전 세라구요?”라며 놀라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집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최 노인이 집을 전세로 내놓았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경운이 서로 바라보는 것도 경수와 마찬가지로 의외의 상황에 놀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경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최 노인은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화초와 고추가 자라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② 일반적인 대화의 어투가 아니라 웅변조의 어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 ③ 처음에 ‘김 침지’라고 부르던 최 노인이 다급하게 ‘김 선생’이라고 높여 이르는 말로 호칭을 바꾼 것은 기분이 상해 돌아가는 복덕방 영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한 것이다.
- ⑤ 최 노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어머니’의 심정을 맨발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어머니는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는 최 노인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 노인의 의도와 계획을 묻고 있는 것이지 못마땅함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확인]

- ① ㉔에는 달라진 현실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그래서 경재는 아버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웅변조의 말투를 사용하여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복덕방 영감은 ‘공동묘지’를 언급하는 경수의 말을 나이가 많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단하고 나가 버린다.
- ③ 경수는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복덕방 영감과 흥정을 방해했는데, 집을 팔 계획이 없다는 최 노인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 ⑤ 자신이 집을 팔려 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들은 최 노인은 화초밭을 망가뜨리며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8 배경의 의미와 역할 파악 답 ⑤

최 노인은 자신의 집 주변의 건물들 때문에 화초밭의 화초와 고추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불만으로 화

초밭을 뽑아 헤친다. 이런 최 노인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이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통해 이 화초밭은 최 노인이 정성을 들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최 노인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허망함을 정성 들여 가꾼 화초밭을 훼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확인]

- ① 가족들이 화초밭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화초밭을 짓밟는 행동은 울분의 표현이지, 집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 ③ 최 노인은 화초밭을 훼손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 노인의 행동은 갈등의 표현이므로 화초밭이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최 노인은 자신의 처지에 분노하고 있을 뿐, 자책하고 있지는 않다.

5 회

1~3

204~205쪽

(가) 추일서정 | 김광균

작품 해제

이 시는 제목 그대로 가을 낮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도시이다. 전반부에서는 어느 가을 한낮의 도시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낙엽이 날리고, 길게 이어진 길이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빈 들에는 연기를 내뿜는 급행열차가 달리고 있다. 앙상한 포플러 나무 사이로 보이는 공장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것처럼 삭막하고, 그 앞에는 구부러진 철책 하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을의 풍성함보다는 황량함에 초점을 맞춘 풍경 묘사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황량한 생각을 하던 화자는 허공에 띄운 돌팔매가 그리는 반원의 포물선이 고독하다고 느낀다. 이는 가을날 도시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함이 드러난 것이다. 탁월한 비유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서구적인 도시 풍경을 묘사하면서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화자의 상실감과 고독함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가을 한낮의 황량한 도시 풍경을 보고 있음.	낙엽을 보면서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를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낌.
	넥타이처럼 풀어져 사라지는 길과 들을 달리는 급행열차를 보며 허망함을 느낌.
	앙상하고 삭막한 도시 풍경을 보며 황량함을 느낌.
	허공에 돌팔매를 띄우며 고독감을 느낌.

(나) 아마존 수족관 | 최승호

작품 해제

이 시는 도시 문명 속에 길들여지면서 순수한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에게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는 작품이다. 화자는 세검정 길을 걷다가 '아마존 수족관집'에 전시된 열대어들을 본다. 삭막한 도시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열대어들은 도시의 철근을 울창한 밀림으로, 간판의 뜨거운 열기를 열대 지방의 뜨거운 날씨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꿈꾸는 아마존은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에 화자는 열대어들에게 생명력을 회복시킬 시를 선물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시를 통해 열대어들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는 '노란 달'과 '후리지아꽃들이 만발'한 '아마존 강변'을 느끼기를 소망한다. 이 시에서 열대어들은 삭막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의미한다. 즉 기계화된 사회에서 살면서 순수한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에게 '시'를 통해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순수한 생명력을 부여해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주제

도시의 삶에 대한 비판과 현대인의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여름밤 도시 한가운데 있는 아마존 수족관집의 열대어를 봄.	수족관 속의 열대어들을 보면서 생명력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낌.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면서 아마존의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함.

1 ③ 2 ② 3 ③

1 표현상 공통점 파악 답 ③

(가)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을을 배경으로 한다. '낙엽', '도란 시의 가을 하늘', '포푸라 나무' 등의 소재들이 황량한 가을 풍경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적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지는 여름밤을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나)의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② (나)에서는 '여름밤'이라는 시어를 반복하면서 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는 시어의 반복이나 변형이 보이지 않는다.
- ④ (가)에는 사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는 수족관과 아마존강이 대비되면서 생명력 회복이라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난다. 하지만 (가)에서는 삭막한 도시 풍경만 묘사되고 있을 뿐, 공간의 대비는 드러나지 않는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1행에서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를 언급한 것은 쓸쓸하게 날리는 낙엽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보기>의 '작가

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확인]

- ① (가)는 가을 낮의 풍경을 한 편의 풍경화를 그리듯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원경과 근경을 반복하면서 회화적 느낌이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데, 초반부에는 '낙엽'의 근경과 '급행열차'의 원경이, 후반부에는 '포푸라 나무'의 근경과 '구름'의 원경이 대비되고 있다.
- ③ '공장의 지붕'을 '흰 이빨'로 비유하면서 황량한 도시 풍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돌팔매'가 '잠기어 간다'는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도시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셀로판지'는 '구름'을 비유한 보조 관념이다. 자연적인 대상인 '구름'을 물질적인 대상인 '셀로판지'에 비유하여 도시의 가을이 주는 메마르고 황폐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에서는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어 회화성을 형성하고 있다.

3 시구 및 시어의 의미 이해 답 ③

'열대어'들이 물질문명을 상징하는 '수족관'에서 목마름을 느끼는 표현을 통해서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아스팔트'는 현대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소재이고 '고무 탄내'는 불쾌함을 환기한다. 이를 통해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 ② 도시의 수족관에 갇힌 열대어들에게 철근은 밀림을, 간판의 뜨거운 열기는 아마존의 열대 기후를 연상하게 한다.
- ④ 화자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해서 그들이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열대어'로 표현된 현대인에게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심어 주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 ⑤ 꽃이 만발한 모습은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4~7 205~207쪽

(가) 토지 | 박경리

작품 해제

이 소설은 구한말부터 1945년 해방까지 약 50년에 이르는 시간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굴곡 있는 가족사를 통해 한민족이 감내해 온 고난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윤씨 부인과 최치수, 최서희로 이어지는 삼대의 삶에 주목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삶을 함께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충돌, 남녀 간의 애정과 갈등, 인간의 탐욕과 화해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화기, 일제 강점기, 3·1 운동, 해방 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가의 역사 의식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1969년에 집필에 들어간 이 소설은 1994년에 총 5부 16권으로 마무리되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고증, 생동감 있는 사투리의 사용, 개성 넘치는 인물들의 등장 등을 통해 민중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대작으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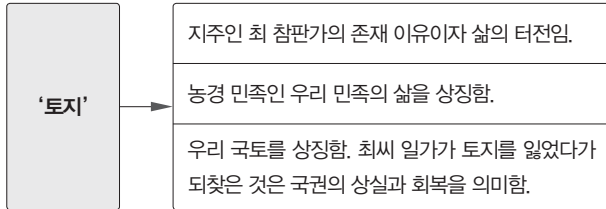
주제

한국 근대사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민중들의 삶의 애환

등장인물

- **윤씨 부인**: 최치수의 어머니로 엄격하고 공명정대한 인물. 절에 갔다가 겁탈을 당해 아이를 낳고, 이후 죄책감으로 최치수를 멀리함.
- **최치수**: 최 참판가의 당주이자 최서희의 아버지. 어머니인 윤씨 부인의 외면으로 부정적인 성격이 됨.
- **최서희**: 최치수의 딸로 최 참판가의 혈통을 이은 인물. 외모와 재능을 겸비하였고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임.

제목의 의미



(나) 토지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작품 해제

이 글은 박경리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소설은 1994년에 5부작으로 완성되었는데, 영화 촬영 당시에는 2부가 연재 중이었기 때문에 영화는 1부만 다루고 있다. 1부는 최 참판가의 1대 이야기가 중심이어서 최서희의 역할이 크지 않고 윤씨 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제

한국 근대사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민중들의 삶의 애환

4 ② 5 ② 6 ④ 7 ⑤

4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무거운 굴레를 둘러싼' 인물은 집안의 토지와 재산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 윤씨 부인이며, '고통스런 세월'을 보낸 것도 윤씨 부인이다. 따라서 치수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 썼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은 윤씨 부인이 나이가 들고 쇠약해졌다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치수가 이를 통해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은 윤씨 부인과 치수의 갈등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치수가 윤씨 부인을 회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치수가 기억하는 윤씨 부인의 예전 모습이다. 따라서 절에서 돌아온 후 차가워진 윤씨 부인의 모습에서 치수가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받은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치수가 어린 시절의 상처로 어머니인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5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하여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등과 같이 작중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풍자란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비웃으면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는 풍자적 서술이 드러나지 않았다.
- ③ 이 글에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인물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서술하는 방법이다. 이 글에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이 글에는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며,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다.

6 소설과 시나리오 비교

답 ④

[A]에 치수가 "많이 편찮으신지요?"라고 안부를 물은 뒤 눈빛을 감추며 시선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연기하라는 메모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확인]

- ① [A]의 '차렵이불의 갈매빛'이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적절한 메모이다.
- ② [A]의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적절한 메모이다.
- ③ [A]의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게 단정하여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적절한 메모이다.
- ⑤ [B]의 '마음이 급하여 가마를 따르며 불렀으나'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적절한 메모이다.

7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파악

답 ⑤

㉞에서 치수는 겉으로는 서희에게 새어머니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가 반대하시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상황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이라는 의미의 '표리부동(表裏不同)'과 어울린다.

[오답 확인]

- ① '중언부언(重言復言)'은 '이미 한 말을 자주 되풀이함. 또는 그런 말'의 의미이다.
- ② '후안무치(厚顏無恥)'는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의 의미이다.
- ③ '두문불출(杜門不出)'은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의 의미이다.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은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의 의미이다.